

建築士



K.I.R.A

vol. 415

2003

U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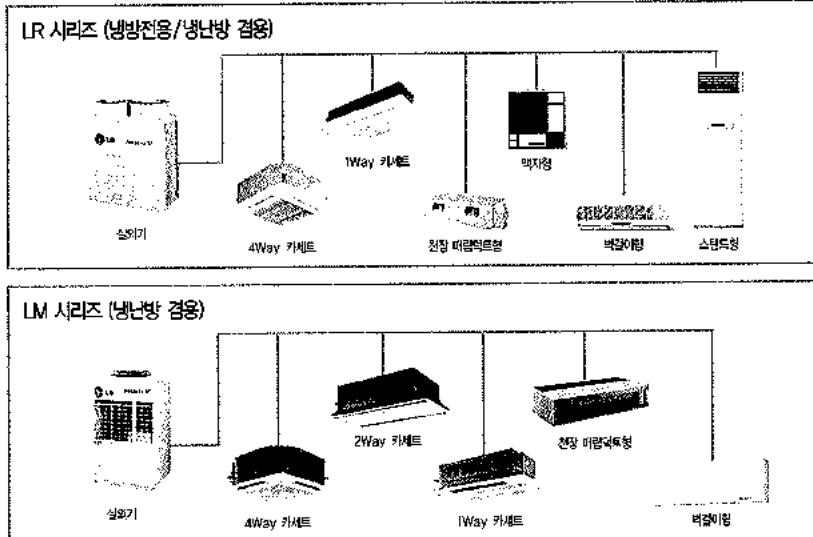


전기료도 공간도 멀티로 절약

첨단 시스템에어컨—

MULTI V™

한 대의 실외기에 접속되는 냉매 배관을 단배관으로 직렬구성한 인버터 멀티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하며, 설치가 편리하고 설치 비용의 절감은 물론 다양한 실내기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효율적 배관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공간 절약과 에너지 절약의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별도의 실내기 설치 공간 및 기계실이 필요 없고, 초절전 인버터 멀티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 대비 최고 32%까지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ESCO자금 지원 대상 제품)

빠르고 강력한 인버터 냉난방 시스템

강력하고 유연한 인버터 압축기 채용으로 ±0.5°C의 미세 온도제어와 1.5배 빠른 랜惰 운전은 물론 영하15°C 혹한기 난방도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설계/설치가 가능한 효율적 배관구조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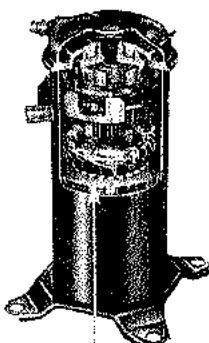
5~30Hp의 실외기 용량, 다양한 실내기 기종 및 빌딩에 적합한 장배관 시스템(허용최대길이 100m/고지차 50m)으로 설계가 자유롭고 설치가 간편합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개별/중앙 제어 시스템

실내기 개별제어/그룹제어/중앙제어/PC제어/인터넷 제어/직산전력 분배시스템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영하 15°C의 혹한에서도 우수한 난방능력

실외온도가 -15°C까지 내려가더라도 실내기 토출온도가 40°C 이상을 유지하여 정상난방이 가능합니다
(한랭지향 모델)



Inverter Motor

국내최초 인버터 단배관 시스템

구입 문의 : 건설사 영업팀 02)2005-3052 · 강남 02)2005-3596 · 강북 02)727-4183 · 경기 031)267-0073 · 인천 02)321-9162 · 호남 062)510-5842 · 충청 042)888-0633
부산 051)807-3242 · 경남 055)264-7494(제주도학) · 경북 053)257-0808 *인터넷 홈페이지 www.systemaircon.com 또는 www.whisen.com

세계(8개국) 발명특허 획득!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스웨덴, 한국, 중국, 캐나다)

심야전기 보일러 난방비보다 시설비 및 유지비가 저렴!

난방비 걱정 끝!

온돌전용

유류비의 70%, 가스비의 30% 절감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로...

제품 특징

물은 대기중에 100°C 이상 가열시켜야 증기가 발생되지만 밀폐(진공)상태에서는 그 비점이 달라지므로 25°C 이상 가열하면 증기가 발생하는 원리

● 안전한 난방

축열식 히터온들의 취약점을 없애기 위해 두가닥의 80°C의 정온 열선과 열매수를 사용하여 과열방지 장치 없이 고열에 의한 코일단절 보안과 함께 화재 위험을 없애고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가져왔다.

● 에너지 절약

특허기술로 밀폐한 온수관 내에서 1평당 1.9㎾ 정도의 온수를 열이동에 의한 열손실 없이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평당 소비전력 190W부터 난방이 가능해 여름철 냉방용 전력을 겨울철 난방용 전력으로 절체사용할 수 있어 증설비용 및 기본요금 절감. 일반 니크롬선 및 시트형 발열체보다 70%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고효율 제품이다.

● 보일러실과 관리비 없는 개별난방

별도의 보일러실 없이 안내실 조작 패널에서 ROOM별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ON/OFF)과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로 난방할 수 있다. 유지보수 및 관리비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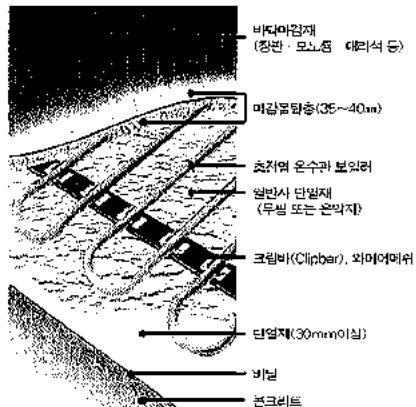
● 기존배관 재활용으로 A/S기간 10년

기존 배관이 있는 경우 바닥을 뜯지 않고 가구이동 없이 전열선 삽입 및 관을 특허 공법으로 간단하게 재활용하여 당일 사공 당일 난방이 가능하다. 기계적 장치가 없어 고장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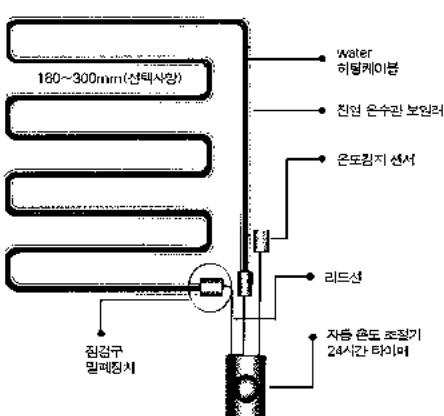
(차단기 무상A/S 1년)



▼ 온돌 몰타르 시공방법



▼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사양



▼ 소비전력 용량비교표

시공선택사항	평당시공 방열판 간격(mm)	평당시공 길이(m)	평당소비 전력(kW)
	300	10	0.19
	275	11	0.21
	250	12	0.23
	230	13	0.25
	200	14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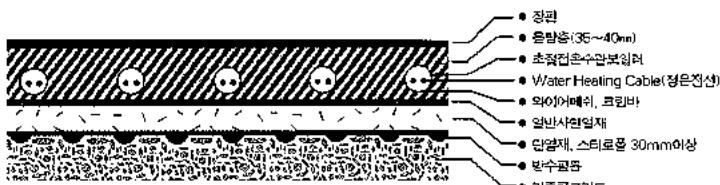
* 주택용 전력 수용가 제외
** 건축법 제69조 규칙 단열시공건물 기준

제품 주 수요처

호텔, 숙박업소, 콘도, 오피스텔, 연구소, 교도소, 실버타운, 사찰, 종교시설, 기숙사, 연수원,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군·경내무반, 병원,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작물 일정온도 유지, 지중난방 등

- ▶ 경향전기에너지 절약 부문 산업자원부장관 수상제품
- ▶ 정부 각 부,처,도,시,군,구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
- ▶ 중소기업청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인증
- ▶ ISO9001:2000 인증획득업체
- ▶ 품질보증인증(Q마크)획득업체

▼ 온돌 몰타르 시공방법



※ 당사 온수관 보일러는 특허기술이므로 무단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계약시 필히 본사에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본사 사칭 유사 제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A/S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열에너지(주)

Chunyul Energy Co., Ltd.

대표전화 02) 928-1090

팩스번호 02) 925-5353

본사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12-1

서울본부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71 234 성신빌딩 3층

홈페이지 www.chunyul.co.kr

E-mail : 1010cy@korea.com

정부조달 우수제품 인정
신기술 KT 인증제품
국내 최초 Fi인정 제품

KT
국내 최초 난연성 인테리어 신소재
인증제품 제 03138-336 1111문제 2030-10387
제작일자 2030-102515 신청번호 제 0943839

안타민

불연 내장 마감재

- 불에 안타민서 불의 확산을 막아줍니다.
-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양한 컬러, 패턴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 충격에 강합니다.
- 국내 최초로 소방 겸정공사의 Fi 인정서를 획득하였습니다.

건축법, 소방법 에서의 해방

– 건축법, 소방법 개정시행(대통령령)

개정된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거 특수장소 및 다중 이용
내장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서울 서부 총판 – 서울시 강서구 Tel : 02-2691-1842 Fax : 02-2691-1843
- 서울 송파 총판 – 서울시 송파구 Tel : 02-425-1382 Fax : 02-2203-1328
- 대구 경북 총판 – 대구광역시 동구 Tel : 053-745-0585, 381-2737 Fax : 053-745-0583
- 경인 봉판 – 경기도 부천시 Tel : 032-328-0471~3 Fax : 032-328-0474

- 중부 총판 – 대전광역시 대덕구 Tel : 042-635-1118 Fax : 042-631-3536
- 경남 풀판 – 진주시 장대동 Tel : 055-741-4915 Fax : 055-746-8095
- 부산 총판 – 부산시 능래구 Tel : 051-507-6177 Fax : 051-507-6178

- 진주지역 대리점 – 진주시 인자동 Tel : 055-742-4183 Fax : 055-742-4180
- 청원, 마산지역 대리점 – 창원시 팔등동 Tel : 055-293-8558 Fax : 055-293-8444
- 대구 특의점 – 동구 신천4동 Tel : 053-759-8804 Fax : 053-759-8800
- 천안 대리점 – 철원동 Tel : 041-555-6677

》 SEOHAN ANTAMINE

주식회사 세한안타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진동 741-8(남동공단 165B-61)
Tel : 032-815-1674~7 Fax : 032-814-4155
e-mail : seohan@antamine.com
www.antamine.com / www.seohan-deco.co.kr

스카이파크

SKY PARK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전문 건설업 등록업체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 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 이 럴 게 다 름 니 다

전경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차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 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시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p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사양 (뉴 그랜저급 진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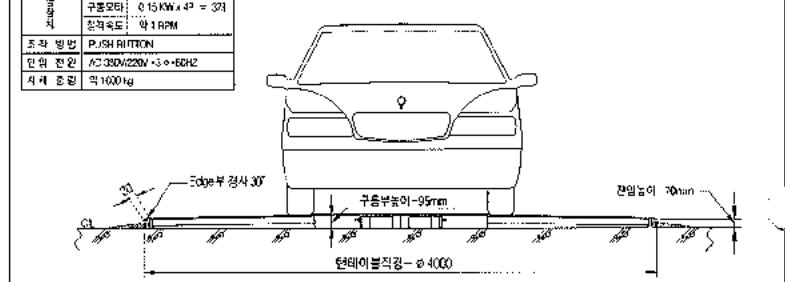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최小)	주차기 길이 (최小)	소요높이 (최小)
SKY PARK-5	5 대	4570	6090	6630
SKY PARK-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신제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저상높이 70mm!

항	성	장치설계기본설계
수	용	차
기	종	중, 소형 중형차(무게 2000kg 이하)
구	조	구동방식 : 마찰 구동식
동	기	구동모터 : 0.15KW x 4P = 372
장	적	전작속도 : 약 1 RPM
조	작	PUSH BUTTON
작	작	인증 전원 : AC 380V/220V ±3% ~ 60Hz
자	작	자재 종류 : 철 1000kg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본사·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TEL : (053)956-8838(代)

• 전국무료전화 : 080-567-7788

• 서울A/S센터 : (02)333-4448

• p.p : 011-507-8838

• E-mail : cgp210@kornet.net

• 부산 A/S센터 : (051)784-6721

디지털 프론티어-삼성

건축사의 신용, 대출 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삼성생명 대출 특선!!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_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_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_연 6.4%~7.2%

기 간_1년~5년(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_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담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6.0%~7.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6.0%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최고액 대출

삼성생명
Seed Bank

최저의 금리

신속한 처리

상담문의

삼성생명 강남 AM
Seed Bank

Tel_(02)545-8853~4

Fax_(02)545-4939

HP_011-9738-0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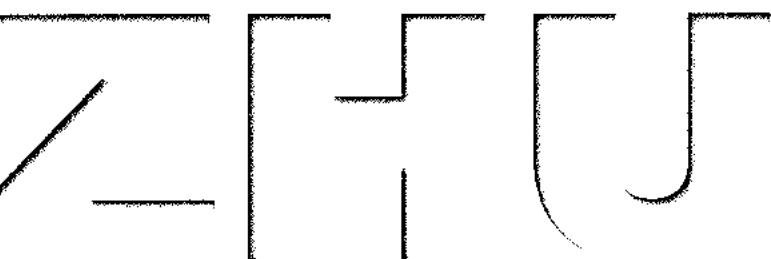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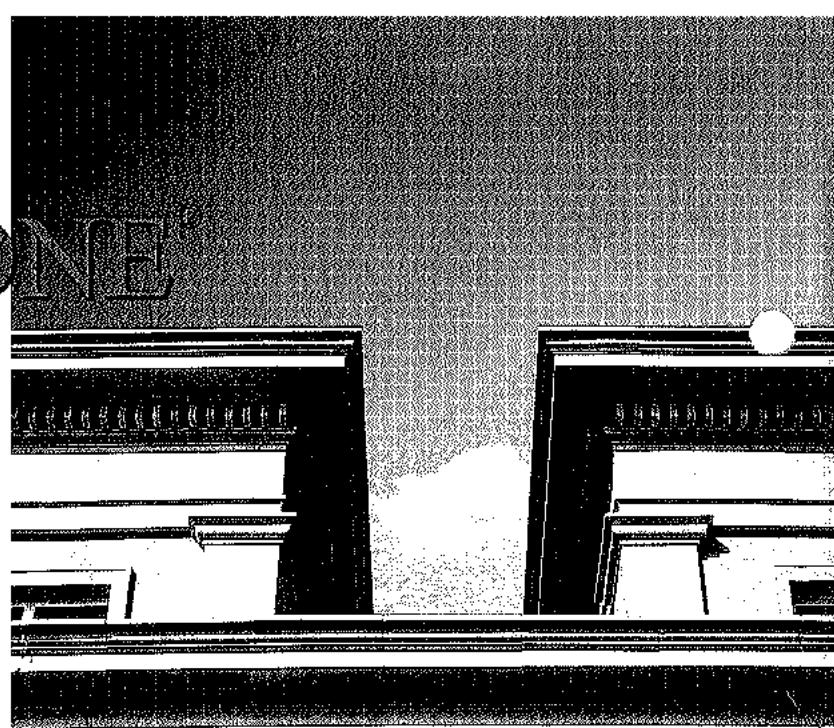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건축물의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ZHUAI 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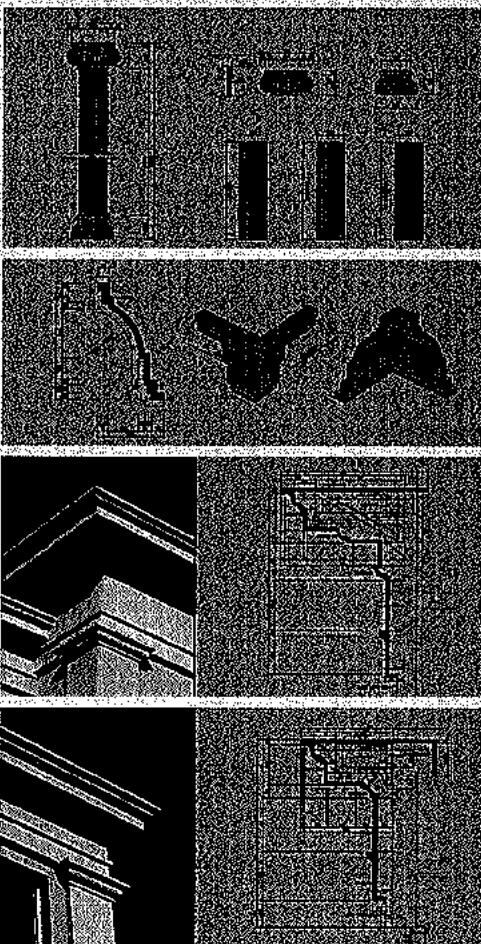


건축물의 가치는 단순히 설계상의 디자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건축가의 의도에 부합되는 색상과 질감이 시공 및 유지 관리하기
중요합니다. 주아이스톤®은 정제된 세라믹과 업선된 자연석을 혼합
하게 형상화한 금형을 사용하여 자연석의 섬세한 질감과 색상기
재현할 수 있으므로 어떤 설계에도 시공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최첨단 과학 소재로 귀사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 드립니다.

이것이 요즘 수 많은 건축 자재 중 고급 건물에
주아이스톤®이 선택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자유로운 조성이 가능합니다.

ZHUAI STONE®은 정제된 세라믹과 엄선된 자연석을 섬세하게 혼합화 한 금형을 사용하여 자연석의 섬세한 질감과 색상까지 재현할수 있으므로 시공도면과 스케치 사진 등에 의한 어떤 형상의 설계에도 제한 없는 시공이 가능합니다. ZHUAI STONE®은 건물 처마의 길이가 3.5m 이상 대형건축물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천연소재의 색상 채용을 통해 자연스럽고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움이 유지됩니다. 하중부담을 고려한 견축공법으로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비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MOLDED MILLWORK & 애틀하우스 경계드

길고 경직적인 걸작 고작 조제로 의제에 뛰어납니다.

유리섬유, 세라믹 등의 혼합재로서 석면과 알카리에 의한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방수 가능하면서도 세라믹과 같이 공기의 투과성이 있어 조형률 자체가 숨을 쉼니다.

마법 이상의 주방을 태장합니다.

완전불연성 특성을 통해 시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없는 고신장력을 갖고 있어 일반 건축 내 의장재와 비교시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일반 시멘트보다 3배 이상의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점 모집

상담문의 (02) 785-1822



엔지니어용 웹하드는 따로 있다! 엠큐빅

엔지니어를 위한 강력한 인터넷 웹디스크

엠큐빅(MCUBIC)만의 솔루션 - 다양한 엔지니어링 업무 지원 기능 제공 /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 파일 및 폴더의 웹스토리지 서비스(Web Storage Service) / 확실한 데이터 안정성 보증
을 달았는 서비스 / 방화벽(Fire Wall) 침입탐지 시스템 / 서버인증 등의 완벽한 보안체계

WWW.MCUBIC.COM

빠르고 편리한 도면 뷰어(Viewer)기능
전용 뷰어를 통해 AutoCAD파일을 웹에서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향후, Office 파일 및 다양한 CAD/CAM
포맷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FITS 서비스 기능

파일 업로드 후 협력사에게 확인 전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로드 시 바로 웹에서 문자 메시지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운로딩 부스터 기능

다운로드 받는 파일이 클수록 다운로딩
속도가 증가하여 사용자 네트워크의
최대속도까지 지원합니다. 가장 빠른
다운로드 속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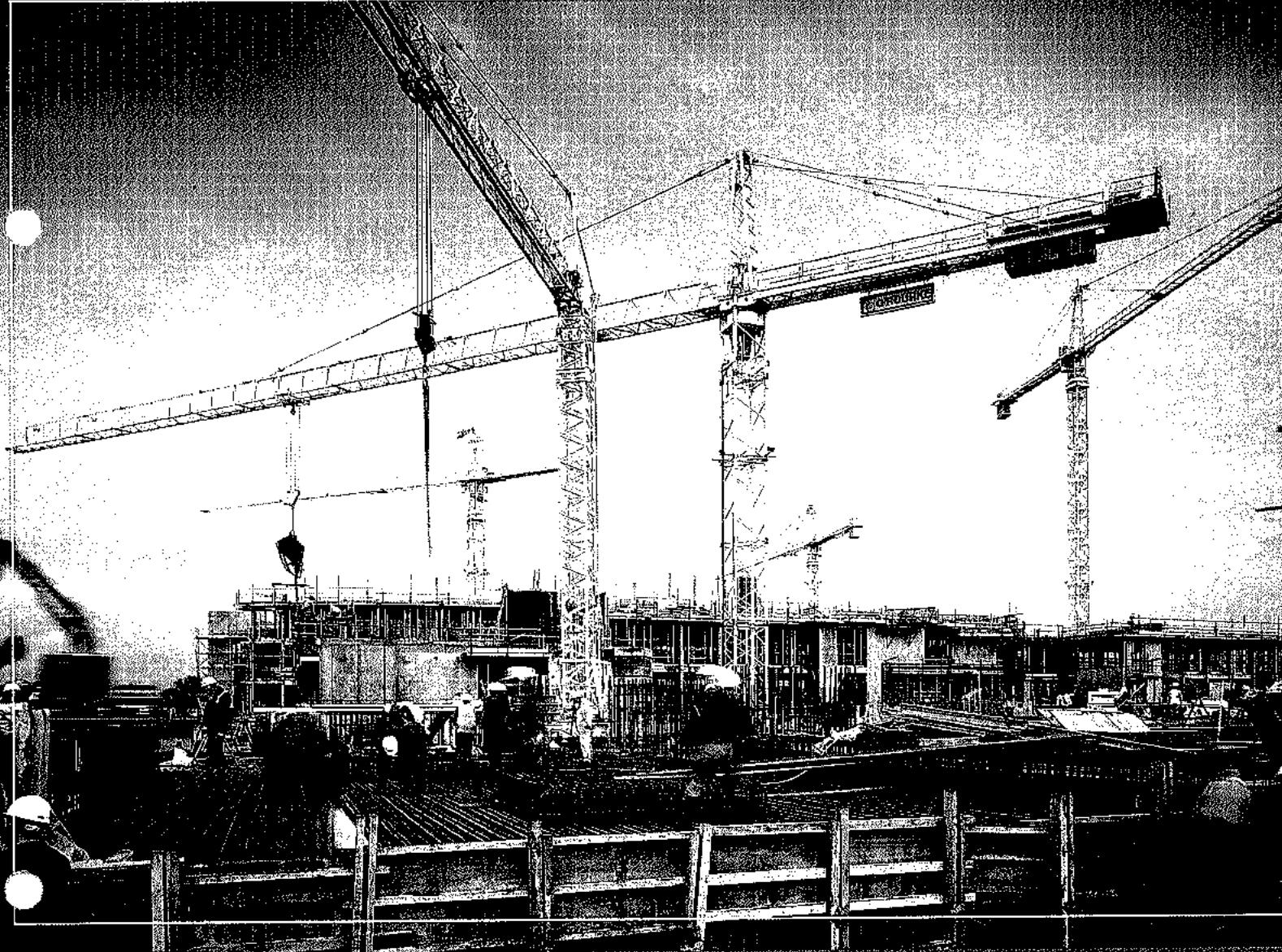
프로젝트(Project) 관리 기능

고가의 별도 프로그램 없이 저비용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도구(TOOL)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프로젝트
참여자 등록/관련 설정 등의 엔지니어링
업무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엔지니어용 웹하드 [M큐빅] 특별할인 행사를시!

엔지니어링 전문 웹하드 M큐빅을 건축사님께
20%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 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하시는 건축사님은
1GB당 월 7,400원에 전문 웹하드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M큐빅 PM 3GB를 일년 사용시]
PM 3GB (30,800원)*1년 = 369,600원
1년 장기결제 할인 10% = 332,640원
건축사 특별회원 할인 20% = 266,000원
* 1GB 당 월 7,400원에 공급



건축자금대출

■ 대출대상 : 제한없음(공사진척도 50% 이상 된 건물에 우선 대출됩니다.)

■ 대출금액 : 2억원 이상, 상한금액 제한없음

■ 대출기관 : 시중 금융기관(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 그 밖의 대출상품

- 부동산담보대출
- 경매취하자금대출
- 하자정리대출
- (근)저당권부 채권 담보대출
- 경락진금대출
- 부동산매입자금대출
- 건축관련 Project Financing

(주)한성브릿지

TEL : 02-535-9773 FAX : 02-535-9774
Mobile : 018-359-1472 (담당 : 이동욱)

대관안내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 공간

Architect's Gallery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평(198m²)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7만5천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은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는 건축과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대관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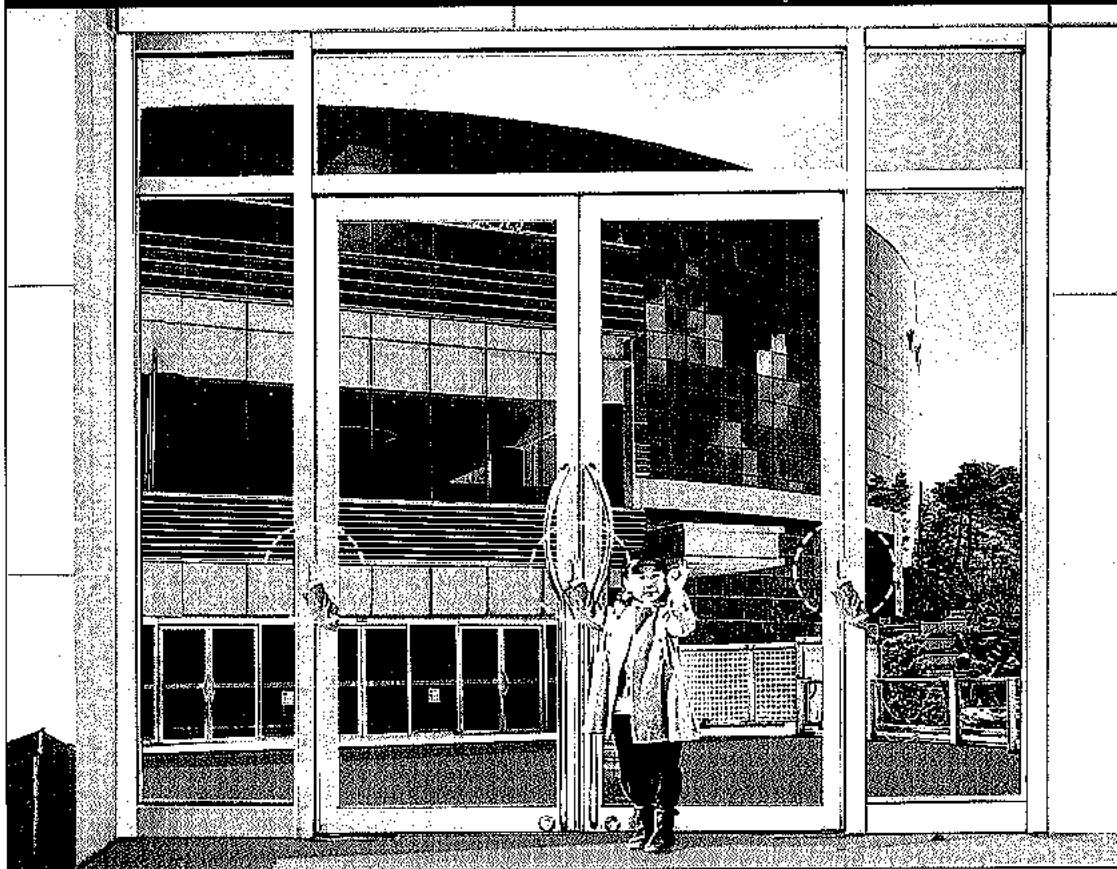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지점)

Tel _ 02-581-5711~4 Fax _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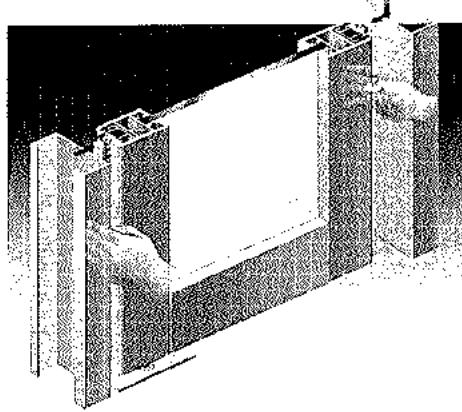


세이프 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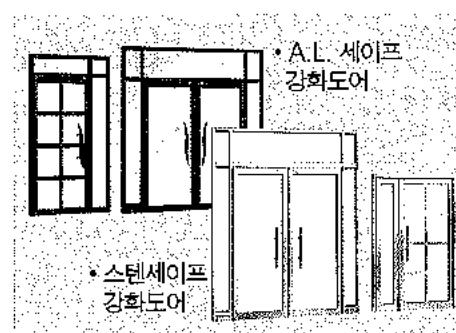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단면 상세도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송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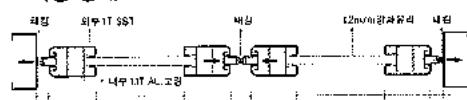


설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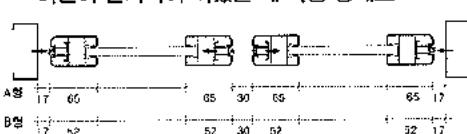
- 학교 • 관공서 • 종교건물 등
- 예식장 • 은행 • 아파트 • 빌딩
- 목욕탕 • 상가건물 • 유치원
- 백화점 • 병원 • 호텔 • 기타

평면 상세도 (홈페이지 설계 다운로드 참조)

A. 사용 상태도



B.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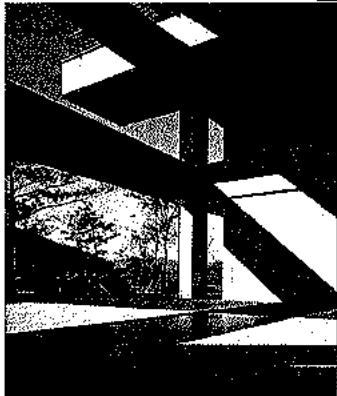
기존의 일반 강화도어는 안전사고 및
에너지 손실이 많아 단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물가 자료집에서 삭제되었음)

■ 단가표: 한국물가 자료집 416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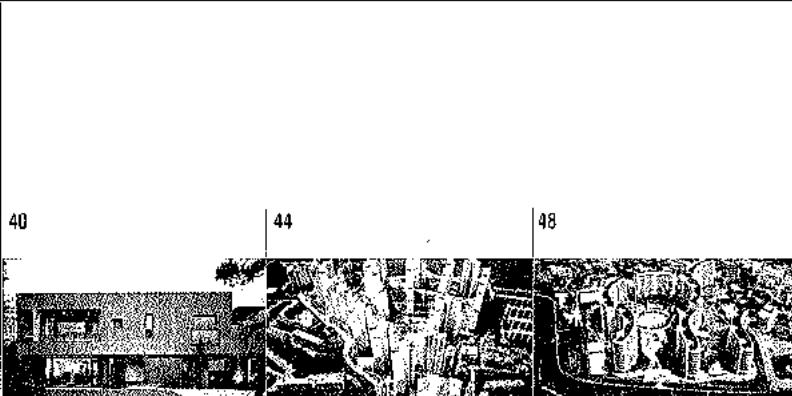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3년 11월호. 동판415호

차례 2003 11 415호



시몬느 사옥



40

44

48

컬럼	건축미래에 희망을	김무권	16
건축만평		유원재	19
특집 /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춘공건축물부문			21
대상 - 시몬느 사옥			34
본상 - 분당 C-11-4-12			40
광명 철산지구 주공아파트			44
춘천두미르 군인아파트			48
동부금융센터			52
매스매스에이지 사옥			56
포스코 역사관			60
입선 - 산빛마당 외			64
계획건축물부문 / 금상, 은상, 동상			93
연재	공간 클럽 - 06	이재훈	100
기고	K타워 V.E.	이창남	108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119
	해외잡지동향		123

발행인: 이세훈

편집기획: 김선양, 정양순, 김종복, 민승열, 박영순,
손기찬, 윤상기, 윤시덕, 이상림

취재·편집: 홍보편찬팀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 / 제이아트 (02)2269-7619

광고문의: 홍보편찬팀(이홍식 팀장)

**Column**

The Aspiration for the Future of Architecture	Kim Mu-Kwon	16
-----------------------------------------------	-------------	----

Cartoon	Yoo Won-Jai	19
---------	-------------	----

Special issue /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3

Prize Works - Professional Part	21
---------------------------------	----

Grand Prize	Simone Head Office	34
-------------	--------------------	----

Superior Prize	Bundang Residence	40
----------------	-------------------	----

Gwangmyeong Cheolsan Apartment	44
--------------------------------	----

Chuncheon Dumir Soldier's Apartment	48
-------------------------------------	----

Dongbu Financial Center	52
-------------------------	----

Studio Massmessage	56
--------------------	----

Posco Historic Museum	60
-----------------------	----

Winning Works	Sanvit Madang etc.	64
---------------	--------------------	----

Prize Works - The Submitted Part	93
----------------------------------	----

Serial

Space and Rooms	Lee Jae-Hoon	100
-----------------	--------------	-----

Feature

Value Engineering of K Tower	Lee Chang-Nam	108
------------------------------	---------------	-----

Architects' Plaza

Archi-Net	119
-----------	-----

Overseas Journal	123
------------------	-----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
Kim Jong-Bok, Min Seung-Ryeol,
Park Young-Soo, Son Ki-Chan,
Yoon Sang-Ki, Yoon Si-Deok, Lee Sang-Li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건축미래에 희망을

The Aspiration for the Future of Architecture

김무권 / (주)현대건축사사무소

by Kim Mu-Kwon

며칠전 대구에서는 지난 2월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중앙로지하철 운행이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그동안 참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온 나라가 부동산문제, 어려운 경제, 청년실업, 북핵, 이라크파병, 독일에서 귀국한 어느 교수의 이야기, 항상 되풀이되는 부정한 정치자금 등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그래도 필자는 이 가을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쾌적한 날씨뿐만 아니라 올해는 흉년이긴 하나 가을 들녘에서 추수하는 농부들의 모습에서 결실의 계절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각 대학마다 졸업작품전이 열리고 요즘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건축대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건축대전 등 연례적인 건축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다. 건축계뿐 아니라 미술,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얼마 전 어느 대학 졸업작품전 행사에 초대되어 특강을 한 일이 있었다. 학교에서의 딱딱한 수업보다 장소부터 자유로워진 분위기에 다소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었다. 지금도 나는 강의를 듣던 학생들의 표정을 생생이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죄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무더운 여름방학부터 밤잠을 세우며 작업해 온 작품을 생전 처음 남들한테 선보이는 전시회장에서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작은 것이나마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을 가진 그 눈망울 앞에서 지금의 건축 현실을 그대로 설명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하기 좋은 이야기만 했기 때문이다.

진정 그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터놓고 해줄 건축 미래는 없는가.

대학들이 경제원리에 의해 제도판과 P.C 몇 대로써 공간만 주어지면 정원을 채울 수 있는 학교운영에 경제적인 학과를 만들다 보니 건축과가 없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배출되는 것도 문제이긴 하다.

건축을 문화로서 여기지 않고 모든 건축을 건설로, 심지어 부동산으로 가치 판단하는 세태를 탓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사용자가 건축을 잘 이해하여 좋은 건축물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우리 건축사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설계업무를 일정한 상품 값 취급하듯이 무조건 입찰로 낮은 가격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도도 시정되어야 되겠다.

낮은 설계비는 외주비의 삭감, 건축설계의 질저하 원인으로 결국은 건축주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뿐 아니라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용도와 성격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설계 시공 일괄방식의 턴키제로 설계업체를 선정하게 함으로 대형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만이 일을 수주하게 하고, 그로인해 건축물의 질이 저하되고 설계자가 건설회사의 시녀노릇하며 중소설계사무소와 지방설계사무소는 일할 기회부터 박탈당하는 제도 또한 고쳐져야 한다.

특히 설계 시공 일괄방식은 설계자가 자기가 설계한 건축물의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설계자가 시공현장에서 배제되어 결국은 건축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지극히 모순된 제도로 언제까지 우리는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몇몇 대형건설업체가 중심이 되어 일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일 또한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건축제도가 바로 잡힌다면 실적이 없는 소형설계사무소의 젊은 건축사들이 턱없이 낮은 설계비를 받으며 부실설계와 감리로 일반인들의 지탄을 받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새건축사협회가 만들어져 하나가 되어야 할 우리가 둘로 갈라진 상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새건축사협회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뜻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기존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원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의 구심점이 될 건축사협회도 차제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비단 새건축사협회 뿐 아니라 이미 결성된 건축 3단체 협의회(FIKA)가 관련단체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을 수 있고 기득권에 대한 미련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함께 힘을 합쳐 세계수준과 동등한 건축 교육제도와 건축사제도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건축사에 대한 재교육, 교육인증원설립, 설계입찰방식에 대한 연구, 건축사인턴과정, 건축사 시험제도 등 모든 관련제도와 법령에 관해 연구하여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건축사 집단만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중국, 동남아 등 해외 건축설계 시장진출의 계기가 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

건축설계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상품은 없을 것이니 말이다.

이렇게하여 허물어진 건축계의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겠다. 어렵지만 후배들의 양성에 노력하여 건축의 맥을 잇자. 맥이 단절되면 시스템이 붕괴하기 때문이다. 미흡하지만 이제 건축사 용역대가기준도 정해졌다.

마침 2004년 전국 건축사대회를 개최키로 한다는 소식이다. 건축사대회를 개최한지 10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지방에서까지 수백대의 버스가 동원되는 집단 이기적인 대회가 유행처럼 있어 왔다. 그때마다 우리 건축사들은 좋아서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참고 묵묵히 일해 왔다.

이제 함께 모여 화합하고 단결하자. 단지 집단 이기적인 대회가 아니라 건축계 전반에 희망을 주고 회원들에게 사기를 높이는 대회가 되도록 하자.

이제 터무니없는 낮은 설계비로 제상을 깎는 덤픽도 그만하자.

일이 적으면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여 좋은 건축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신뢰구축을 하자. 대형 설계사무소와 시스템이 구축된 사무실은 건축계 전체를 위해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전통과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일의 수주와 설계비 덤픽을 하지말자.

젊은 건축사와 건축학도들에게 사기저하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축계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이제 곧 건축계에 첫발을 디딜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축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 이 글의 내용은 우리대학 건축학과 웹사이트에 올려져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3

한국건축문화大賞

수상작 전시회

전시기간: 11월 19일(수) ~ 11월 25일(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전시실

시상식

일시: 11월 19일(수) 15:00

장소: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3 •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 (주)서울경제신문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후원 /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주택협회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3

안길원 건축사(주.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설계하고 A&A건설(주)이 시공한 시문느 시목이 국내 준공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한 2003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영예의 대상(大賞)을 수상했다. 또 몰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는 광명 철산지구 주공아파트 등 6점이 본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입선작 등 모두 21개 작품이 수상작에 선정됐다.

의반 및 신인?학생 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잠향미, 한범주, 강용현(총역대 건축공학과)씨가 공동출품한 '영역, 경계 그리고 연계'가 금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은상 2팀, 동상 3팀 등 모두 28개 팀이 입상했다.

대상을 차지한 시문느 시목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공장기ae 위치한 연면적 8,250.25㎡, 건축면적 3,063.64㎡ 규모의 환경친화적 공간으로서 제조공장과 사무실의 역할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자연속의 연구소와 같은 건물이다. 특히 이 작품은 건축물에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고 내외부 공간 만들기에 실험을 기울인 건축사와 건축주의 건축과 환경에 대한 넓은 안목이 돋보이는 작품이란 평을 받았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는 준공건축물부문 90점, 계획건축물부문 263점 등 총 353개 작품이 응모했다.

한편 시상식은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으며, 대상 수상작의 설계자인 안길원 건축사에게는 대통령상, 시공자인 A&A건설(주)과 건축주인 ㈜시문느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됐다. 또한 광명철산지구 주공아파트 등 본상 6개 작품의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 등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준공건축물부문 입선작과 계획건축물부문 입상자 전원에게는 각각 대한한국건축사협회장상, 서울김제사장상이 수여됐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관련 5개단체가 후원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을 그동안 기성 건축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건축저변을 확대하는 등 우리 건축문화 활동에 기여해 해를 거듭할수록 건축인은 물론 일반 국민의 높은 참여 열기 속에 평실향부한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시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제정배경

-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은 문화」라는 대령 제 아래 건축의 대중화를 추구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기본취지로 지난 92년 건설부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제정한.
- 제3회(94) 행사부터는 지난 1971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단독 개최해오던 「한국건축 전」과 통합을 이뤄 민·관·언론이 공동 시행 주체가 되는 건축 분야의 대표적 전시·시상 행사로 발전.

목적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 건축계의 유능한 추진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 96년 제5회 때부터 본상이상 수상자중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을 수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건축상제도중 가장 권위있는 행사로 발돋움함.

역대 주요 수상작(준공건축물부문)

	대상	분상	우수상
제1회 (1992년)	한샘시화 공장	삼성종합연수원 창조관 호텔 형태의 분당시 밀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 연남동주택	-
제2회 (1993년)	현법재판소	국립부여박물관, 이화여대 공관 한동수출입, 부산서대신동주택	-
제3회 (1994년)	민정학원	아주대병원, 예닮교회 SBS총동 스튜디오 포이탈빌리	엑스포아파트 전쟁기념관
제4회 (1995년)	포스코센터	경화분당치병원 생豬주거권 사옥 홍천휴게소 팜파스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수원선경도서관 토월대동아파트 삼성동 현대빌리
제5회 (1996년)	대법원 청사	분당 주공아파트, 대평양파크빌라트 신내지구 9단지 아파트 수원이의동아파트, 진로클래스 공장 용문청소년수련원	-
제6회 (1997년)	LG화학 기술연구소	삼청동주택, 분당 집집주거 웨스턴조선호텔 빌리 코모루티워, 블루힐백화점 국민상명미래연수원	-
제7회 (1998년)	울산현대예술관	고려포리더 사옥 김옥길기념관 오크밸리 리조트 씨네플러스, 이태원 다가구주택 밴드미술관	-
제8회 (1999년)	(해당작 없음)	임신 컨트리클럽하우스 두산타워, 구산타워 국민외로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민대학교 국제교育관 부산 당감지구 주공아파트 임거당	-
제9회 (2000년)	교원그룹연수원 -케스트하우스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웰콤시티, 동아미디어센터 미제루, 영동군보건소 서미갤러리 기나만 교회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용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
제10회 (2001년)	의재미술관	수원시연회장 코리아디자인센터 부산아시아드 경기대회 선수·기자촌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기흥상갈 금화마을 원당성당 중부대학교 건원관	-
제11회 (200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원시연회장 코리아디자인센터 부산아시아드 경기대회 선수·기자촌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기흥상갈 금화마을 원당성당 중부대학교 건원관	-

역대 응모작 및 수상작 수

* ()숫자는 임상자수

부문	년도	1회('92)	2회('93)	3회('94)	4회('95)	5회('96)	6회('97)
준공건축물부문	99점(18)	40점(18)	81점(28)	76점(24)	75점(33)	63점(22)	
계획건축물부문	-	-	15점(10)	16점(9)	236점(45)	304점(36)	
학생부문	-	-	127점(29)	179점(38)			
부문	년도	7회('98)	8회('99)	9회('00)	10회('01)	11회('02)	
준공건축물부문	72점(22)	52점(25)	62점(26)	78점(24)	67점(20)		
계획건축물부문	322점(30)	-	26점(13)	123점(33)	128점(25)		

준공부분 | 대상



준공부분 | 본상



시른느 사옥



분당 C-11-4-12



광명 철산지구 주공아파트

춘천두미르 군인아파트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6. 1 ~ 8. 31
- 접수 : 9. 1 ~ 9. 2
- 심사 : 9. 24 (1차 사진첨심사)
9. 27~9. 28 (2차 현장심사 - 수도권)
10. 3~10. 4 (2차 현장심사 - 지방)
10. 9 (최종심사)
- 발표 : 11. 17 (개별통보)
11. 17 (서울경제신문 발표)
- 시상식 : 11. 19 / 장소: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 수상작 전시 : 11. 19 ~ 11. 26 /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제1전시실
- 해외건축팀방 : 12. 15 ~ 12. 20
- 작품집 발간 : 12월중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2001년 8월이후 준공된 국내건축물
- 출품자 자격 : 응모건축물의 설계자(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 나. 주요 출품규정
- 출품자의 응모편의를 위해 건축물사진(8" × 10" 규격, 10매 내외), 건축개요, 작품설명, 건축사·시공자·건축주 소개서, 건축물대장 등이 수록된 사진첩 2부 제출
- 1차 사진첨심사 통과작품에 한해 추후 패널제출

심사

가. 심사위원회 구성

- 각 주최기관에서 추천한 전문자를 대상으로 시행

시상내용

· 준공건축물부문

상명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비고
대상(1점)	대통령상 트로피 해외건축팀방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외건축팀방	국무총리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본상(6점)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팀방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팀방	대한건축사협회장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입선(다수)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서울경제신문사장상	서울경제신문사장상		
공로상		트로피			건축문화발전에 공이 큰 개인 및 단체

위원회에서 공모부문별 각 7인의 심사위원 선정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

나. 심사방법

- 1차심사 (사진첨심사) : 현장심사 대상작 선정
- 2차심사 (현장심사) : 입상작(대상·본상·입선) 선정

다. 심사위원

김진균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심사위원장)

김영덕 / (주)에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송수구 / 건축사사무소 한송 대표

여영호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상진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인호 / (주)아래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무웅 /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수상자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 대상 (설계자: 대통령상, 시공자·건축주: 국무총리상)

- 시몬느 사옥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안길원 / A&A건설(주) / (주)시몬느

- 본상 (설계자·시공자: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주: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분당 C-11-4-12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이성관 / (주)미래건설 / (주)건영

• 광명 철산지구 주공아파트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두호 / 삼익건설주식회사

사 / 대한주택공사

• 춘천두미르 군민아파트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한남수 / 두산건설주식회사 / 국방부

• 동부금융센터 / (주)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기범 / 동부건설주식회사 / 동부건설주식회사

• 맘스메스에이지 사옥 / 위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용근 / (주)위드건설산업 / (주)맘스메스에이지

• 포스코 역사관 / (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광만 / (주)포스코건설 / (주)포스코

■ 입선 (설계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시공자·건축주: 서울경제신문사장상)

• 산빛 마당 / (주)인·토 종합건축사사무소 방철린 / 김한중 / 김한중

• 타워팰리스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창수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삼성전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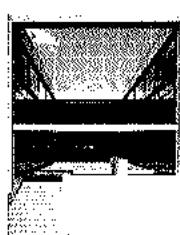
• 양광찬란 / (주)건축환경그룹건축사사무소 이영수 / 리정테크건설주식회사 / 원국동

• 코오롱 R&F빌라 / 종합건축사사무소 수목 A&A(주) 한철 / 코오롱건설(주) / 코오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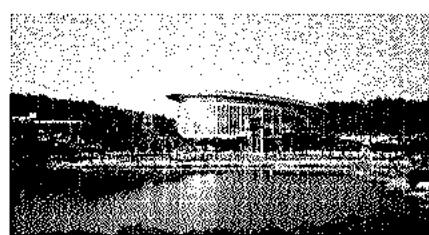
준공부분 | 입선



동부금융센터



대스메스에이자 시옥



포스코 역사관



산빛 다당

건설(주)

- 공군회관 / (주)원양건축사사무소 이종찬 / 두산건설주식회사 / 공군본부
- 노원 어린이 도서관 / (주)도연건축사사무소 이대형 / 대원산업(주) / 노원구청
- 포스틸타워 / (주)포스에이씨종합김리건축사 사무소 심성보 / (주)포스코건설 / (주)포스틸
- 서울시민안전체험관 / (주)공간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상림 / 현대산업개발(주) / 서울특별시
- 교보생명(주) 서초사옥 / (주)창조종합건축사 사무소 김홍철 / (주)대우건설 / 교보생명 보험(주)
- 경기대학교 원격화상회의센터 / (주)창조종합건축사 사무소 김홍철 / (주)금강주택 / 학교법인 경기학원
- 일산 라페스타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윤세한 / 벽신건설(주) / (주)청원건설
- 경산교회 / 미래건축 건축사사무소 배춘호 / 주식회사 신우종합건설 / (재)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 대구학생문화센터 / (주)월도시건축건축사 사무소 변용 / (주)남양건설 / 대구광역시교육감
- 거제문화예술회관 / (주)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장석웅 / (주)한진종공업 / 경남 거제시

■ 공로상 : 前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정훈'

심사결과 보고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면서 한국건축문화의 창달과 발전에 기여하는 큰 업적을 낸기고 있으며, 계속된 경기침체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과 협력으로 건축문화 발전과 인간 중심적인 주위 환경이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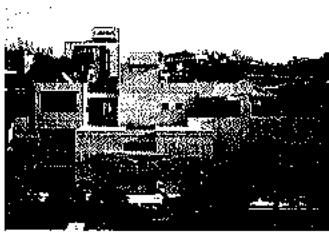
적 조화에 잘 맞추어져 건축문화 창작 의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구자적 업적을 남기고 있다. 12회째를 맞이하는 올해의 건축문화대상은 예년에 비하여 많은 출품작 수를 기록하였다. 건축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끊이지 않는 창작의욕으로 정성과 열의를 다하는 훌륭한 건축사들과 건축주, 시공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는 그 미래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심사 역시 예년과 같이 작품성과 창의성, 친환경적 구현과 공공성 그리고 건축관계자들의 열의와 시대적 소명감 등을 심사기준으로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심사방법을 정하였다. 우선 3차의 예비심사를 거쳐 주거부문 9작품, 비주거 16작품 등 총 25작품을 현장실사대상작으로 결정하였고, 사전집 심사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두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4일간에 걸친 강행군으로 현장심사대상작 25작품을 모두 방문하여 심사한 결과 몇몇 작품들에서 사전과 실물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작품 하나하나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대상 1점과 본상 6점, 입선 14점 등 총 21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모두 훌륭한 작품들인데 이 중에서 소수의 작품만을 선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작품들에서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디롭으로써 나타나는 시공디테일의 미숙, 디자인 의도의 둘이해로 인한 오류 등에 대한 속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현상설계기로 건축사를 선정한 후 저렴한 건설비용으로 무리하게 계획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설계와 시공의 부실한 애도 있었다. 건축주, 시공자 및 설계자의 불협화음이 건축물을 해치는 예도 발견되어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다. 한편, 대상으로 선정된 시민노사옥은 건축주, 시공자 및 설계자의 협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특히 고용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한 건축주의 의지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주변

의 열악한 공장가의 환경에도 끝까지 디테일을 연구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설계자와 완벽한 공사로 마무리한 시공자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금년에도 역시 힘든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대한 강한 집념과 열성적 강행군으로 심사에 임하여 준 것에 대해 높은 경의를 표하며, 해가 갈수록 건축사와 시공사의 무한한 노력, 특히 건축주의 건축물과 작품에 대한 기대와 의욕·자부심이 점점 많아짐을 느낄 수 있어 우리 건축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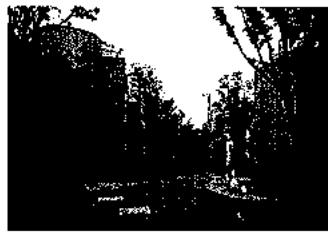
또한 계획건축을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에 비하여 2배나 많은 263작품이 출품되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대한 높은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먼저, 작품을 심사함에 앞서 주어진 공모주제인 「도시의 틀」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해석과 이해를 같이하기 위하여 주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여기서 심사 방향으로는 먼저 장소의 주변액학과 질 조화되어 역동성을 갖는 작품, 그리고 장소의 감각을 실질적으로 되찾은 작품 등을 선정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된 패널 및 모형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여 2차 심사대상작을 선정하고, 다시 수차례의 심사를 통하여 2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8점의 수상작중 최종심사를 통하여 6점을 선정, 선정된 작품 하나하나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중 개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의 버려진 디자인을 탐색하여 이웃과 연결되는 길을 트고 주민을 위한 공간과 마당을 설치하여 아메니티를 소생시키려는 참신한 계획으로, 이웃과 연결시킨 아름다운 곡선의 길과 트고 밀으로 전개되는 테라스형의 극면형 마당 그리고 마당과 연속되는 공용공간이 잘 어울려 형태적 미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로 조화된 음악적 흐름을 들려주는 듯한 감성적 작품으로 평가받은 「영역, 경계 그리고 연계」를 금상으



티워팰리스1



양당친린



코오롱 R&F빌라



공군회관



노원 어린이 도서관

로 선정하였다. 계획부문에 출품한 작품들을 심사하면서 출품작들 모두 그 자체로 수준이 높고 표현과 모델이 출중하였으므로, 몇 번의 심사과정에서 주제와 작품과의 연관성, 작품의 순수성과 성실성, 작품의 비전과 현실인자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엄선하였다. 이들 출품한 작품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점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지나친 표현 위주의 계획보다는 기능과 공간구성을 잘 조화시켜 실제 만들어지는 건축물을 계획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허연이나, 전자적으로 향상된 작품수준과 고민의 흔적을 볼 때 우리 건축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김진균 / 준공부문 심사위원장)

심사 총평

- (주)시몬느 사옥 : 출품작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시몬느 사옥은 업무, 연구 및 공장의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안양천에 인접하여 형성된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인 요소들을 도입하여 낙후된 주변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무자들의 업무조건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쾌적한 외부환경과 브리지, 옥외 테라스 그리고 건물 내부의 아트리움과 균무공간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 배치된 발코니 정원들이 긴장을 풀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시몬느 사옥은 건물외관의 장식적인 요소들을 일체 배제하고 건물의 내용물에 충실하였으며, 내외부 공간 만들기에 실력을 기울인 건물로 평가된다. 시설배치는 기능별, 사용자별로 업격히 구분시키고 각각의 시설들은 브리지, 아트리움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독립적인 시설들이 사실상 상호 개방되어 있다.

건물은 조형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선이 깊은 형태인데, 건물전면의 창고 및 회의실을 둘러싸고 있는 코르텐 판넬 미감이 전체 건물의 일부분이지만 색채와 형태, 질감, 규모에 있어서 본 건물의 외장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쉽다. 그럼에도 (주)시몬느 사옥은 무엇보다도건축사와 건축주의 건축과 환경에 대한 넓은 애목이 엿보이고 교외에 위치한 모범적 사옥의 새로운 전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마스 메스에이지 사옥 : 강남의 이면도로에 면한 대지들이 흰창 고급빌라,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틈새에 절제된 외관의 건축물이 오히려 개성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단순한 건물 형태와 단일 재료의 사용으로 건물의 성격이 대담하게 느껴지고 절제된 디테일 때문에 주변건물을 과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로에 면한 외벽은 폐쇄적인 반면, 중정에 면한 외벽은 내부의 골조가 보일 정도로 개방적이다. 건물의 외형이 주변의 건물들과는 달리 매우 이채롭지만 특징 없이 널려 있는 빌리들만 접해왔던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임에 틀림없다. 강남에 세워지고 있는 건물들이 통상 최대의 부기기치 창출을 염두에 두지만 본 사옥은 상업성과는 거리가 멀다. 대지의 크기로 볼 때 적절한 건물의 규모와 열린 공간 설정은 사용자와 환경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결과로 보인다. 개방된 중정은 쾌적한 휴식공간이자 동시에 중정에 면한 사무공간에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각적인 편안함을 제공한다. 남측 도로에 면한 중정의 일부 열린 공간은 개방적이지만 동측 주도로상에 면한 벽면은 너무 폐쇄적이어서 건물전체가 다소 무겁게 느껴진다.

- 포스코역사관 : 포스코역사관은 기업의 홍보

를 위한 건물로서 설계담당자들의 열정이 열보이고 성취도가 높게 보여지는 건물이다. 이름답게 설계된 전시관은 전반적으로 디자인 개념이 명쾌하고, 유리와 금속성의 미감재료로 만들어진 치밀한 디테일과 우수한 시공성으로 형태 구현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이테크한 디자인으로서 건물외피의 더블스킨 유리벽 사용과 신선하고 첨단화된 건물 내외장재 도입은 방문자들에게 경이로움과 함께 일반건축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장래 전시관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설계의도로 전시관 내부가 무주공간에 2개층 높이로 열려있다. 그러나 구형의 영상관과 전시관의 중심에 위치한 EV, 계단, 안내공간 등의 고정시설 때문에 전시관을 가변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 같다. 옥외공간 활용은 적절한 반면, 진입 캐노피는 전시관의 규모에 비하여 조금은 과장되고 디테일은 장식화되었다.

- 대구학생문화센터 : 건축적 공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가치인식을 충분히 반영한 건물로서 이 센터는 새로운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대지중심의 남북축에 설정된 옥외공연장은 이벤트 장으로서 단지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공간이다. 큰 규모의 대지 내에 공공을 위한 열린 마당을 확보하고 있고 단지 전체가 개방적 형태를 취하고 있어 옥외시설들은 물론, 건물 내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건물 전후면의 개방공간과 건물 중심을 가로지르는 +자 형태의 내외부 열린 공간은 건물의 공간개념을 명쾌하게 해주고 있다. 많은 시설들을 하나의 거대한 곡면지붕으로 덮은 결과 조형적인 통합성보다는 경직되고 단조로운 건물이 되었다. 특히 설계와 감리



포스콤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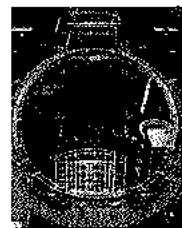
서울시민안전 체험관



포스코(주) 서초사옥



경기내학교 원격화상회의센터



일산 리페스타



경산교회

가 분리 시행되어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결국 설계의도 반영의 미흡과 시공 결과에 대한 불만을 초래했다.

• 서울시민안전체험관 : 어린이대공원에 인접하여 건설된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은 체험교육의 장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공공커뮤니티로서의 역할로 휴식공간 및 도심 속에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단순하지만 교육의 주대상자인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임을 배려한 듯 다채로운 건축모소의 도입과 적절한 원색조합으로 조형적인 완성도가 높은 건물이다. 건물의 규모에 비하여 충분한 전면공지가 확보되어있고 조경이 잘 되어 있으나 울타리가 둘러쳐 있어 일반인의 광장 이용이 제한되는 아쉬움이 있다. 역동적 형태의 원뿔형 아트리움 공간은 투명성이 강조된 형태로서 도시의 가로에 변화를 주고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험시설 및 전시시설들의 종류가 많은 관계로 단체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공간과 이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였다. 또한 협시설에 맞추어진 건물의 고정된 형태에 의하여 이미 협소해 보이는 체험관이 향후 변형, 확장 등을 위한 공간의 기반설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 경산교회 : 작은 지방도시 속에 교회건축이 내포하는 도시적 맥락과 연관성을 잘 고려한 건축이라고 생각한다. 유서깊은 기존 예배당은 보존되었고, 작지만 흡인력 있는 예배당 전면광장은 변형되지 않아 옛 교회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좁은 대지 내에 간결한 조형어휘로 설계한 교회는 모든 시설들이 컴팩트해 보이고, 특히 노출 콘크리트와 추상적인 기구부로 마감된 외벽은 투박하고 장식이 없는 기존 예배당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물 곳곳에서 건축가의 섭세

한 디자인 감각이 느껴지는데, 특히 빛에 의한 공간의 변화를 고려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작은 규모의 건물 내에 상당한 비단면적을 점유하는 경사램프를 설치한 반면, 전총의 흘과 복도는 다소 좋게 느껴졌다. 공사비의 제약과 지역의 시공 역량을 감안하면 건물의 완성도는 기대이상이다.

• 노원 어린이도서관 : 불암산이 멀리 보이며 환경적으로 우수한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는 이 어린이 도서관에 인접한 공원은 녹지와 전면미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물의 형태와 시설들의 규모는 어린이 시설로서 적절하고 다채로운 커리와 다양한 장식적 요소들이 조형적으로는 다소 훈란스럽지만 이 조형적 개념은 어린이 정서를 배려한 건축가의 디자인 의지로 보여진다. 도서관의 남측 공원에 면한 지하진입부에는 녹지 및 계단으로 만들어진 썬큰이 있고, 이 썬큰 정원은 놀이방 전면에 있다. 차광과 환기가 적절한 지하 놀이방은 건물전체 시설 중 가장 아늑한 공간이 되었다. 전 건물의 내부공간은 밝게 처리되었으며 층별로 배치한 옥외 테라스가 휴식 및 옥외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협소한 공동공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 동부금융사옥 : 강남의 업무 중심지구인 테헤란로에 신재되어 있는 고층빌딩의 이미지를 새롭게 주목시킨 건축물이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포스탈 사옥과 대비되는 작품으로서, 거대한 마스의 분장을 통한 독특한 외형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충격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 고층건축물이 가지는 규모적인 단조로움을 피하며 저층부의 기둥면에서 친근감 있게 고려한 스케일감과 형태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정리된 내부의 공간 활용 능력이 특징적이었다.

• 교보빌딩 : 건축이 오브제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기능체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가?라는 두 개의 고민을 확인해 대립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빌딩은 고층 사무소 건축물로서 이와 같은 스타일이 강남이라는 도시환경과 업무 기능에 있어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개의 타워에 의해 나뉘난 비효율적인 코어의 분리, 연결통로, 모호한 정면성 그리고 의도적인 폐쇄 등에도 불구하고 오브제로서의 건축 특성과 커튼월의 세련된 시공성이 여전히 돋보이는 작품이다.

• 포스탈사옥 : 동부금융사옥처럼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하며 고층 사무소건축물이 기질 수 있는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다만 건물 내부에서 한쪽으로 비켜선 코어는 그리 크지 않은 내부평면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치된 듯 지나치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여 형태에서 오는 감동을 건물 내부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보행자 레벨에서 높이 개방시킨 주 출입구 부분은 밀집된 도시 내에서 드물게 맛 볼 수 있는 시원한 공간이었다.

• 일산 리페스타 :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일산 신도시에 시도된 복합 상업공간으로서 보행자를 고려한 테마형 놀이공간과 문화공간이 함께 하는 기획 쇼핑몰이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 상업화되고 획일화된 메마른 도시 쇼핑공간에 새로운 건축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쇼핑몰이 이루어내는 내부공간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문화공간으로서의 궁정적인 효과가 외부로 연계되지 못하고 내향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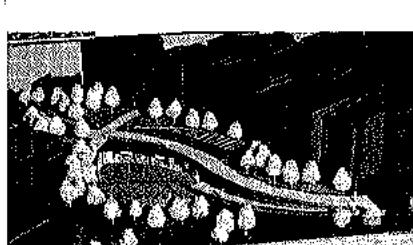


대구학생문화센터



거제문화예술회관

계획부분 | 금상



영역, 경계 그리고 연계

계획부분 | 은상



A Media of Afterimage Frame

공간이 되었다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다.

• 공군회관 : 독립된 군 관련 시설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회관의 성격으로 설계경기에서 당선된 작품이다. 배치 모형도에서 보여주는 속소동과 예식, 연회동의 평면 형태는 공군의 상징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 건축물 지붕 형태와 같은 상징적 기조를 이루면서 전면에 반복 나열된 갈매기 모양의 예매한 기둥들 중 하나가 주 출입구 부분에서 잘려 나감으로서 하늘 위에서 보이는 건축적 명료함이 시라져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소동과 분리되어 배치된 연회동 공간의 기변성과 활용성을 들통보이는 작품이다.

• 경기대학교 원격화상회의센터 : 비상하는 듯한 지붕선 그리고 활주로처럼 지붕으로 길게 치솟는 외부 경사로 등을 오히려 공군회관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러 개의 분절된 지붕 매스에 의하여 지나친 외형 지향적으로 드러나며 이와 연계된 듯한 내부는 외부 형태에서 보여주는 상징적 기능과는 아무 상관없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하여 로비에서 마주치는 계단과 복도, 난간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에서 이루어진 디테일들이 오히려 번잡스럽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건축설계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해 보고 싶을 정도의 파격적이고 역동적인 형태의 재미나고 흥미로운 작품이다.

• 거제문화예술회관 : 설계경기에 당선된 작품으로서 거제도의 장승포구를 아우르는 산자락 한켠에 위용을 드러내는 거대한 건축물이다. 포구 쪽에서 보여지는 아래 두개 층으로 수평 띠처럼 길게 늘어선 보행공간과 대비를 이루는 공연장의 스테인레스 스틸외벽은 바람에 부풀려진 듯대 형상으로 반복되어 주변의 스케일을 다양하게 수용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오랜 세월 이후 어진 포구의 삶과 역사를 포용하기에는 너무 획일적으로 처리된 외관과 부분 부분 노출되는 시공상의 미숙함이 아쉬움으로 남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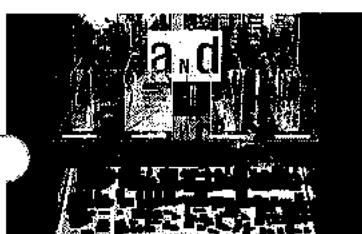
• 광명 철산지구 주공아파트 : 경사지에 면한 대지에 친환경적인 고밀도 공동주택의 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단지의 뒷배경이 되는 작은 산자락으로 이어지는 녹색 조망과 철산시 방향의 열린 조망을 몇몇 세대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외부공간에서 공유하도록 계획함으로써 21세기의 공동주거 모델이 목표로 하는 친환경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이루어내고 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270%의 높은 용적률은 사업주 측을 위한 전제조건이었겠으나 배치공간의 여유로움을 엿아갔다고 할 수 있으며 답답하게 느껴지는 공간도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사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지하로 구성하고 중앙광장을 포함하여 여기저기에 레벨 차이를 이용하여 마련된 친환경적인 외부공간은 대지의 컨텍스트(context)를 잘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은 설계자의 혁명함이 들통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서민아파트로서의 공사비 한계는 공사관리의 어려움을 예측하게 하며 좀 더 나은 디테일의 처리와 완숙한 시공성은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된다.

• 타워팰리스 1 : 고부가가치를 기대하는 도심 속의 주상복합시설로서 새로운 주거문화의 한 장을 열었음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탑상형의 고층아파트 둑들과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공간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런 조경요소들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표상하고 있다. 또한 호텔형의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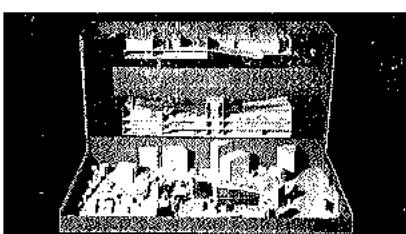
비와 리운지, 그리고 저층부의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과 보안시설들은 주거기능을 돋고 있고 고급주거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왼벽에 가까운 시공성과 시스템의 배려는 건축주 즉, 시행자의 의지와 시공자, 그리고 설계자가 함으로 이루어 낸 것으로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대한 불량한 이미지를 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도 보안상의 고려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배치계획상 양재천의 자연환경적 오소와 너무 단절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이는 서초구 전체의 지역적 특성을 거부하는 듯한 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고급주거가 가질 수밖에 없는 공공성의 결여, 타 계층에 대한 폐쇄성 등에 대한 건축적 해결책 역시 앞으로의 숙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기대된다.

• 분당 C-11-4-12 : 도심 속에 위치한 크지 않은 대지의 고급주택으로 작가의 정성과 노력이 두드러진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대지 주변은 모두 유사한 크기의 주택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컨텍스트(context)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지상의 특징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대지 내에 그 실마리를 던져 놓고 스스로 풀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그 대상은 바로 중앙에 위치한 작은 연못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공간의 유기적인 배치, 개방, 전이 및 분절 등 다양한 건축적 언어를 실현시키고 있다.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디테일에 대한 작가의 열정은 오히려 공간이나 형태의 건축적 제스처(gesture)를 무색케 하고 있다. 물론 대지의 협소함은 외부공간의 풍요로움이나 환경적 여건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인접한 대지와의 간격을 위하여 형성된 가벽의 설정이 조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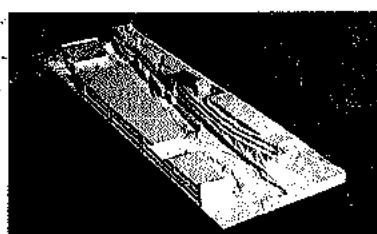
계획부분 | 통상



... and ... (타워팰리스 1, 활성화계획)



조계시 한국불교역사 전시관



ON-OFF LINE ELECTRONIC MALL



동류의 거리 '전통주점거리'

인위적으로, 그리고 무리하게 느껴진다.

• 양광찬란 : 고급주택가 한 가운데에 위치한 대지위에 거친 노출콘크리트가 건물 전체의 주조를 이루는 작품이다. '양광찬란'이라는 작품의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난을 사랑하는 건축주에게 작가는 난의 단순하고도 은근함을 작품을 통해 선사하고 싶었던 것 같다. 마치 갤러리와도 같은 다양한 공간의 연출은 내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무리없이 조화를 이룬다. 그 사이사이에 걸려 있는 난 그림들은 오히려 공간을 압도하며 약간은 산만해진 공간들의 방향성을 주도한다. 그러나 거대한 노출콘크리트의 외관면적은 맨 전체를 너무 무겁게 만들고 경직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적절한 재료의 혼합과 표피의 분절은 난의 균하고도 풍요로운 향기가 이루어내는 자연스러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코오롱 R&F 빌라 : 도심에 위치한 일단의 주택지에 저밀도의 빌리를 계획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도심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잘 정돈된 외부공간과 조경은 도심 속에 새로운 자연환경의 조성이라는 소거의 목적을 달성한 듯 보인다. 또한 외부에 표현되는 형태적인 분절과 건축디테일, 그리고 현대적인 재료와 색조의 연출 등 잘 정리된 고급빌라의 상업적 가치를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시행자 및 시공자가 기울인 공사의 완성도, 그리고 설계자의 재치는 지나친 건축언어의 구사에 파묻혀 버린 듯 하다. 물론 고급주택단지로서 누려야 할 보안성의 확득은 주변으로부터 폐쇄된 느낌을 불가피하게 갖게 하며, 높은 담장과 대문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이 또한 이러한 고급주택단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된다.

계획건축물부문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6. 1 ~ 8. 31
- 접수 : 10. 7
- 심사 : 10. 10(페널 및 모형 심사)
- 발표 : 11. 17 (개별통보), 11. 17 (서울경 제신문 발표)
- 시상식 : 11. 19 / 장소: 세종문화회관 캔버선홀
- 수상작 전시 : 11. 19 ~ 11. 25 /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제1전시실
- 작품집 발간 : 12월중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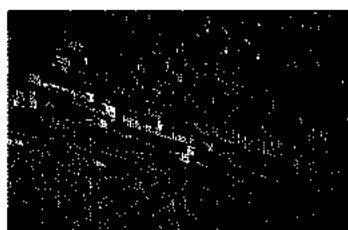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작품
- 작품주제 : "도시의 틀"
- 각 지방도시들의 지역성에 맞는 실제장소를 선정
- 도시, 건축, 조경, 실내외환경디자인 등 제분야에서 계획
- 주제설명 : 역사가 진행하는 한, 그리고 역사가 도시를 필요로 하는 한, 도시는 계속 변모해간다. 오직 유적으로서만 정지된 상태의 도시가 존재할 뿐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겼거나 의식적인 계획에 의해 아득된 신도시이거나 간에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의 행동과 사고가 도시를 계속 변모시켜 나아간다. 그럼에도 도시는 표준화된 원리로 편제되어 근대도시체계는 전통적인 장소성의 고유한 맥락들을 해체하면서, 공간을 균질화시켜 그와 함께 삶의 다양한 양역들을 분해하여 대규모로 집적시켜 재배치하는 기능주의적 계획이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이 도시의 기능은 생산력의 극대화를 위주로 편성되고 반면 개개인의 삶은

개별화되고 이질화되어, 이분법적으로 경계지음으로서 그 중간을 매개하는 도시공동사회는 지극히 왜소해졌다. 즉 개별적인 차원에서 추구되는 편리, 효율, 힘리성이 한없이 축적되어 결국 전체의 차원에서는 불편, 비효율, 불협화성을 빚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개체의 대상 자체의 조형적 완결성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맥락 전체를 이루면서 계획의 목적은 해석하고 사용자의 삶도 시야에 넣으면서 그것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디자인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도시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예워쓰는 모든 건물, 도로, 광장, 표지, 수목… 그리고 그 위와 옆에서 일어나는 온갖 활동과 사건이 구체적인 도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고, 자신을 보다 큰 도시 전체의 모습에 위치 지울 수 있음으로서, 도시의 틀은 발견되고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틀이라 할은 개별 주체가 기억하고 움직이는 대안적 노선에 따라 지도를 그리고 또 다시 그려낼 수 있는 분명한 양상을 구성하거나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장소의 감각을 실질적으로 되찾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도시 삶의 필연적인 결과라면 삶의 정직한 표현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태도 - 그것은 주위 환경을 다시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정보나 모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혈흔하는 거리의 현장에서 궁정적 가치를 찾아내어 체험의 대상으로서의 도시의 틀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개체로서의 차별화로부터 등질성으로서의 맥락만 주어진다면, 그것을 읽어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도시 한 조직에서 우리는 공정적인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서들)

- | | |
|----------|-------------|
| 도시와 건축 | 개체와 전체 |
| 상업성과 공공성 |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 |
| 내부와 외부 | 인공과 자연 |

계획부분 |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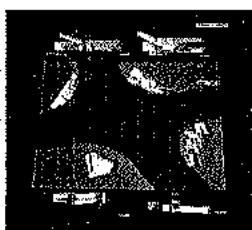
성북한과 남으로의 여정



동학기념관 계획안



Urban Totem-시길의등



Stay · I · Pass



핀계

전통과 현대 단절과 소통

평면과 입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 출품자 자격 :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 및 건축관련

학과 대학원생(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나. 주요 출품규정

- 패널(가로90cm×세로180cm 이내) 1매 및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모형(가로×세로 규격이 90cm×세로75 또는 75cm×90cm, 높이 75cm 이내) 1점 제출

- 공동작품의 경우 출품인원을 3인 이내로 제한함

심사

가. 심사위원회 구성

- 각 주최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위원회에서 공모부문별 각 7인의 심사위원 선정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

나. 심사방법

.. 패널 및 모형 심사

다. 심사위원

권태문 / 인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심사위원장)

김선양 / (주)한종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재승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손기찬 / 건축사사무소 동이대표

유원재 / 건축사사무소 디건축대표

이영수 / (주)건축환경그룹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대표

시상내용

- 금상 (1점)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은상 (2점) : 각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동상 (3점) : 각 상금 100만원 및 상장

- 입선 (다수) : 각 상금 20만원 및 상장

* 동상이상 수상자(대학 재학생에 한함)중 영어 인터뷰심사를 거쳐 2명을 선발, ARCAST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

수상자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順)

■ 금상

· 영역, 경계 그리고 연계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장향미,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한범주,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용현

■ 은상

· A Media of Afterimage Frame / 부경대학교 건축공학부 이성태, 부경대학교 건축공학부 이창배, 부경대학교 건축공학부 박지현
· ... and ... (테헤란로거리 활성화계획) / 건축사사무소 길건축 정길호, 중앙대학교 건축학과졸업 장대정

■ 동상

· 조계사 한국불교역사 전시관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원홍재,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교육과 유병철,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교육과 김정훈
· ON-OFF LINE ELECTRONIC MALL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영주
· 풍류의 거리 “전통주점거리”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정성은

■ 입선

성벽안과 밖으로의 여행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유립
· 동학기념관 계획안 /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김주원,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손수정,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신수미
· Urban Totem - 시간의 틈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김남환,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선주옹,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염광호

· Stay+Pass / 한경대학교 건축학부 이은정, 한경대학교 건축학부 박수동, 한경대학교 건축학부 유인숙

· 관계 / 남서울대학교 건축과 권혁천, 남서울대학교 건축과 김소희, 남서울대학교 건축과 고혜경

· INVERSE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주혁,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정선

·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세준,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안선호,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배수지

· Easy Contact Easy Approach / 부경대학교 건축공학부 임유진

· 동대문운동장 가로변 계획안 /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정웅

· Insert of ‘...’ / 부경대학교 건축공학부 김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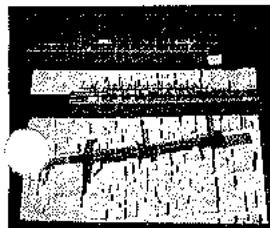
· Breaking Blocks / 부경대학교 건축공학부 김영삼

· 공원(公原)에서 공원(公園)으로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지호,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안영웅,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보건

· 나도 일하고 싶다(중림동 노숙자 이용시설 계획안)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경화,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박현숙, 경기대학교 건축학과졸업 변승용

· 현재로서 존재하는 과거(과거의 흔적을 이용한 근·현대사 박물관 계획안) / 동명정보대학교 건축학과 박남일, 동명정보대학교 건축학과 김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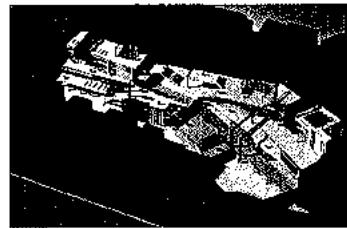
· 수자원 역사박물관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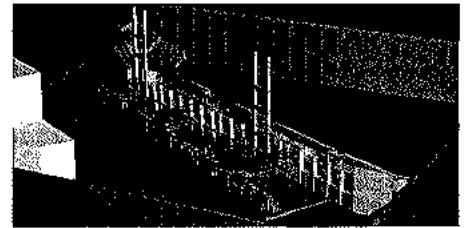
Inverse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



Easy Contact Easy Approach



동대문운동장 가로변 계획안

박성수

- Continuity of History Castle / 선문대학
교 건축학과 천희성
- 놀이터로 간 갤러리 / 동명정보대학교 건축
학과 신영희
- 기계속의 정원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
학원 김지운,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이해숙,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정희
- 궁중복식 전시관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이웅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백준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소성희
- Tug From Four Facade / 전주대학교 건
축토목도시공학부 이대우
- 정독도서관 리노베이션 / 서울시립대학교 건
축학과 오홍석,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민
현진, (주)해안건축사사무소 권이철
- 신화의 뒤편 : 보이드 사이의 '틈' / 인하대
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하경우,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성주애, 인하대학교 건축
공학과 대학원 이윤희

심사평

권태문 / 인천대 건축학과 교수, 심사위원장
2003년도 한국 건축문화 대상의 계획건축부문은
응모 작품이 전국에서 고르게 출품되었으며, 작품
수도 263점이나 되었다. 그리고 작품의 수준도 출
판하여 이 공모전이 우리나라 건축전 중에서 비
중 있는 공모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
국 건축문화 대상의 계획건축부문 응모작은 작품
의 질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철학자 E. 카시러는
저서 「인간론 an essay on man」에서 「인간은
상징적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인간문화는 인간활
동의 소산이며, 인간의 상징적 기능의 소산이라고
시유하였다. 이 상징주의는 추상을 높이평가하고,

진취하려는 문화라는 귀중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
었다. 인간 문화 건설이라는 포괄적 의미에서 한국
건축문화 대상의 응모작품은 진취적이며 추상적
이고 이상을 목표로 하며 상징적 이하는 인간의 본
질을 근거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금년 계획
건축부문의 주제는 「도시의 틈」이었다. 「틈」이란
사전적 의미로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 간주(間
奏), 거를, 기회 등을 일컫는다. 그래서 도시의
틈이란 건물과 건물의 사이공간, 건물과 도로의 사
이공간 그리고 도시의 open space로 남겨져있는
공간 등 생활공간의 의미를 수용할 수 있는 장(場)
을 말한다. 특히 이 장을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새
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생성되는
기회를 갖는 건축화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작품심사에 앞서 심사위원들의 「도시의 틈」에
대한 해석에 이해를 같이하기 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여기서 심사 방향으로는 먼저 장소의
주변맥락과 잘 조화되어 역동성을 갖는 작품,
그리고 장소의 감각을 실질적으로 되찾은 작품
등을 선정키로 하였다. 그러나 출품작들은 모두
그 자체로 수준이 높고 표현과 모델이 훌륭하였
으므로, 몇 번의 재 심사과정에서 주제와 작품
파의 연관성, 작품의 순수성과 성실성, 작품의
비전과 현실인지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엄
선하였다. 그 결과 입선작 이상으로 28개 작품
이 선정되었다. 그런데 공모작품의 대부분이 주
어진 주제와는 다르게 스튜디오별 주제에 의한
작품을 출품하여 심사방향과는 거리가 있었다.
금상: 「영역, 경계 그리고 연계」는 개발 영향권에
서 벗어나 있는 지역의 버려진 디지=를 택하여
이웃과 연결되는 길을 트고 주민을 위한 공간과
마당을 설치하여 어메니티를 소생시키려는 참신
한 계획이다. 이웃과 연결시킨 아름다운 곡선의
길과 트고 밀고 전개되는 테라스형의 곡면형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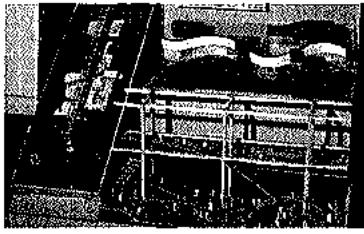
당 그리고 마당과 연속되는 공용공간이 잘 어울려
형태적 미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로 조화된 음악적
화성을 들려주는 듯한 감성적 작품이다.

은상: 「테헤란로거리 활성화 계획」은 도심에
존재하는 건물들 사이의 좁은 길을 일종의 가변
공간화 하여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고,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장의 의미를 갖게 하여 사
랑하는 거리가 되도록 재구성한 계획안이다.
길 자체를 도시의 틈으로 보고 active-path,
inter-path, parking-path, static-path 4 가지
아이디어로 재구성한 참신하고 주제에 걸
맞은 안이다. 다만 건축공간에 대한 계획에 소
홀함이 있는 것이 흠이었다.

은상: 「A media of after image frame」은 슬
럼화되어 가는 부산 용두산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도심지에서 용두산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도심지에서 용두산 공원에 오르는 유일한 통
로를 도시의 틈으로 인식하고, 그 길에 잔상효과
원리를 영상화 공간 즉 영상건축화의 장으로 활용
하려 한 제안이 돋보이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동상: 「풍류의 거리」는 현재 남산으로 오르는 유
일한 보행길인 버려진 생활정로와 남산, 남대문,
명동의 틈 사이에 있는 역사적 흔적을 찾아 연계
로를 개발하여, 이 두 흐름을 새로운 보행로로 연
결하는 계획안이다. 이 길=도시의 틈에 현대적
프로그램과 흥미 있는 시지각의 경험, 속도의 조
절 등을 도입하여 이를 지역에 가지 연결한다는
잘 정리된 작품이다. 다만 도시의 틈이라는 주제
를 건축보다 길로만 해석한 것이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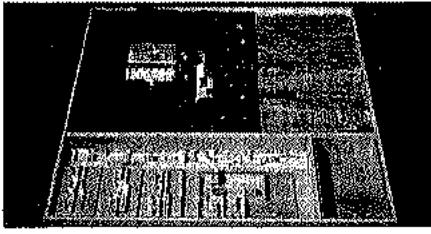
동상: 「on-off line electronic mall」은 기
존의 천자상가를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 및 구
매 형태에 부응하는 일종의 활성화된 문화 단지
로 재구성한 계획안이다. 이 작품의 특징은 도
시의 틈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도로 전면에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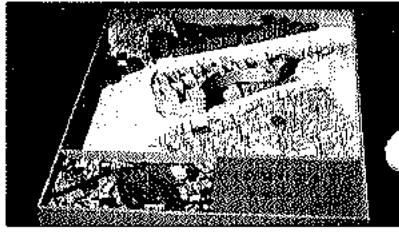
Insert of '...'



Breaking Blocks



공원(公原)에서 공원(公園)으로



나도 일하고 싶다: 중립동 노숙자 오 응시설 계획안

한 건물의 일부를 피로티화하여 후면 건물을 도로와 직접 연결시켜 새로운 도시의 틈을 개발해 낸 매우 의미 있는 안이다. 특히 도로 전면 건물 형태를 스피드에서 도출된 유선형으로 제시하고 후면건물과의 사이를 문화공간으로 계획한 매우 출중한 작품이다. 다만 작품이 너무 프로페셔널하다는 점을 지적 받았다

동상 : 「조계사 한국 불교 역사전시관」은 조계사의 문화적 가치를 살리고, 경복궁?인사동?북촌?창경궁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합적 landscape을 제안한 계획안이다. 도시의 틈으로 조경 화된 공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고층화되는 주변 건물 군에 대한 대응 안으로 전시관을 지하공간에 수용한 것이 중요한 계획 포인트인 출중한 작품이다.

유원재 /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대표

계획 작품은 한편의 소설과 같아 자기가 표현하려는 설계의도를 정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응모작들은 그 내용이 잘 읽혀지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 위주의 표현은 듣는 편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즉 제출된 폐널은 독립된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어제, 오늘, 내일의 시간의 퇴적이 역사를 이루고 도시는 그 퇴적층이다. 그래서 도시를 이루는 건축공간들은 한 조각 한 조각이 되어 우리 주위를 만들어 간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의 틈이란 주제는 건축과 도시를 따로 떼어 나여 생각할 수 없음을 강조하나, 많은 응모작들이 독자적 건축물의 설계에 중점을 두어 이웃과 주변의 관계성을 못 들어다본 것이 아쉽다. 아직도 너무 큰 스케일의 작품을 택해 소회불량식의 형식적 표현만을 한 응모작이 많은 반면, 작은 규모이지만 자기만의 전술한 방법으로 접근하며 논리성을 갖춘 반기운

작품들도 눈에 띠어 반기웠다. 아울러 출품작들이 메시지의 전달보다는 요란한 거품으로 패널을 위장하여 담백함을 찾기 어렵게 하고, 내용의 하구성을 강조함은 빨리 고쳐야 하겠다.

손기찬 / 건축사사무소 동이 대표

어떤 이유에서건 전년도보다 배 이상의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어, 응모안을 모두 심사해야 한다는 것은 힘들고도 또한 즐거운 일이다. 힘들다는 것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재기 넘치는 도전에 의해 제안된 많은 작품들에서 입선작을 걸러내는 작업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팽대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주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건축적 관성에 의한 대다수의 응모작에서 오히려 입선작들은 쉽게 결정될 수 있었다. 그것은 성과적인 태도로 팀미적, 조형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많은 응모작들이 가혹히리만큼 낙선될 수밖에 없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출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대단하고 중요한 의미심장한 의도가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한 의미조차 파악하기 힘들고 도시맥락 속이 아닌 스스로 독백하는 공간속에서의 착각의 소산일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는 우리 건축계 또한 무엇인가에 들떠 있다는 심각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냉엄한 현실의 투영일 수도 있겠다. 그러한 점에서 내년부터라도 건축교육적 관점에서라도, 소모적인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비응모와 심사를 단계를 나누어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리라 믿는다. 문제는 선택된 입선작들에서 어떤 양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떨어진다는 입장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도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형태적인 질을 높이기보다는 주제에 대한 개념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 차이를 쉽게 판별할 수 없는 난감함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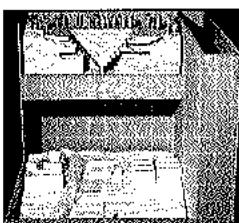
구체적인 도시 속의 건축으로 제안함이 불분명하거나, 건축언어에 충분치 않는 모호한 표현의 문구에 얹매여 있음들이다. 제시된 주제의 치열한 인식의 부족과 함께, 도시의 틈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로서의 틈으로 제한되고마는, 도시의 삶을 개선하여 비전과 이슈를 생산할 수 있는 기대에 아쉬움이 앞을 가로막았다. 지적 과정과 현란한 현시의 겉모습의 도시가 아니라, 현상적 공간과 인식론적(도시사회적)공간이 통합하는 - 그 관점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넘어 서는 상호 복합적인 창출이 기대되는 것이다. 비교적 주제에 대한 인식에 접근한 「영역, 경계 그리고 연계」의 작품은 시간과 공간에 의한 경계에서 교합하려한 장으로 제안되어, 지역의 상충에 대한 해석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결과 커뮤니티와의 통합을 시도한 노력이 돋보였다. 「and(테헤란로, 활성화 계획)」은 path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계한 제안은, 점들로서의 틈이 가로 선상위에 놓여지는 상호 관계의 공간으로서 이용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아쉽다. 「A Media of Afterimage Frame」의 작품은 프레임 장치를 통한 시각환경의 제안이라면 볼록으로서 매스의 배열디자인 이 아닌 시각각의 스케일에서 다루어지는 보행 형태연구가 보완되었으면 한다. 문제는 실제 도시의 삶과 동떨어지는 추상이나 조형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험정신에 의한 상상력이 기대되는 것이다. 즉 단순히 물리적인 형식이 아니라, 현재의 도시적인 환경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이러한 리얼리티에 대한 기성 건축적인 관성이 아닌 젊은 감수성과 통찰력의 아쉬움이다.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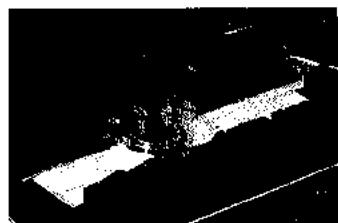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100여개나 많은 263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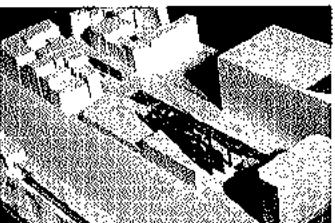
현저토록 존재하는 피거(피거와 혼작을 이용한 근·현대사 박물관 계획안)



수자원 역사박물관



Continuity of History Castle



글리터로 간 갤러리

품이 출품되어 집행부를 기쁘게 했으며, 동시에 심사장소를 확보하느라 실무진을 고민에 빠뜨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심사를 실시한 결과 두가지 점에서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첫째, 주제와 동떨어진 작품이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한 교수님이 지도한 작품이 대거 출품된 현상이 자주 보였다. 이는 대학원 또는 대학의 정규 설계과제로 다른 것을 적당히 주제와 연계 시켜 출품한 것들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는 대형작품이 많은 점이었다. 스케일이 크다고 해서 주제에 합치되지 말리는 법은 없지만 도시의 틈이라는 주제나 신인과 학생을 위한 계획건축 물부분임을 감안할 때 완벽하게 소화하기 어려운 큰 스케일은 역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 사료된다. 금번 1차 심사에서는 일상작의 배수인 56작품을 선정하기로 하였으나 상기한 작품들이 배제되면서 숫자를 다 채우기 어려운 풍요 속의 빈곤을 맛보아야했다. 금상을 차지한 영역, 경계 그리고 연계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세련된 조형언어를 구사한 건축형태도 좋았지만 상도동 달동네를 계획부지로 선정, “시간차에 의해 불균형 개발되는 인접영역간의 경계 중 그 쓰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지를 활용하여 매개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작게는 지역의 부족한 공용시설을 제공하고 나아가 영역간의 괴리감을 극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장을 만들었다”는 작가의 의도가 주제를 적시하였다고 본다.

은상의 A Media afterimage frame과 동상의 풍류의 거리는 부산의 용두산 공원을 오르는 길과 서울의 남산을 오르는 길을 주제로 계획한 작품들이다. 건물의 형태나 용도는 전혀 다르지만 도시의 틈이라는 주제와는 부합되고 있다.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았으나 풍류의 거리

가 축선이나 선 등에서 덜 정리된 느낌이었다. 또 다른 은상인 ... and ... (테헤란로 활성화 계획)는 청계천교각을 주제로 한 작품과 더불어 비건축적 요소가 강한 작품(주제가 요구한 것은 도시, 건축, 조경, 실내외환경 디자인 등 제분야에서 계획)이다. 작품의 성취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나 Active pass, Parking pass, Inter pass, Static pass의 4가지 아이디어로 틈새 공간을 다룬점을 높이 살만하다. 그밖에 “전통과 현대, 단절과 소통”으로써 주제를 풀어나간 조계사 한국불교 역사관과 비교적 큰 스케일 종에서 주제의 독창적 해석과 작품성이 뛰어난 ON-OFF LINE ELECTRONIC MALL을 통상으로 선정하였다. 금번 작품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은, 수년 전부터 그러했지만 특히 올해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었다. 또한 심사 후 안 것이지만 많은 작품을 출품한 곳에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매년 많은 작품을 출품하는 홍익대학교와 부경대학교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응모한 교수님과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께도 경의를 표한다.

박재승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물 자체의 조형적 완성도만큼이나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Context)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번 계획물 부문의 “도시의 틈”이라는 주제는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매우 다양 한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는데 건축물과 맥락을 동시에 인지될 수 있는 건축적 해법제시와 패널과 모형을 통한 표현방식의 완성도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었다. 도시적 스케일에만 집착하거나 건축물의 표현위주의 계획에 치중한

작품들은 높은 점수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금상을 수상한 영역, 경계 그리고 연계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건축적 해법이 돋보인 수작으로 서울시 상도동의 달동네의 길과 어네너티공간을 통해서 커뮤니티 의식을 고취시키려한 건축적 의도가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은상을 받은 A Media of Afterimage Frame은 잔상효과와 원리의 시각작용 프레임장치를 응용한 부산의 용두산 공원 활성화 계획으로서 아이디어의 창신성을 인정받았고 다른 은상 작품인 ... and ... (테헤란로 거리 활성화계획)는 path를 4가지로 분류한 후 건물들을 연결하고 틈새공간에 문화를 창출하는 아이디어가 새롭게 느껴졌다. 동상 작품인 풍류의 거리는 남산과 명동의 틈사이에 역사적 흔적을 바탕으로 한 보행로 제시를 통한 도시, 역사의 맥락적 차원에서 아이디어 제시가 돋보였고 조계사 한국불교 역사관 계획안은 새로운 종교시설의 제안을 통한 조계사의 문화적 가치복원을 위한 제안이며, On-off line electronic mall 계획은 용산전자단지의 새로운 프로토타입 제시를 통한 활성화 계획안으로서 표현기법과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통상으로 선정되었다. 그 밖에도 주제해석을 놓고 고심한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았으나 모두가 선정할 수 없었음이 아쉽게 생각되었고 제시된 주제의 충실한 이해에 비통을 둔 건축적 표현이 작품심사의 중요한 키포인트였음을 말하고 싶다. 끝으로 이러한 건축적 축제마당에 참여한 모든 젊은 건축학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끊임없이 정진하여 미래 한국건축문화의 일익을 담당할 건축가로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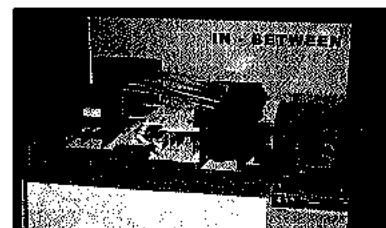
기계속의 정원



궁중복식 조식관



Tug From Four Facade



정독드서관 리노베이션



정독도서관 리노베이션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상

시몬느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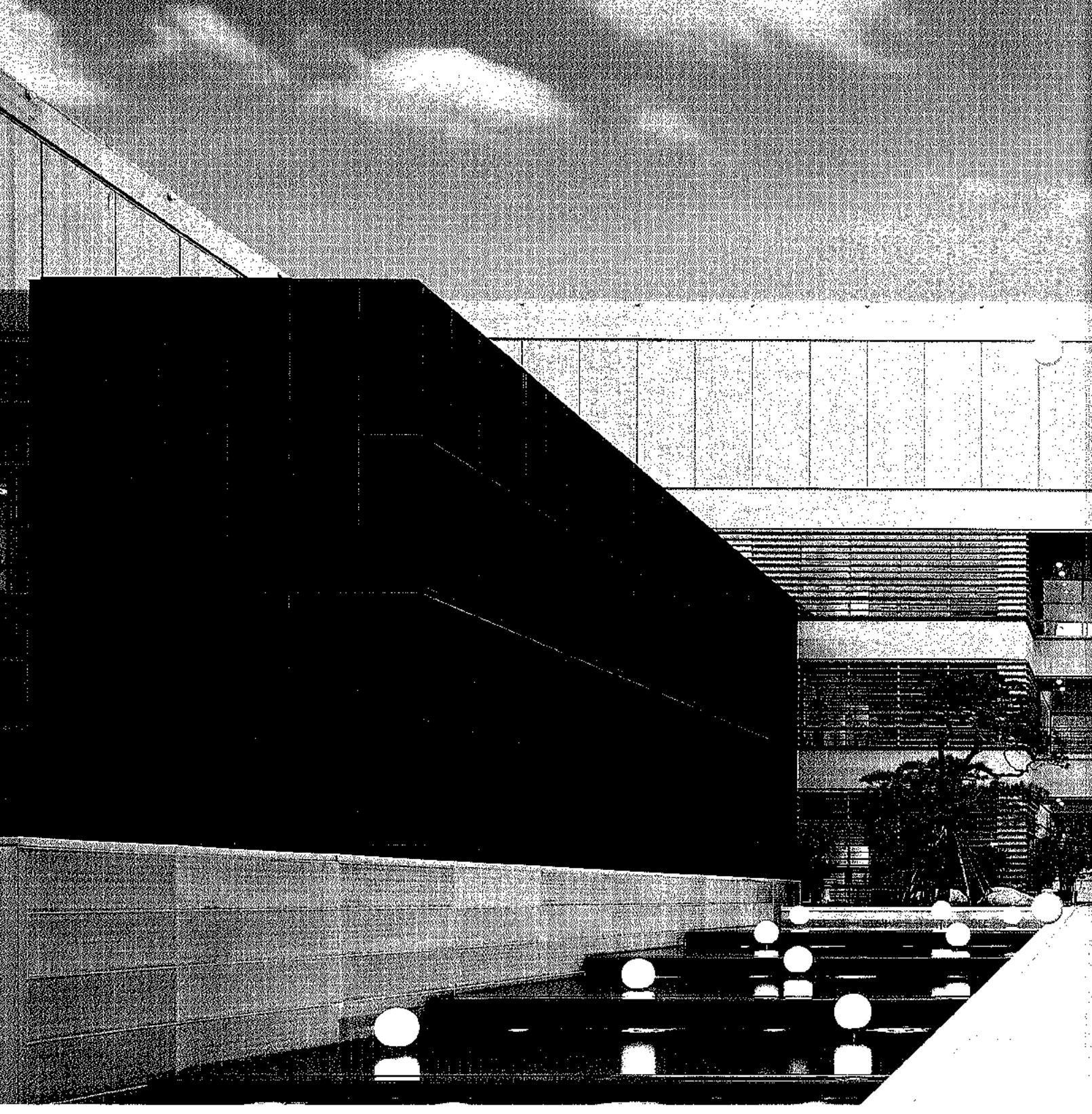
Simone Head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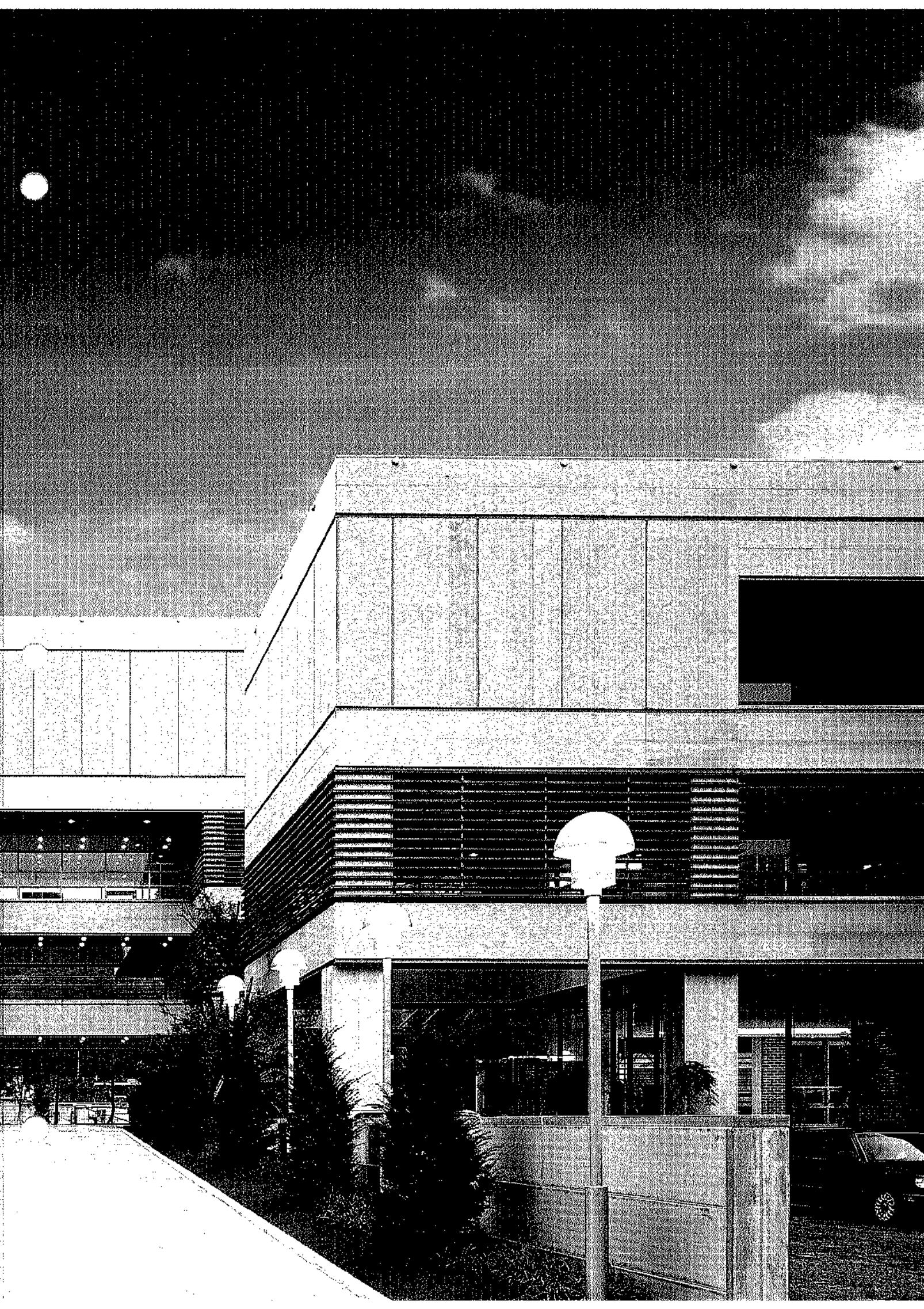
설계자 | (주)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안길원

시공자 | A&A건설(주)

건축주 | (주)시몬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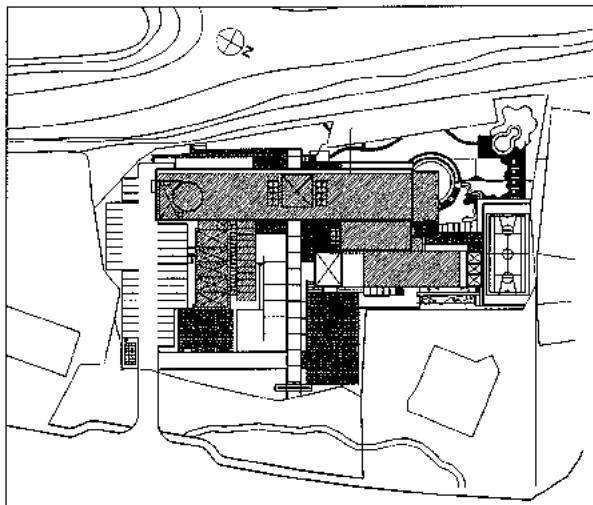
(건축시지 0309호 거제)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17-1번지와 11필지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주요용도	공장시설(제조업) 및 부대시설
대지면적	8,938.00 m ²
건축면적	3,063.64m ²
연 면 적	8,250.25m ²
건 폐 율	34.28%
용 적 률	81.15%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페널/THK.18 복층유리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 8,250.25m ² /200m ² = 41.25대 계획주차대수 : 73대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시몬느 사옥은 제조공장과 본사의 역할을 동시에 충족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자연속의 연구소와 같은 건물을 의도하였다. 계획에 앞선 대전제로서 Green Office로서의 지역내 Landmark 이미지 구축과 이를 겸맞는 고품격 공간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에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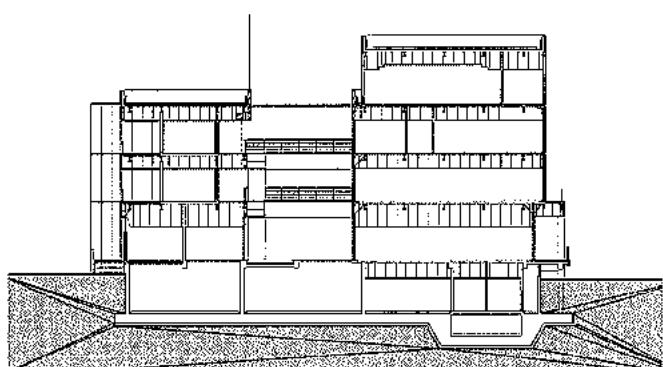
이에 따른 구체적 목표로서 첫째, 대내적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무실+공장+공원의 유기적 연결,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근무조건의 향상을 이루도록 하였다. 둘째, 대외적인 인지도면에서 세계로 벌어가는 Simone의 이미지구축과 글로벌경쟁시대에 부합되는 시설확보에 의한 자부심을 표출하여 브랜드인지도 향상을 통한 사업성확보와 동시에 경수산업도로변의 Landmark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신개념이 도입된 차별화된 공간에서의 남다른 직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Total Interior 개념 도입에 의한 품질의 고급화, 내·외부 디자인의 일관성이 돋보이는 내부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배치계획 개념에 있어서는 기능에 맞는 실내외에 의한 명확한 기능분리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각 실의 융통성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크게 기방제조영역, 영업상담영역, 업무영역으로 나누고, 이는 3분할된 매스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우선, 외부공간계획에서는 대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보차분리에 의한 보행자 안전 우선확보를 대원칙으로 하였으며, 4개의 테마별 정원(Oak Plaza, Waterside Garden, Maple Garden, Lake Garden)을 도입하여 고품격의 디테일을 적용한 쾌적한 외부환경을 조성하여,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와 내방객에 최상의 회사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내부동선과 옥외공간이 연결체계에 있어서 첫째, 고객과 직원동선의 엄격한 분리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간별 이용자를 분리하고 둘째, 시몬느 사옥만의 고유한 디자인 요소인 아트리움, 브릿지, 정원의 유기적 연계에 의한 특화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셋째 발코니, 테라스, 정원의 적정한 배치에 의해 실내공간과 옥외휴식공간의 유기적 연결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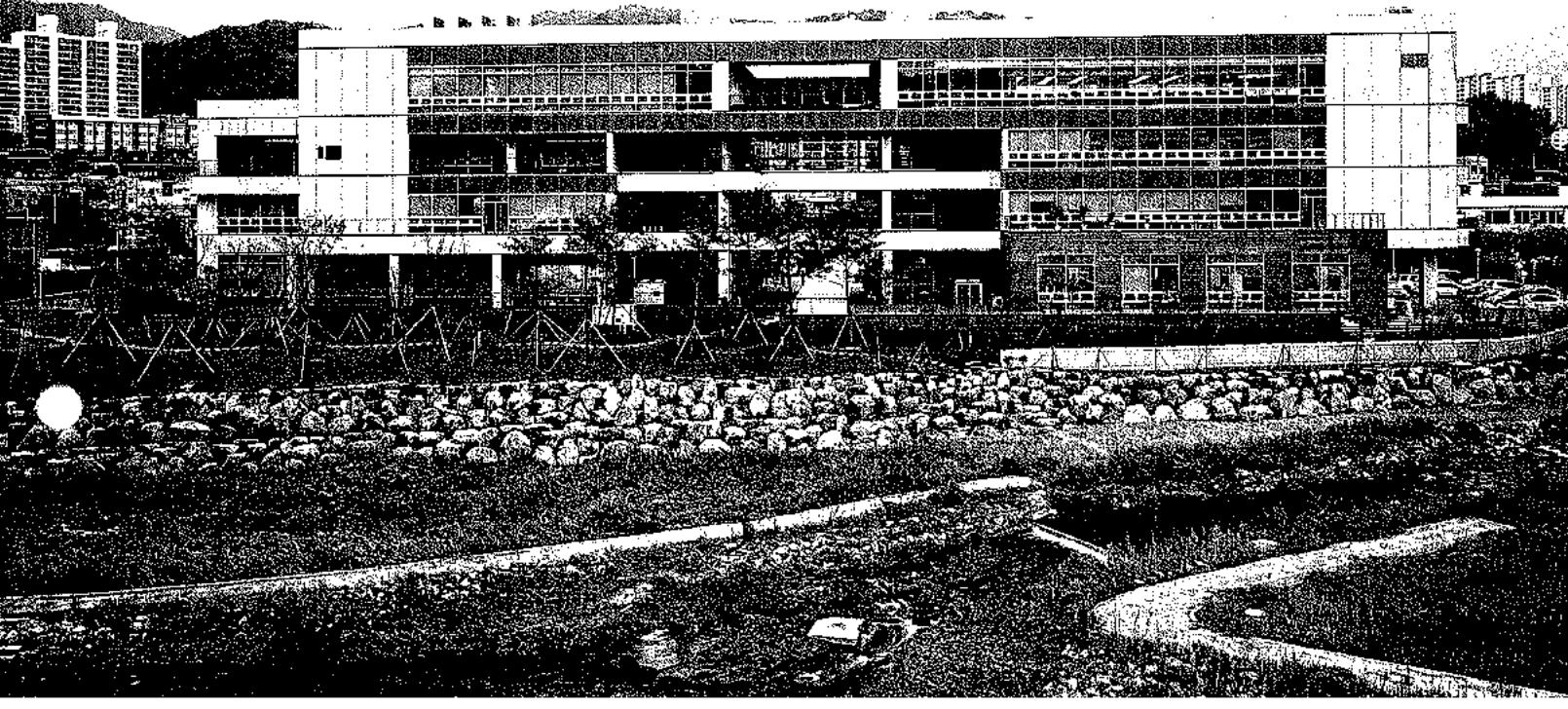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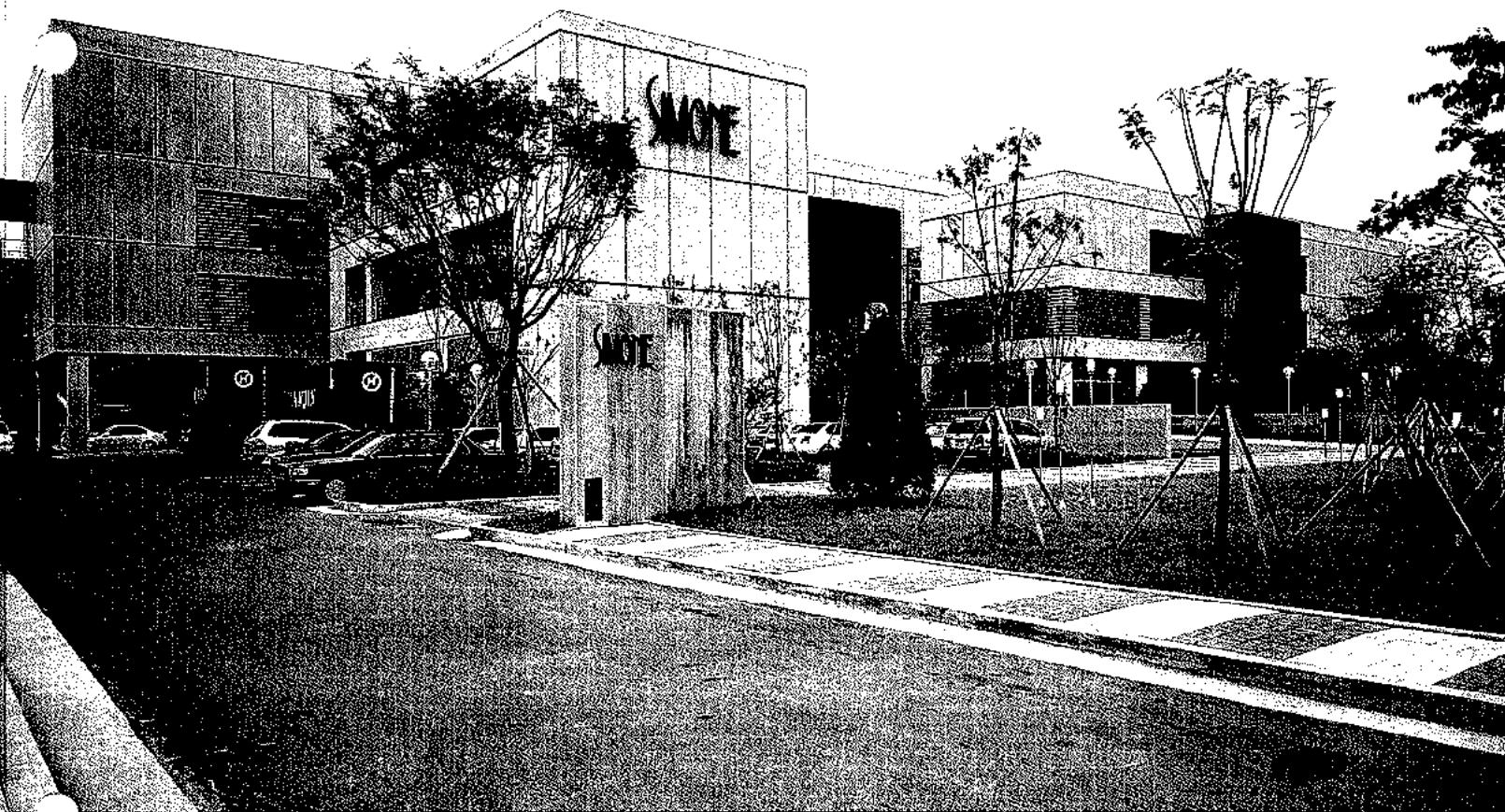
무엇보다도 자연친화적인 Green Architecture로서의 최신트렌드에 맞추어, 인테리어계획 역시 열린공간을 표방하여, 외부공원을 공유하고, 자연의 흐름을 실내로 유도하여 적극적인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이용함으로서 자연을 존중하는 시몬느의 기본정신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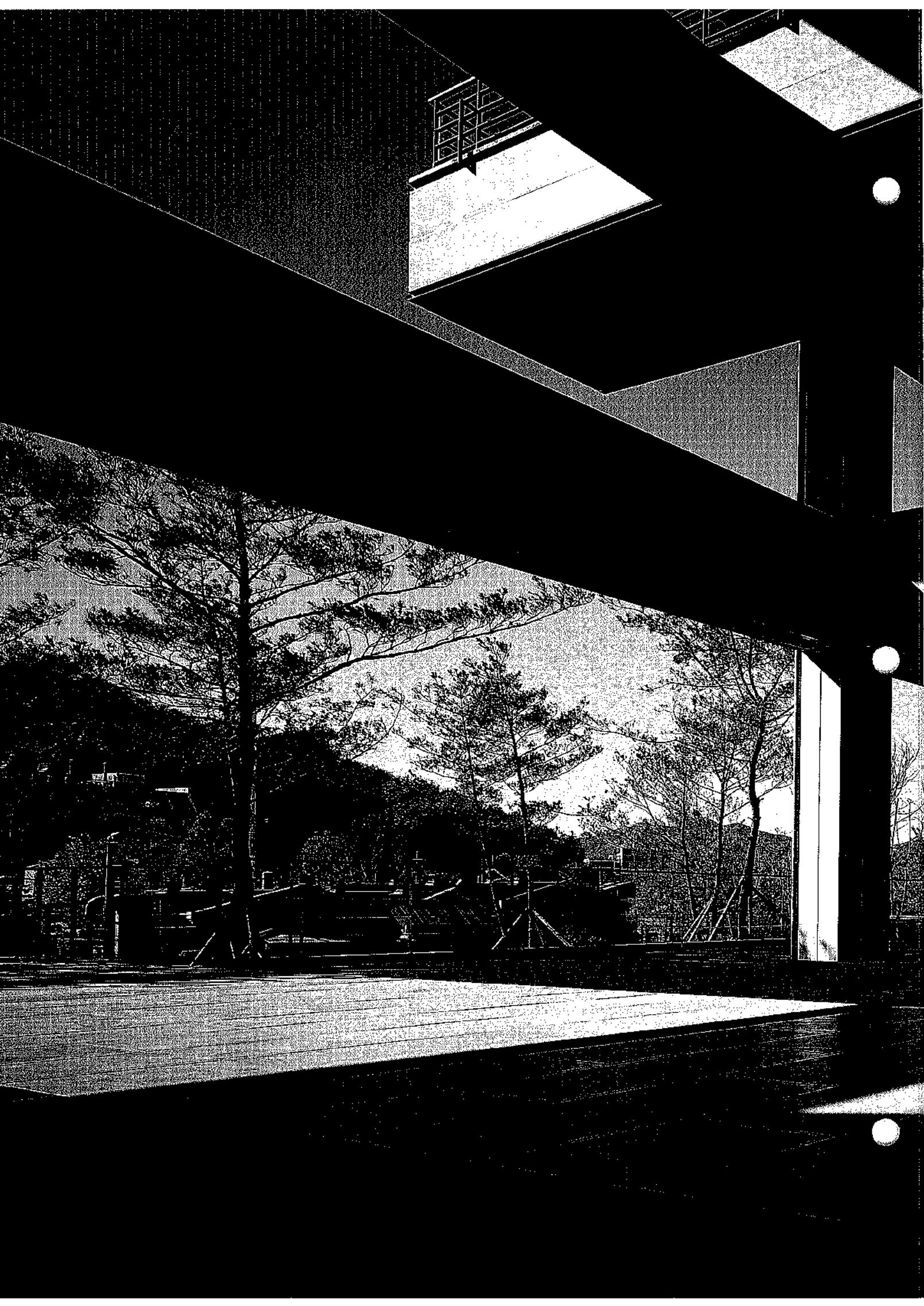
이를 위해 목재의 질감과 이를 관통하는 자연채광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자연소재와 인공소재를 중첩시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긴장감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서 모던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목재의 느낌과 빛의 조화를 각 실의 용도에 맞도록 적용하여, 친근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근간으로 한 감성적 공간을 이루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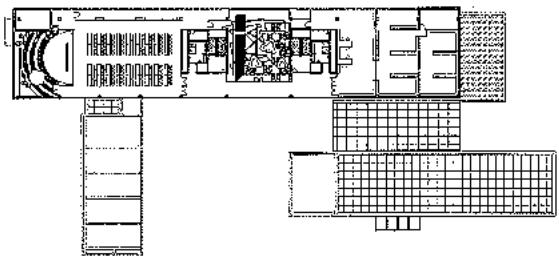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현되어진 시몬느 본사의 진보적인 공간해결방안은 건물이용자들에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연친화적인 디자인(Environmentally Friendly Design)만이 제공하는 초유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차후에 계획되어질 유사 프로젝트들에 있어서 자연과 디자인 및 효율이 결합된 모범적인 기업의 한 전형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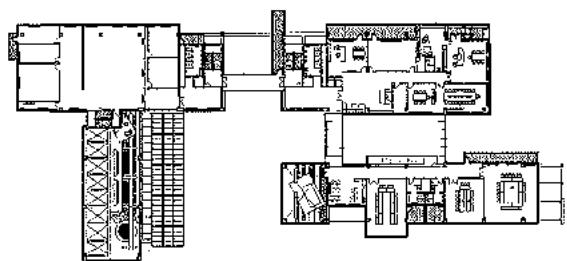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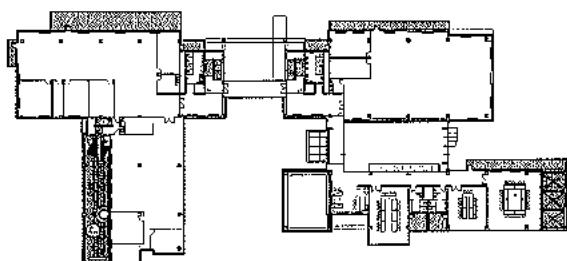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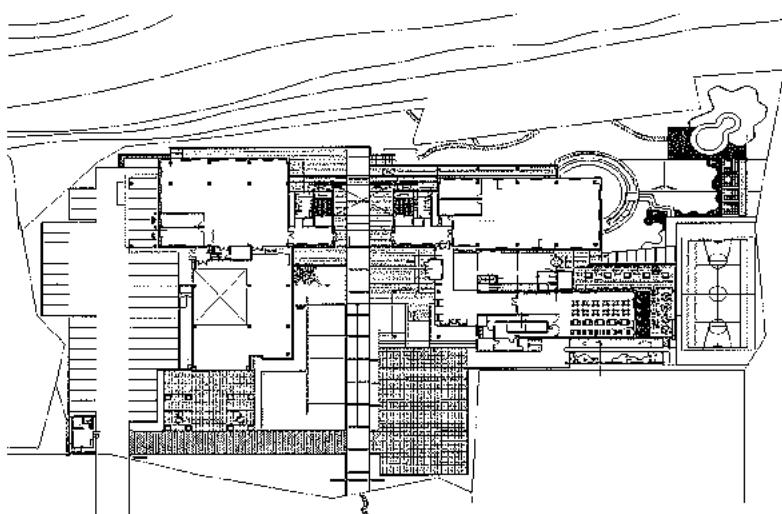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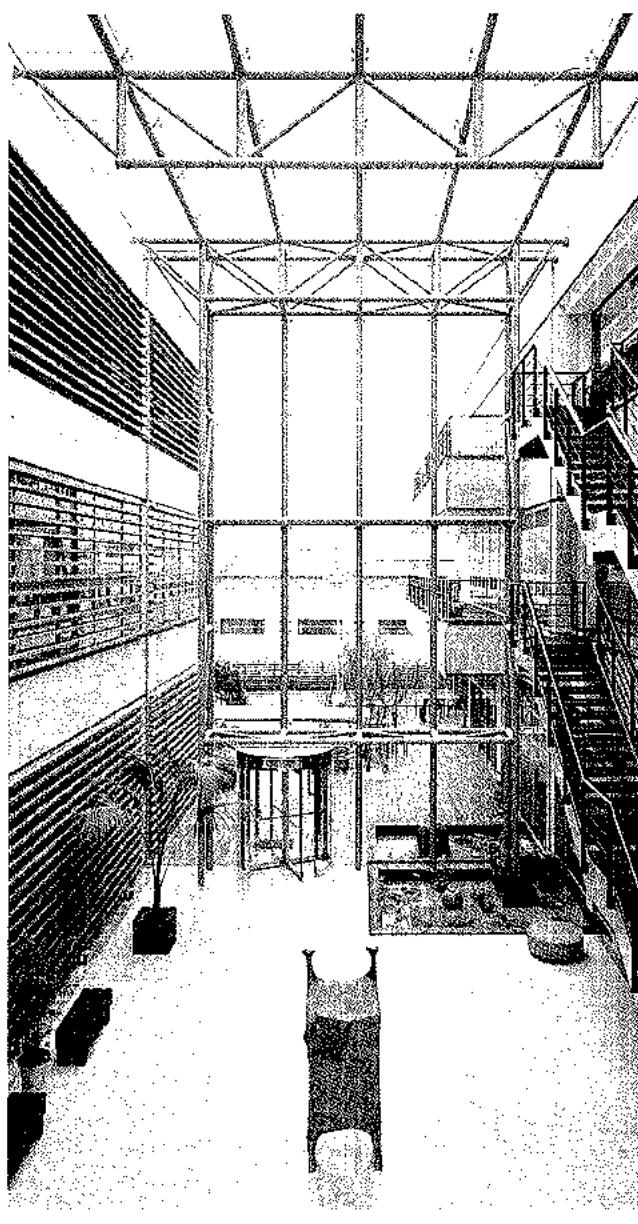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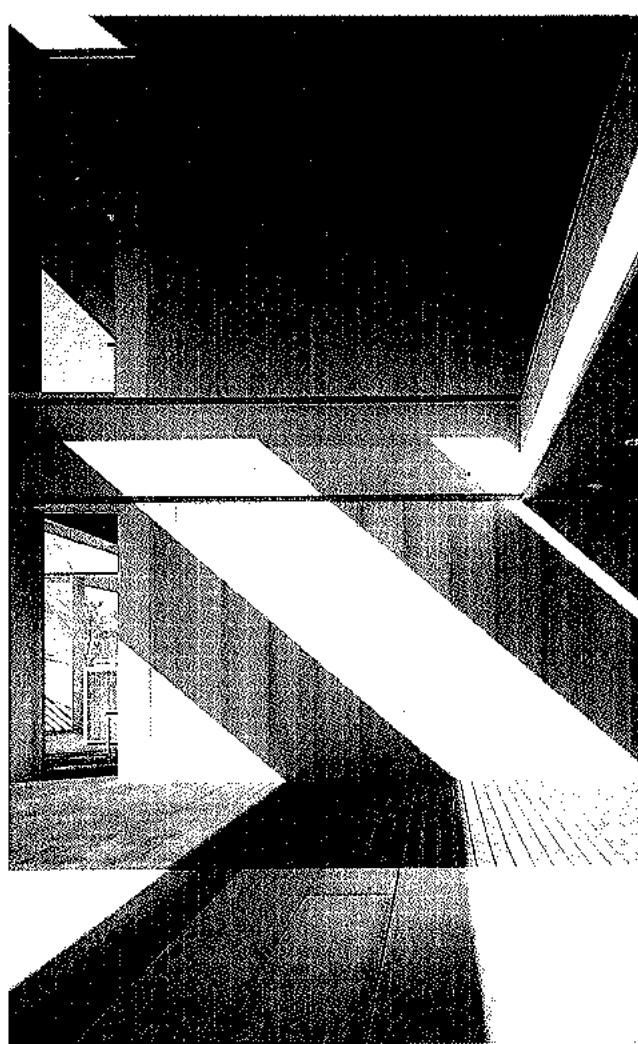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_ 본 상

분당 C-11-4-12

Bundang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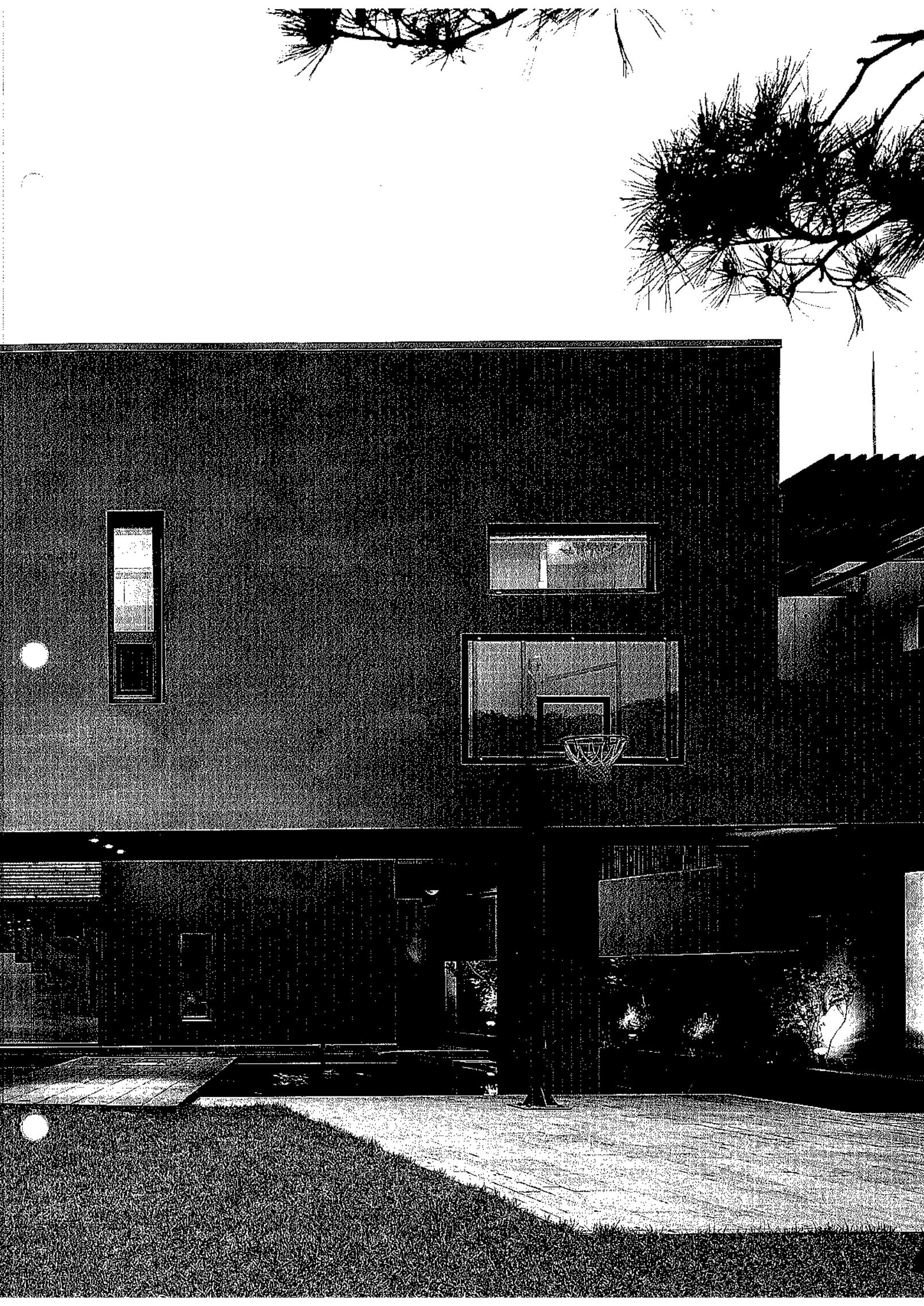
설계자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이성관

시공자 | (주)미래산업

건축주 | (주)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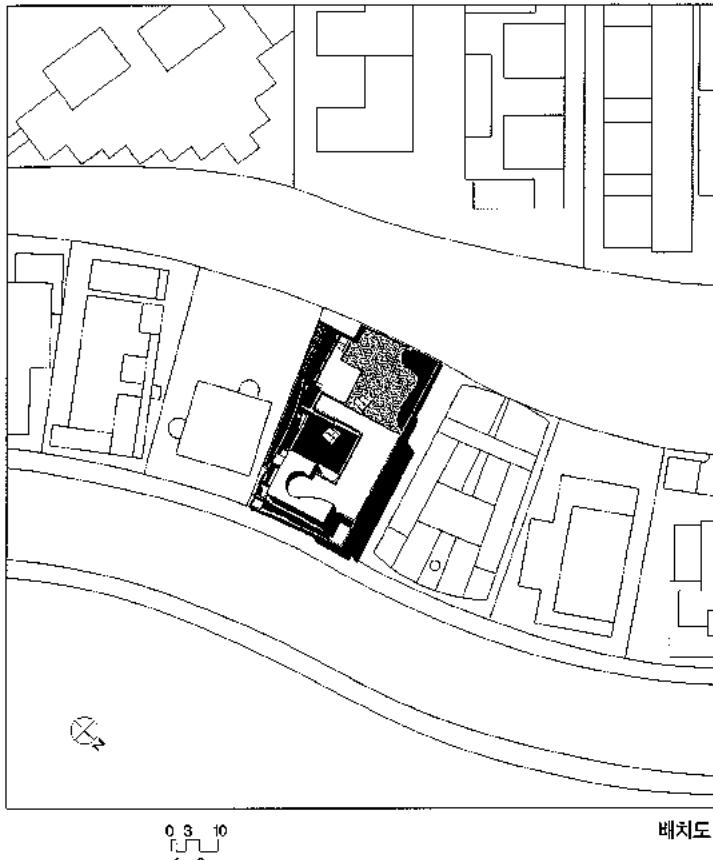
(건축사지 0210호 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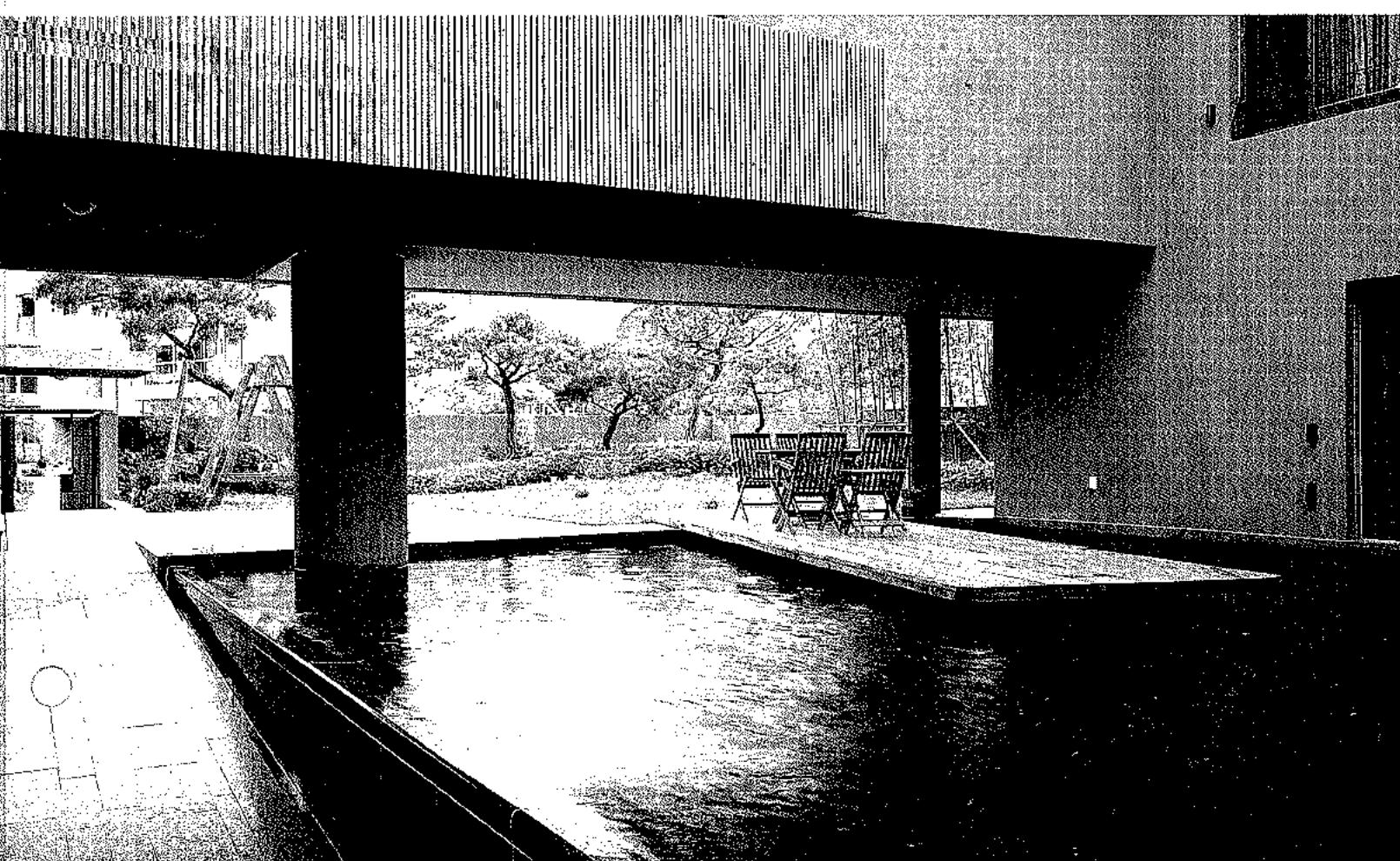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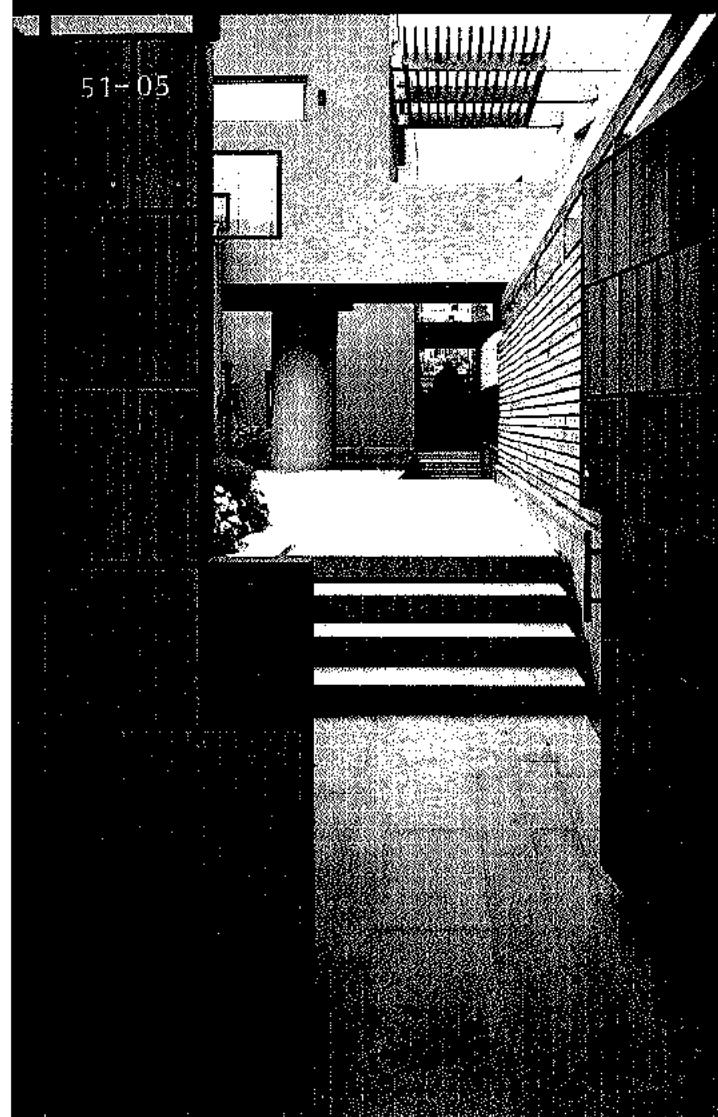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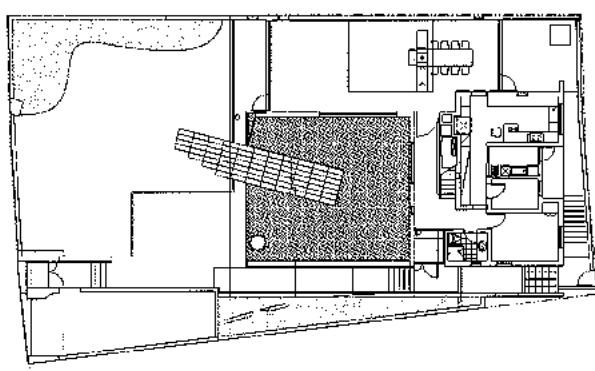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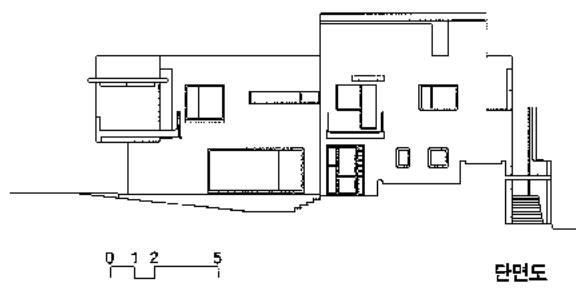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분당신도시 특별설계지구 #3 C-11-4-12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 도시설계지구
용 도	단독주택
도로현황	전면 10M 도로, 측면 4M 도로, 후면 20M 도로
대지면적	617.30 m ²
건축면적	196.75 m ²
연 면 적	319.96 m ² (공사 면적 : 299.52 m ²)
건 폐 율	31.87 %(법정 : 50%)
용 적 률	51.30 %(법정 : 90%)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상 2층
주차대수	2대(법정 : 2대)
외 벽	최종코트시스템
지 통	평슬라브 위 쉬트방수
설 계	박경용, 엄덕희, 김정순
시 공	(주) 건영
구조설계	한국구조
전기설계	일진 ENC
설비설계	성일 ENC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본상

광명 철산지구 주공아파트 Gwangmyeong Cheolsan Apartment

설계자 | (주)도문원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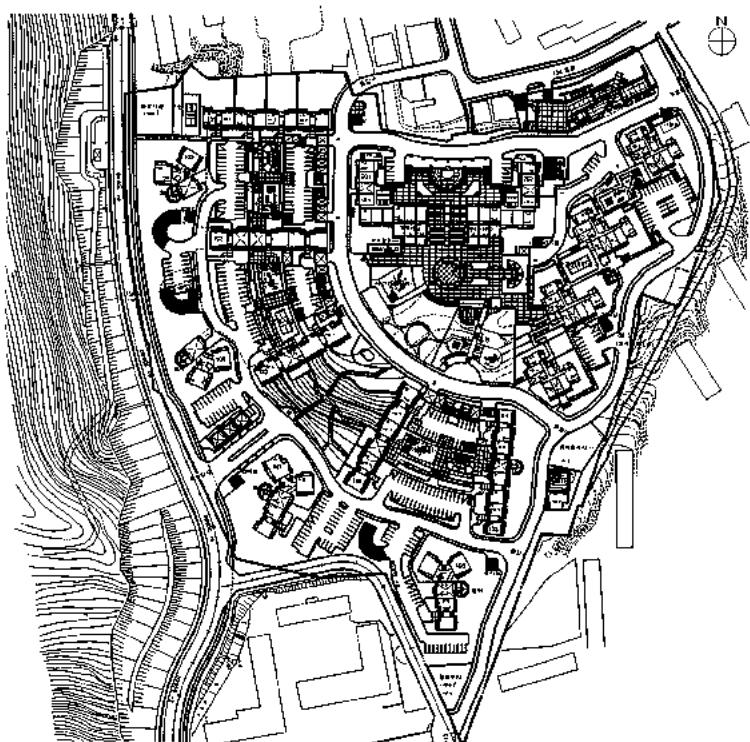
시공자 | 삼익건설 주식회사

건축주 | 대한주택공사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10번지 일원 및 하안동 산 31-20번지 일원
지역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주요용도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69,466.600 m ²
건축면적	11,777.332 m ²
연 면 적	273,104.440 m ²
건 폐 율	16.95%
용 적 률	274.97%
규 모	지하 7층, 지상 25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세 대 수	2,351세대 59m ² 평형 462 84m ² 평형 541 114m ² 평형 114 39m ² 평형 580(임대) 49m ² 평형 654(임대)
주차대수	2,156대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이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폐적한 삶을 추구하는 친환경단지 조성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지 현황 및 계획개념으로 대지 남동측은 저층 및 고층 아파트가, 대지 서측은 도덕산이 면해 있으며 50미터의 레벨차(경사도 20%이상)의 급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높은 표고차를 극복할 수 있는 주거형과 동선 System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단지내에서 도덕산이 조망될 수 있고, 경사지를 이용한 주차 및 다양한 외부공간 확보를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단지계획은 거주민의 사람이 되고, 철산지역의 좋은 환경의 표상이 되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등측에는 개방감있는 타워형 배치를, 도덕산변은 단지 내부와 연계하여 조망이 가능하도록 판상 및 타워형의 주거동을 배치하였다. 먼저 분양지구는 중앙광장에서 경관축과 활동축이 차폐되지 않도록 주동을 배치하였고, 경사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녹지 및 옥외 공간을 형성토록 하였고, 임대지구는 인접아파트를 고려하여 시각적인 개방감과 중앙광장의 위요감 형성을 위하여 타워형으로 계획하였다.

조경계획은 단지 중심부에 놀이터, 휴게소, 광장 및 분수대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 및 Community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단지중앙과

도덕산을 있는 녹지축을 형성하여 단지중앙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강한 녹지축이 단지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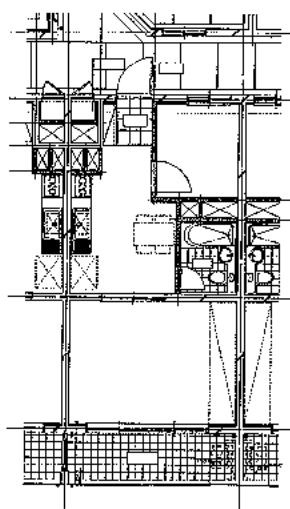
건축계획은 지형 및 경관을 고려하여 데크식 주동 및 주차계획을 하였고 엘리베이터 타워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동선을 확보하였다

주거동계획은 일조 및 조망을 최대한 확보토록 코너형, 축세대형 등을 개발하여 주거동의 다양화를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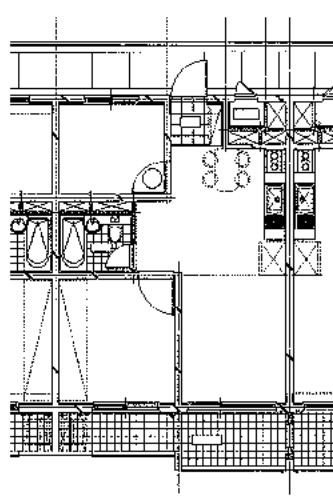
입면계획은 다양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입주자의 정서적인 안정과 내방객에게 인상 깊은 장소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지하 주차장은 자연지형을 적극이용하여 자연환기 및 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단지 미관에 특징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면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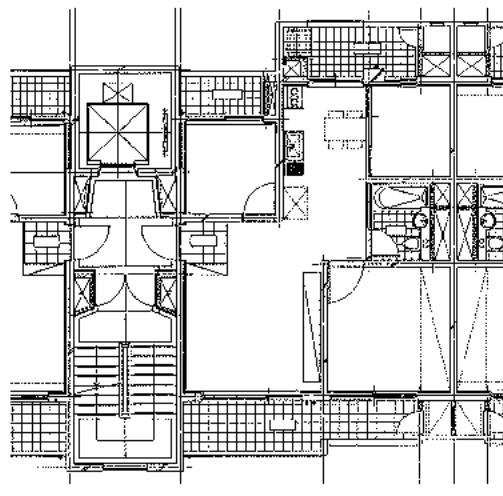
부대복리시설은 보행동선의 결절점과 오픈스페이스 연계선상에 배치하고, 보차분리 및 거주자 이동동선의 최소화로 편리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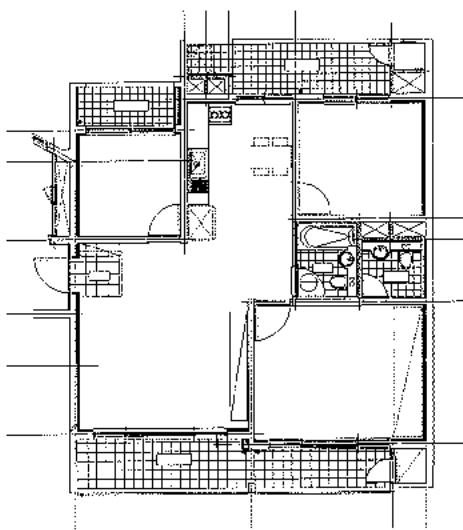
39A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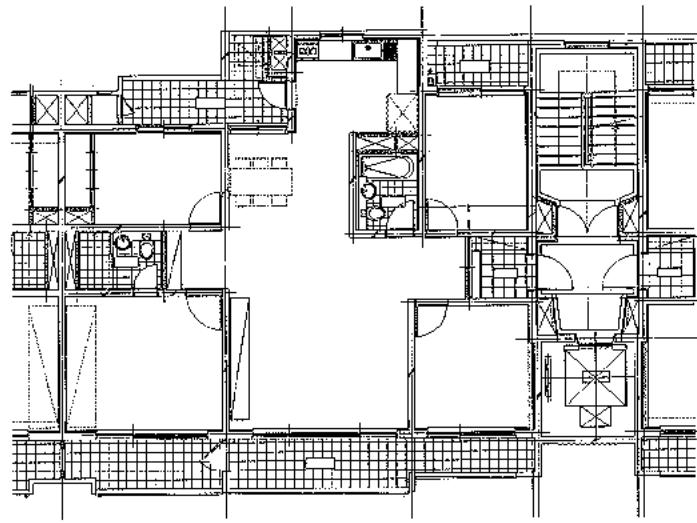
49평형



59평형



84평형



114평형

단위세대 평면도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본 상

춘천두미르 군인아파트

Chuncheon Dumir Soldier's Apartment

설계자 | (주)도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한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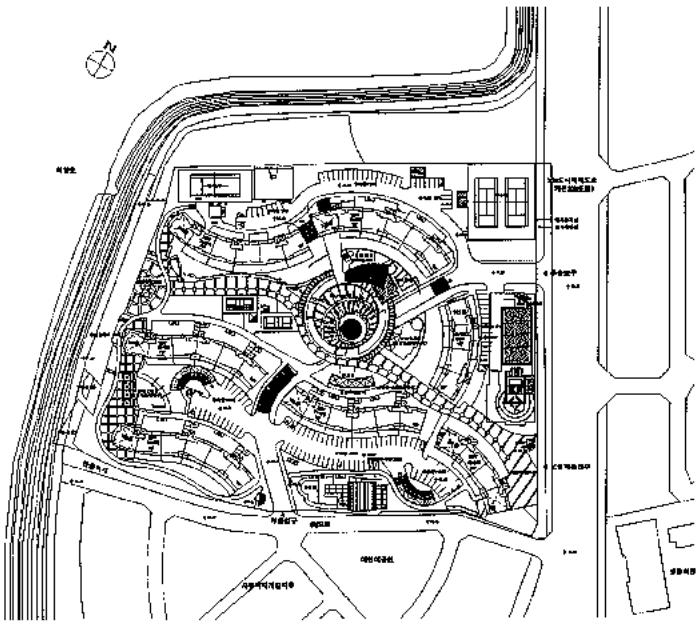
시공자 | 두산건설 주식회사

건축주 | 국방부



건축개요

위 치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742-1와 14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4,113.270m ²
건축면적	6,068.664 m ²
연 면 적	66,103.099m ²
녹지면적	8,628.90m ²
건 폐 율	17.78%
용 적 률	144.95%
녹 지 율	25.29%
최고층수	12층
세 대 수	428세대 32평 A형 273세대(7개동) 32평 B형 128세대 32평 C형 27세대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이 계획안은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하는 군인들의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써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방식으로 발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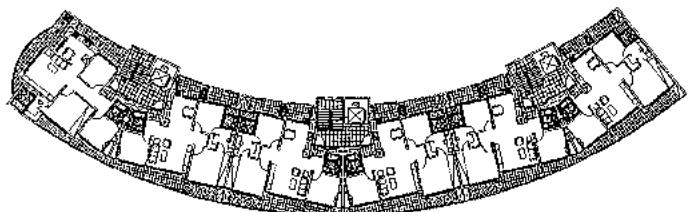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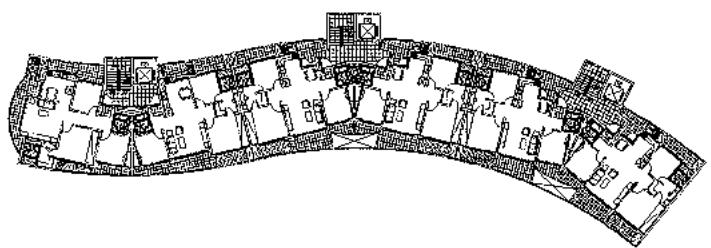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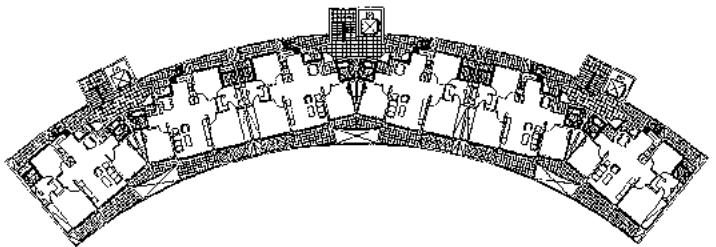
대지는 2면이 의암호에 접해있어 사계절의 풍부한 자연경관과 기존도시의 CONTEXT를 고려하여 "자연·지역·인간친화"적인 측면에서 폐적하고 풍요로운 주거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자연환경요소의 단지 내 적극적 유입을 통해 호수의 풍경이 살아 숨 쉬는 수변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축제의 마당으로 활용하고, COMMUNITY 공간의 다양화와 공공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의 삶과 일상의 풍요로움을 담는 주거환경의 조성 및 기존도시기능과 연계되어 호수의 정서를 반영한 유기적인 배치계획을 통해 상징적이고 기념적인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주변경관과 연계되어 강촌어귀마당, 중앙광장, 호반축제마당으로 이어지는 주보행축을 설정하여 자연과 도시를 잇는 OPEN SPACE를 계획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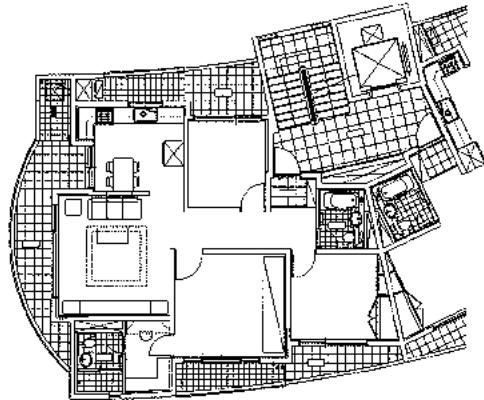
차량동선은 중앙광장을 UNDER PASS로 하여 보차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보행동선은 차량접근이 일체 배제된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PILOTIS 등을 통해 각 주동과 시설동을 연결하였으며 산책과 자전거 이용을 위해 단지외곽을 연결하는 일주도로를 설치하였다.

주거동의 형태는 호수(물결,돛단바,고등,흐름,흔적)의 IMAGE화와 유기적인 배치를 통해 전세대에서의 의암호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고, 호수 주변은 측세대를 계획하여 호수의 조망을 극대화 하여, 군인(直, 強)의 반복되는 삶을 물결(曲,柔) 속에서 일상의 여유로움을 되찾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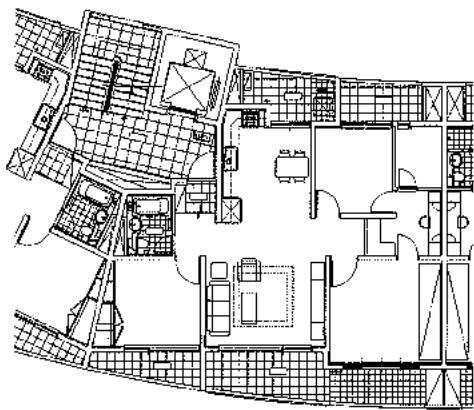


주동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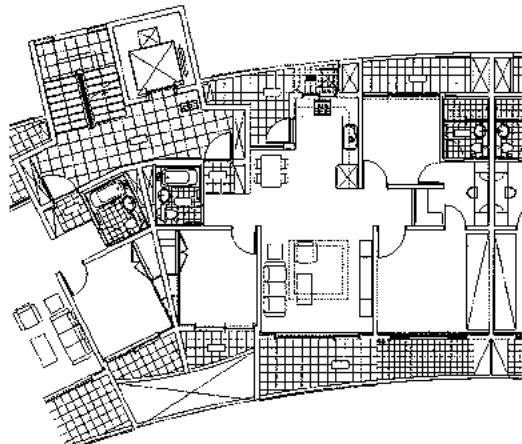




32평 C형



32평 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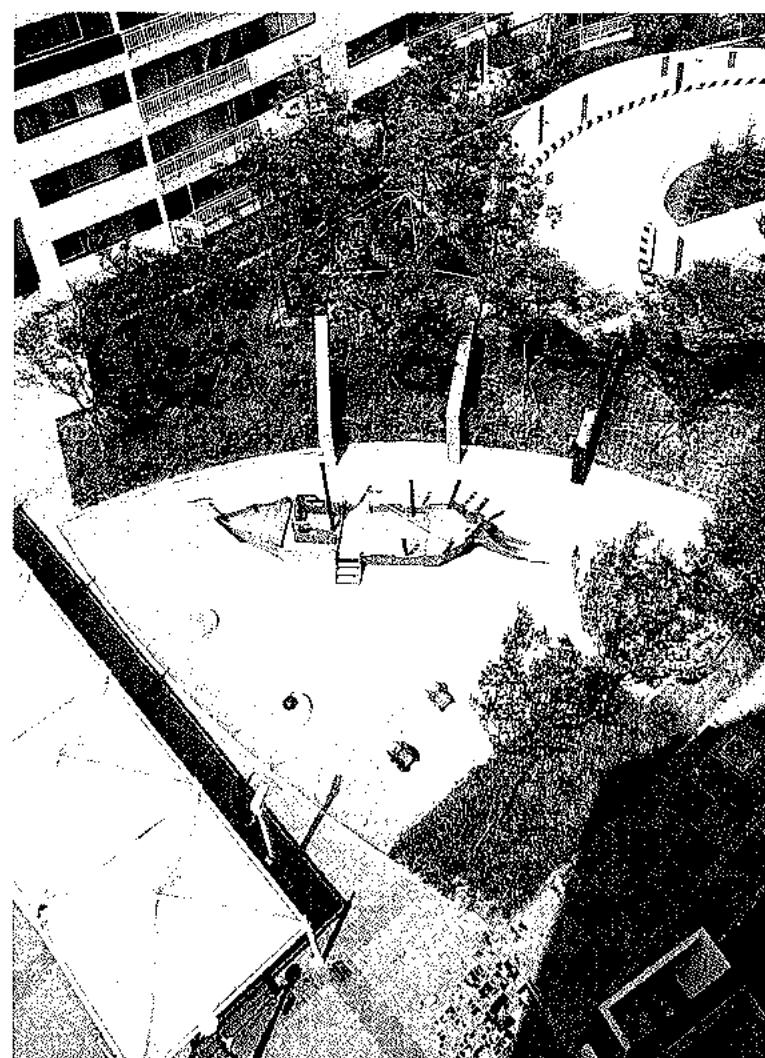


32평 A형

단위세대 평면도

있게 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근래에 새로이 시도되는 발주방식(T.K)을 잘 관리하여 주신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과 부정형의 형태를 잘 마무리 지어주신 두산건설 주식회사
에 설계자로서 감사드리며 얼마동안의 머무름이 될지 기약은 없지만 주민
들에게 행복이 샘솟는 보금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본상

동부금융센터

Dongbu Financial Center

설계자 | (주)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기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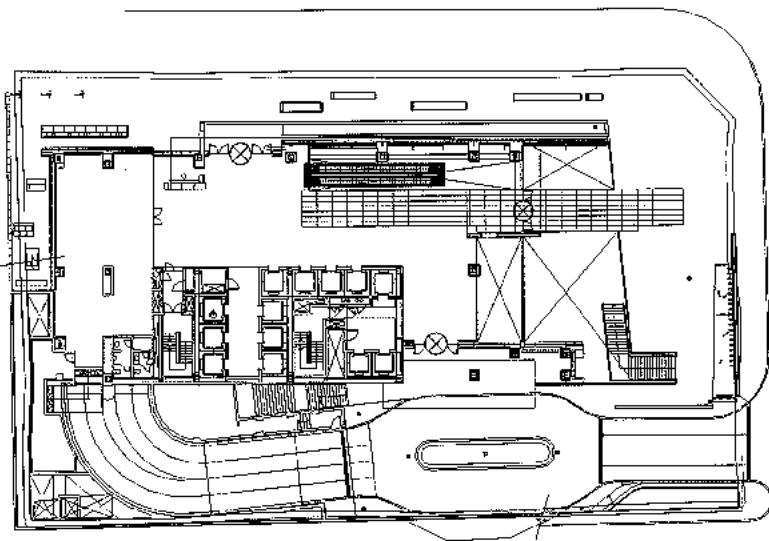
시공자 | 동부건설 주식회사

건축주 | 동부건설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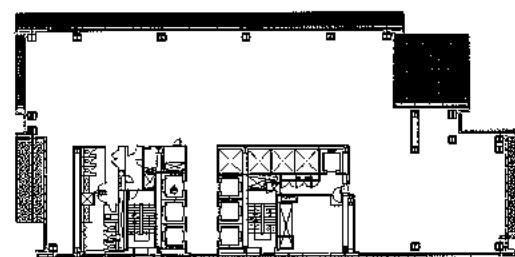
(건축신지 0305호 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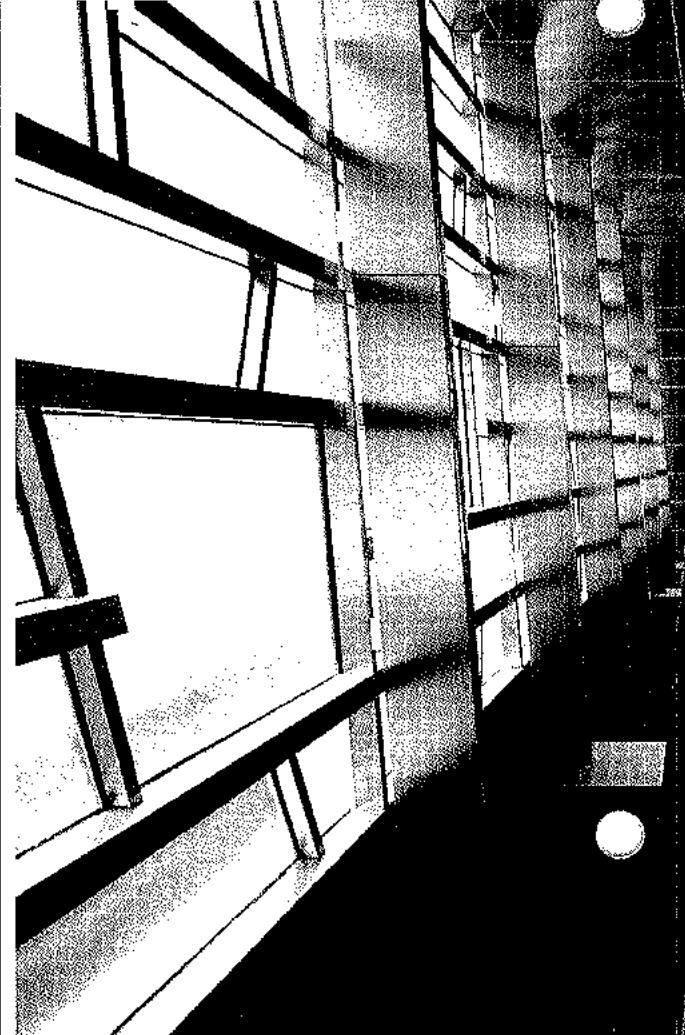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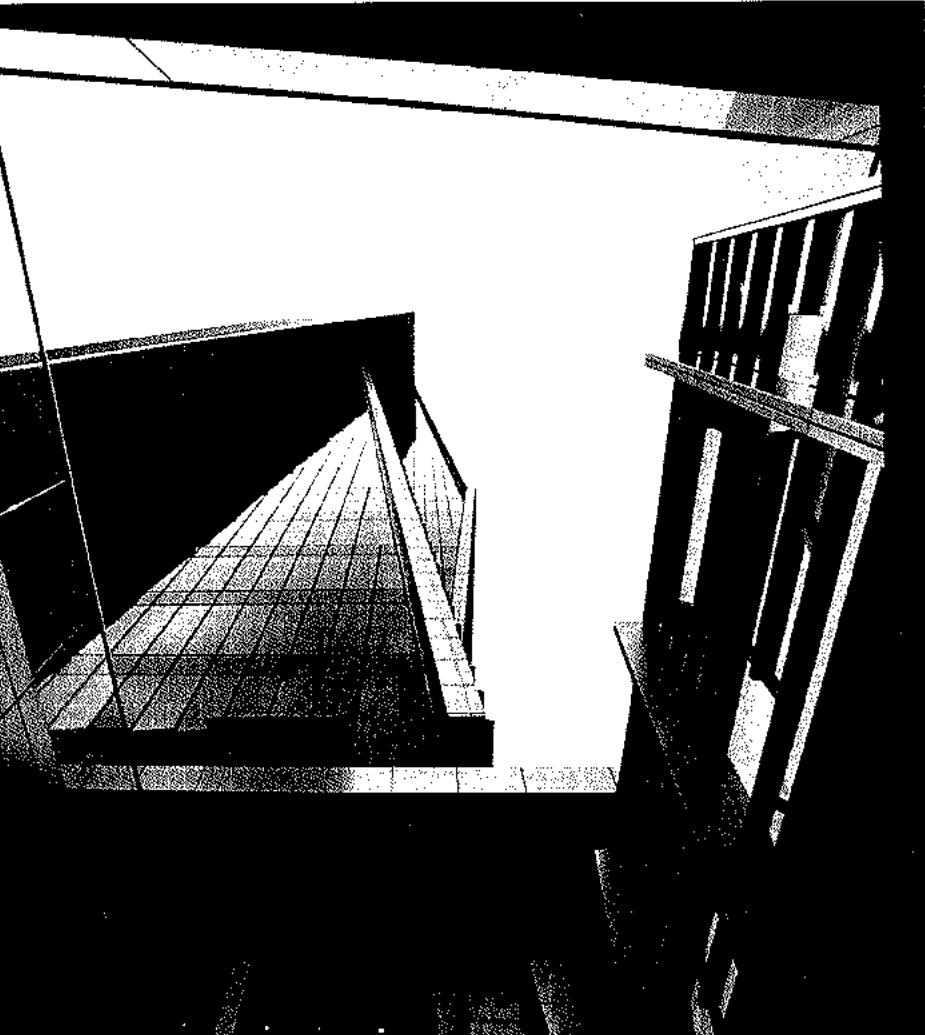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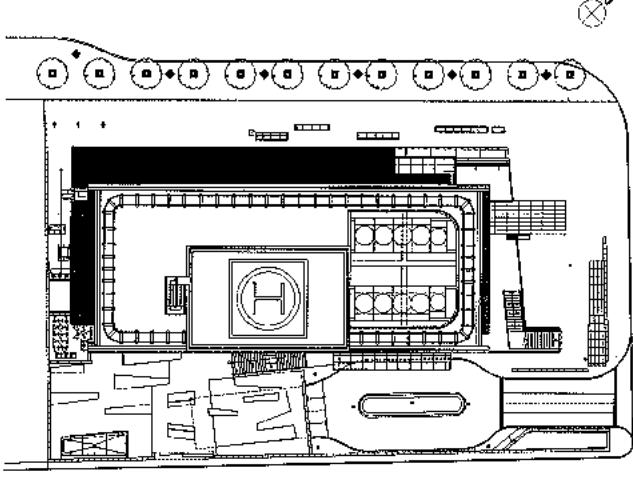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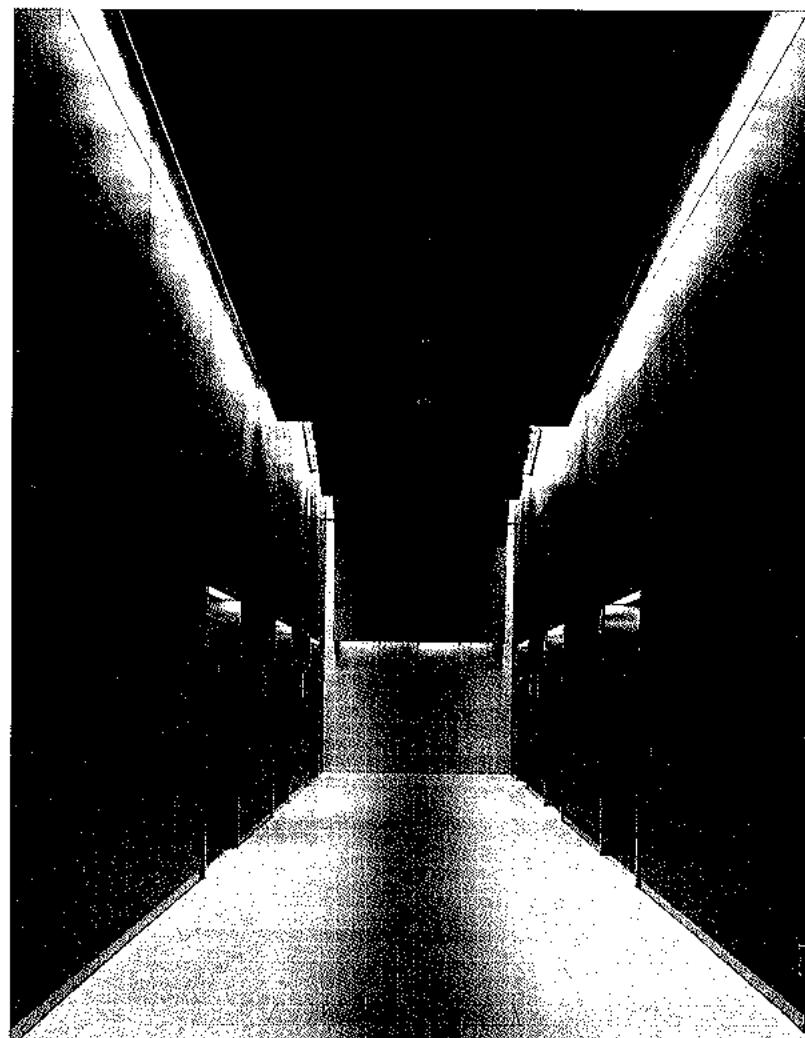




배치도

건축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번지외 8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대지면적	3,351.70m ²
건축면적	1,288.09m ²
연 면 적	57,020.51m ²
건 폐 율	38.43%
용적률	1,102.24%
규 모	지상 35층, 지하 7층
외부마감	커튼월(AL.+SST.+GLASS)
내부마감	바닥 - 라임스톤, 카펫타일 벽 - 미라톤, 수성페인트
구 조	지하 - 철골철근콘크리트 지상 - 철골구조 + 가새골조
설계담당	김갑수, 김혜란, 홍광기, 김재국
설계기간	1993년 1월~1999년 2월
공사기간	1993년 1월~2001년 12월
기계설계	한일M.E.C +F.K
전기설계	한양전설 + F.K
소방설계	미동엔지니어링 + F.K
구조설계	동양구조 + WEIDLINGER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본상

포스코 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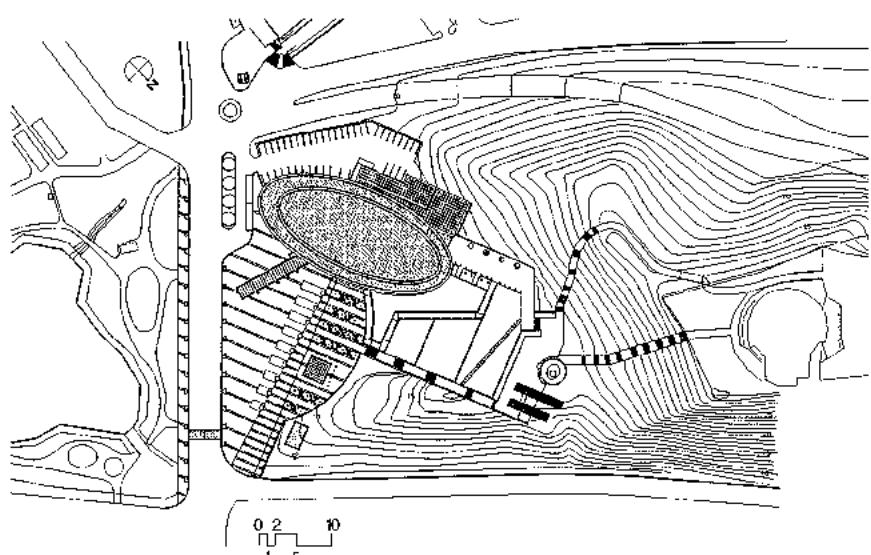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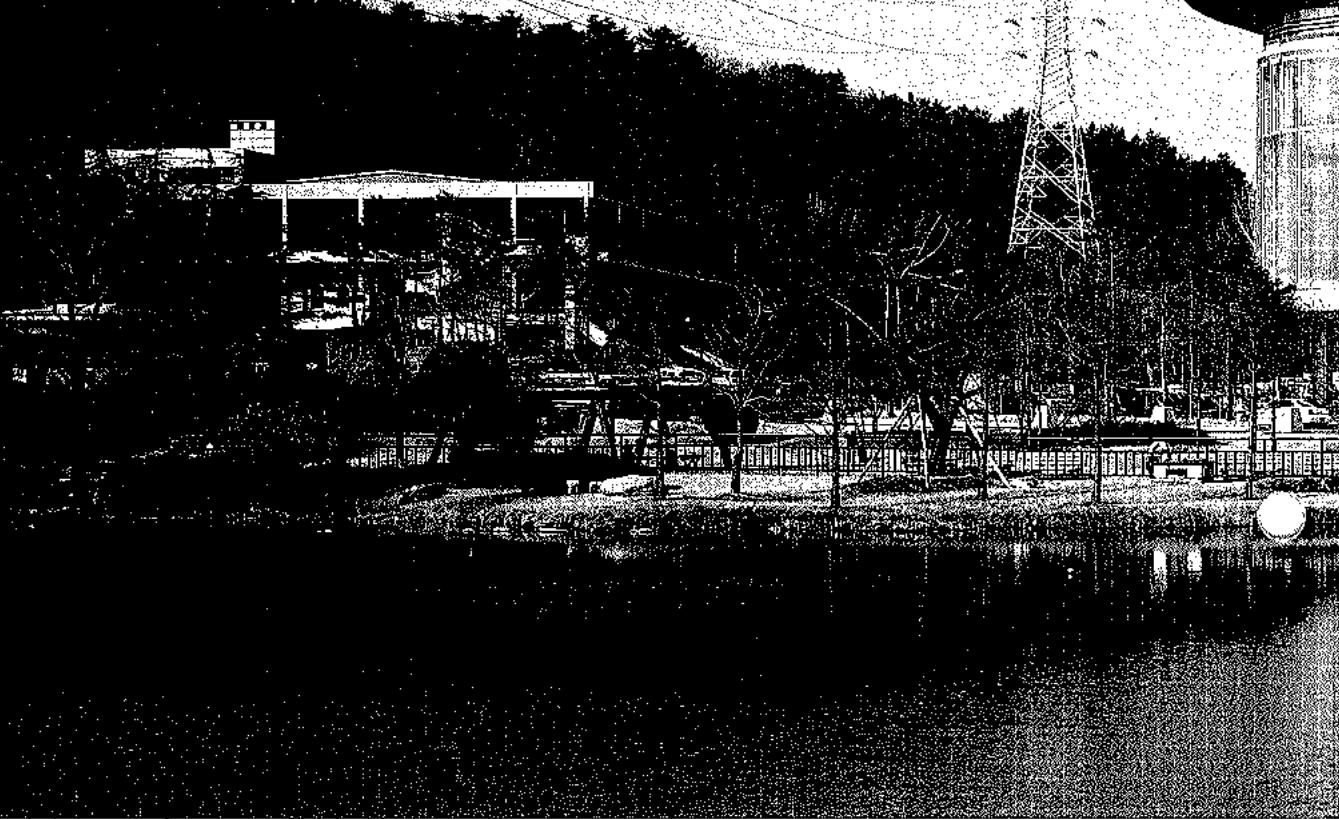
Posco Historic Museum

설계자 | (주)간접파트너스중합건축사사무소 이광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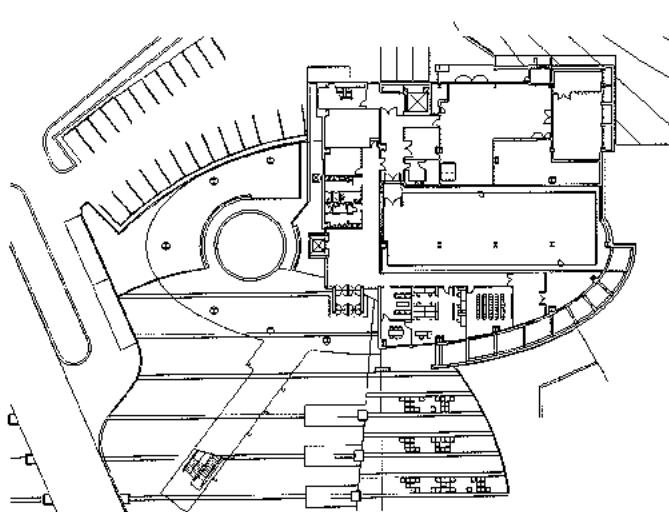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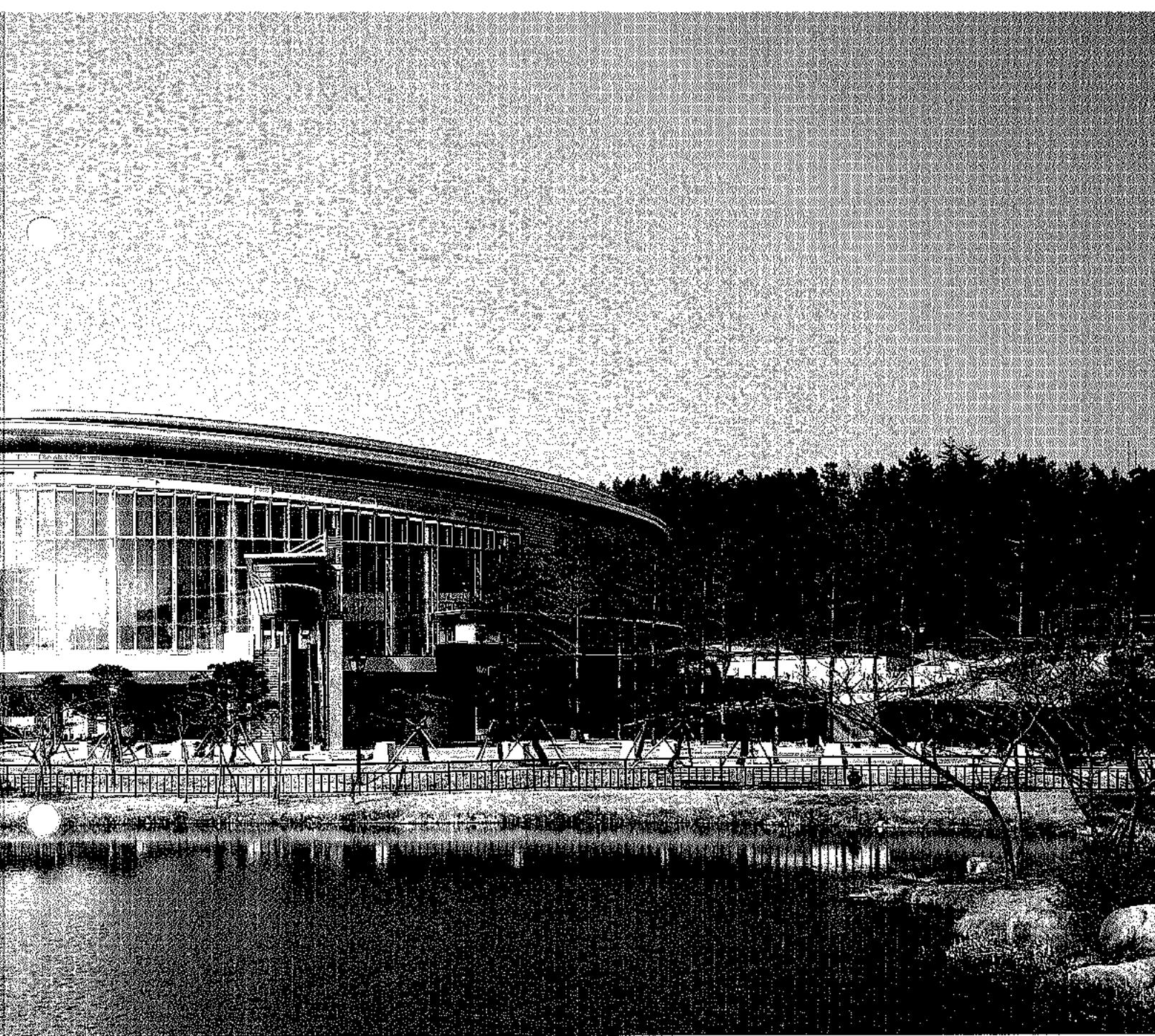
시공자 | (주)포스코건설

(주)포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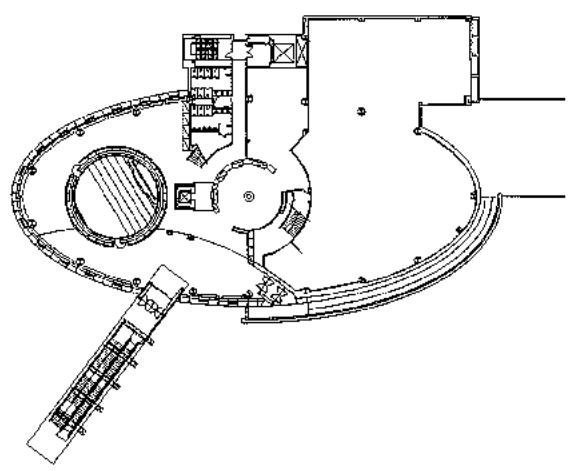
(건축사지 0307호 개제)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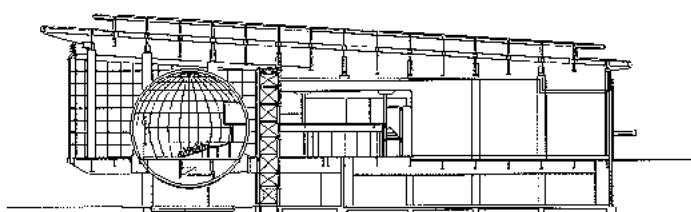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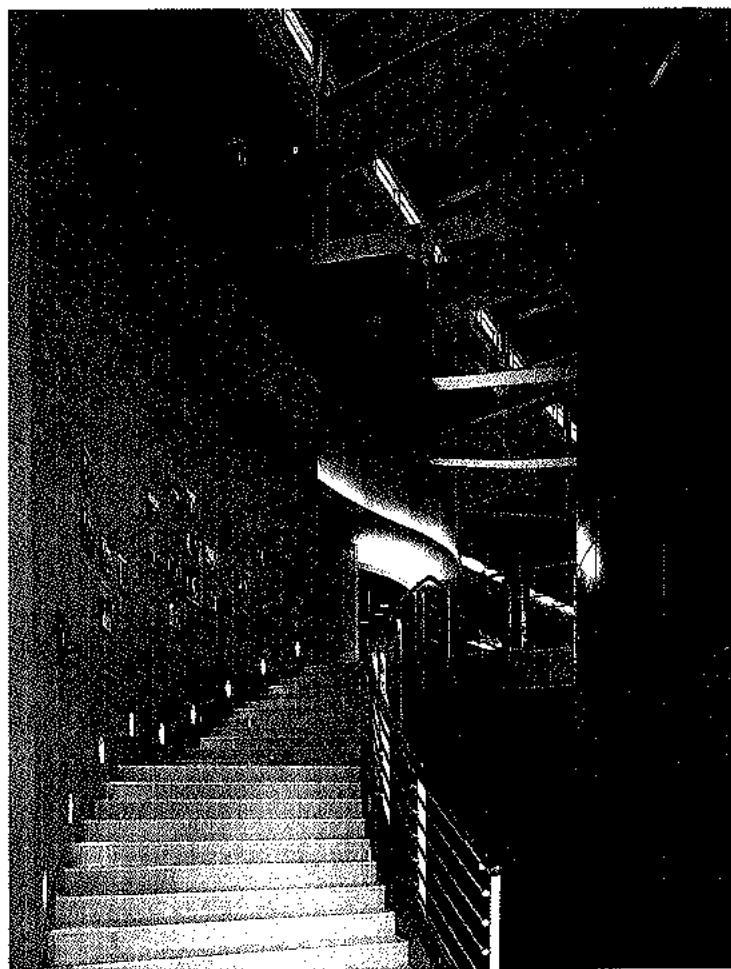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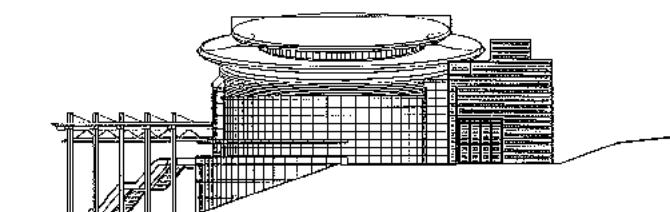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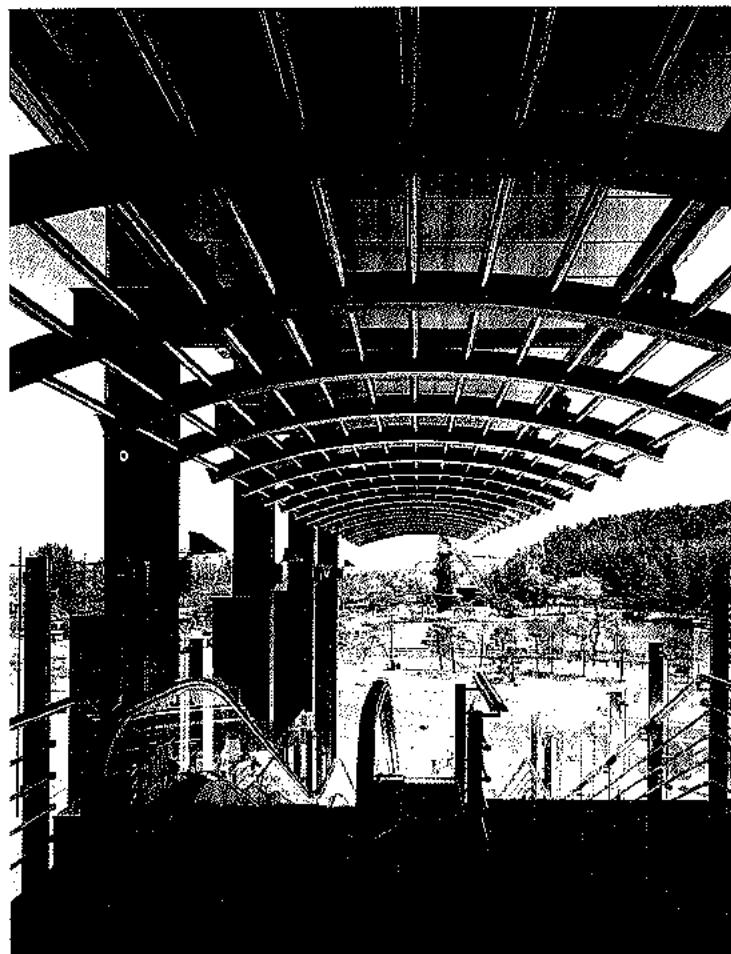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과동동 1-10번지 외 5필지
지 역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10,143.21m ²
연 면 적	3,736.28m ²
건축면적	2,344.93m ²
조경면적	2,575.46m ²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건 폐 율	23.12%(법정 70%)
용 적 률	36.84%(법정 400%)
주차대수	8대(옥외 38대)
총 수	지상 4층, 옥탑 1층
최고높이	23.90m
구조종별	철골조
외부마감	T:10 STS, H/C PANEL(OPEN JOINT TYPE) T:0.5 STS PL (446M DULL FINISH) T:15 강화유리
내부마감	THK 40mm 시멘트몰탈 / THK 20mm 대리석 악세스 플로어 / THK 6mm 카펫타일 50×50 ST L PIPE / THK 2mm ST L PL 불소수지 도장 / 경량철골천정틀 / THK 9.5mm 석고보드 2겹 위 <u>비닐페인트</u>
설계담당	김병현, 서승완, 노태근, 박훈석, 윤하룡, 이순원, 강동균, 고윤영
시 공 자	(주)포스코건설
감 리	문수남, 이상락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횡단면도



복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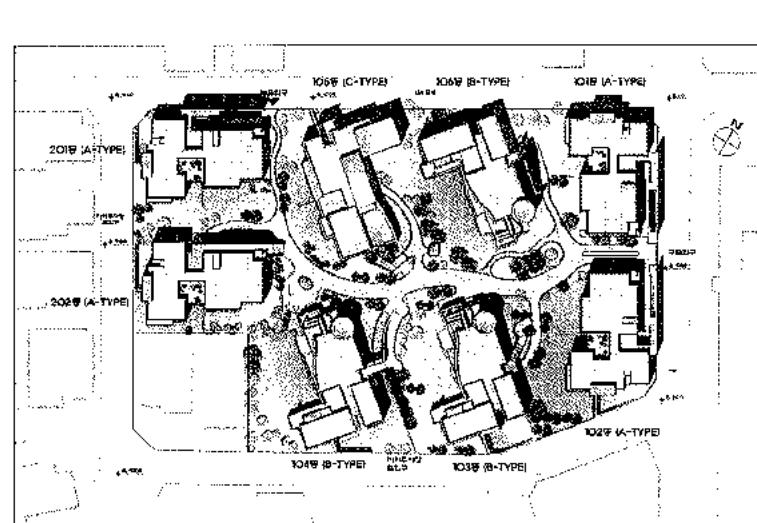
코오롱 R&F 빌라

Kolon R&F Villa

설계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목(A&A) (주)

시공자 | 코오롱건설(주)

건축주 | 코오롱건설(주)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0-4외 2필지

지역 도시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용도 공동주택

대지면적 5,550.10m²

건축면적 1,957.39m²

연면적 6,773.02m²

건폐율 35.27%(법정 50%)

용적률 56.66%(법정 100%)

규모 지하 2층, 지상 2층

세대수 24세대(전용 60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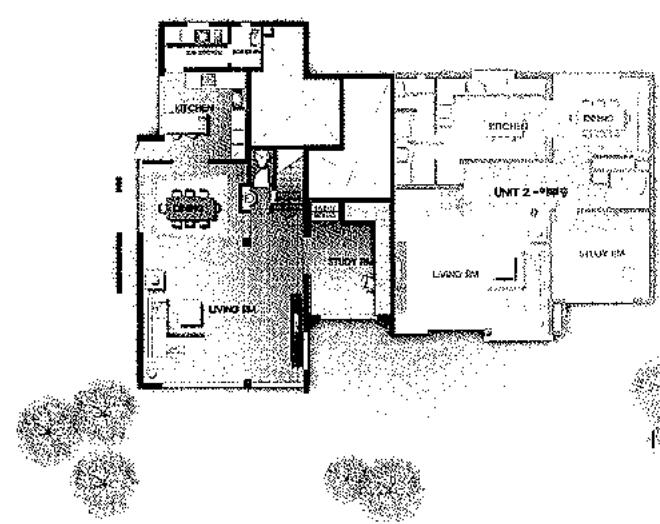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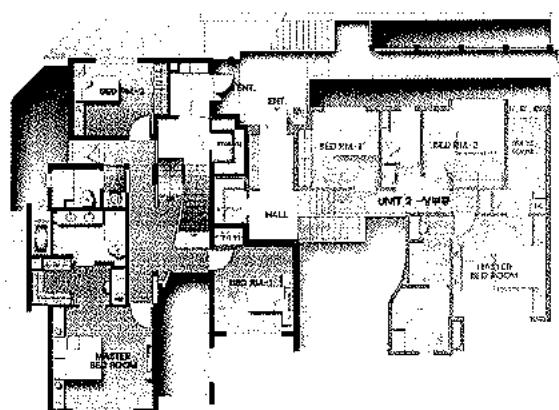
복층형 - 16개동

단층형 - 8개동

외부마감 호주산 벽돌, 척삼목, VM ZINC

내부마감 온돌마루, 대리석, 천연 페인트, 지정 벽지, 민예벽타일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타입평형 상층부

A타입평형 하층부

2003 한국건축학회 대상 준우수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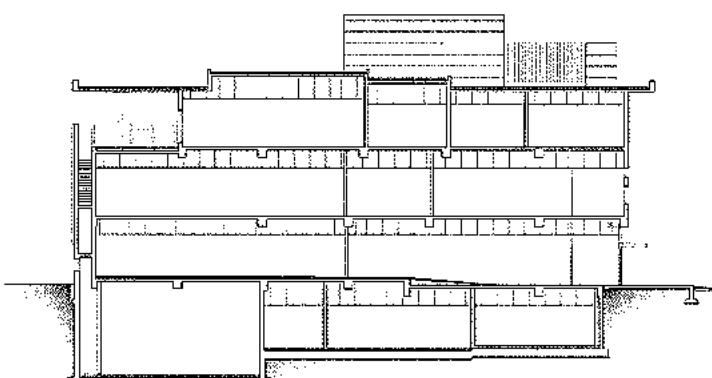
노원 어린이 도서관 Nowon Children's Library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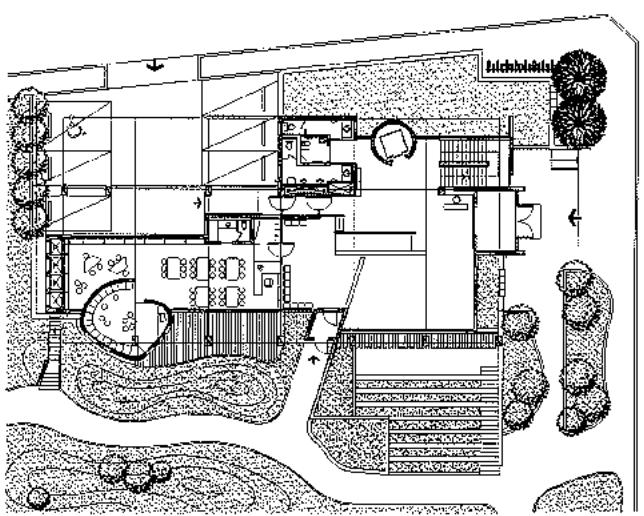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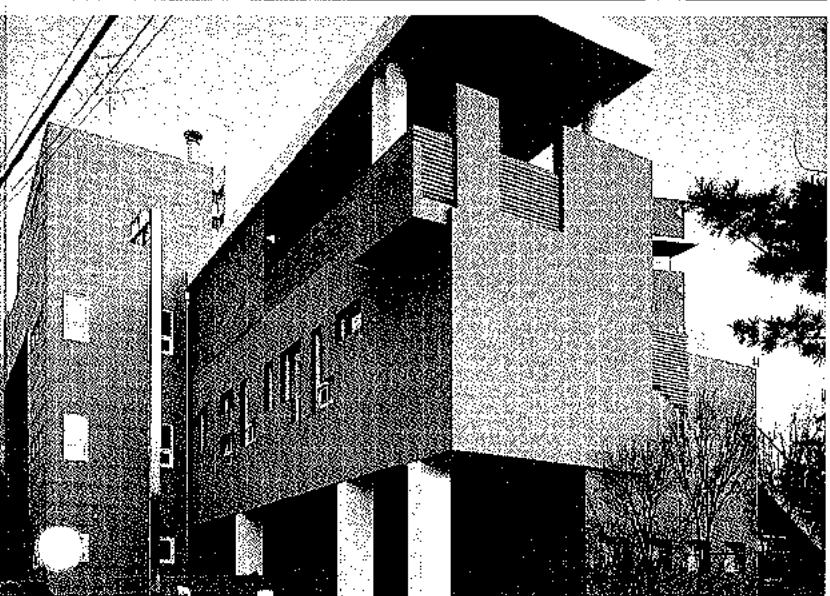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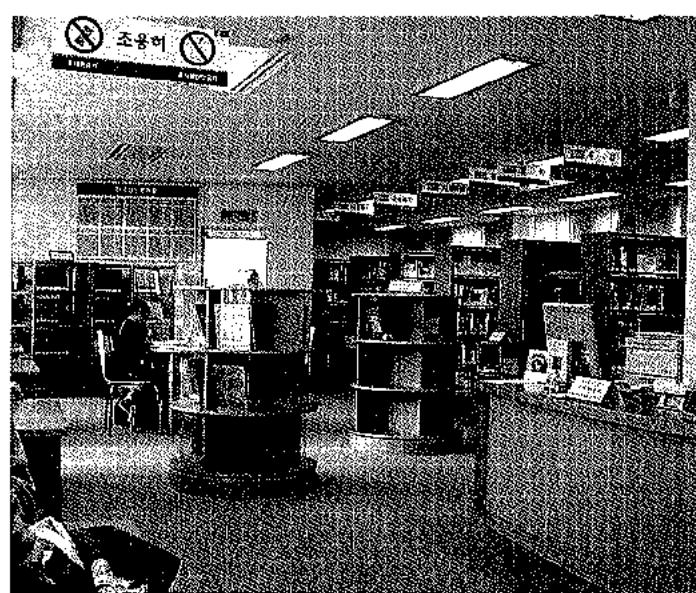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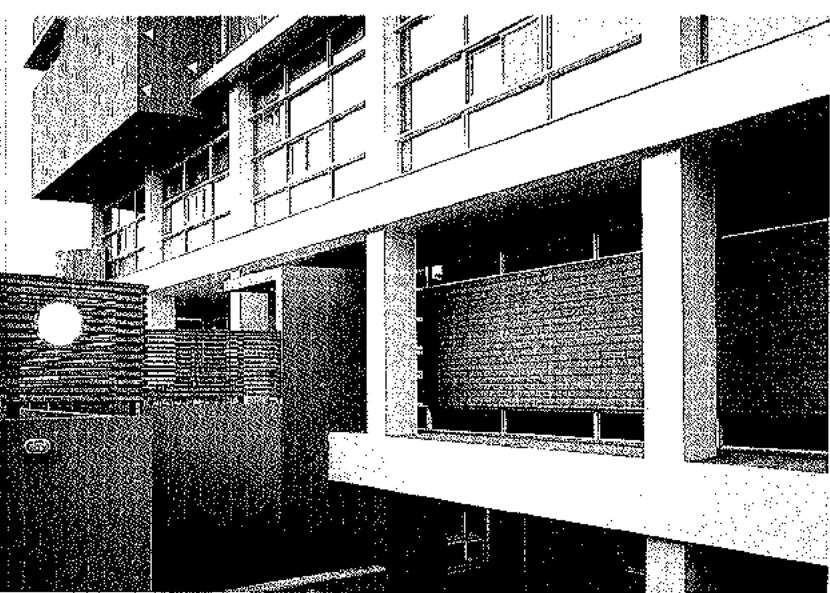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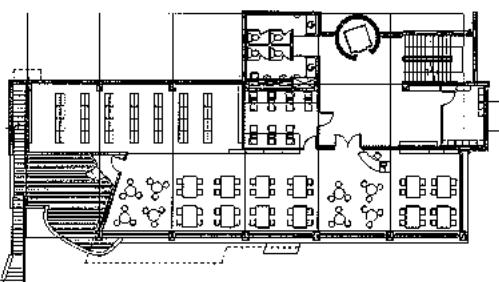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계동 356 삼각봉 근린공원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
대지면적	10,652.9m ²
건축면적	390.78m ²
연면적	1,275.53m ²
건폐율	3.87%
용적률	8.43%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세라트, 방부목, 아연도강판 위 볼소코팅
설비	FCU, 패널히팅
주차대수	6대(장애인용 1대)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횡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입선

포스틸타워

POSTEEL Tower

설계자 | (주)포스에마씨종합기획건축사사무소 심성보

시공자 | (주)포스코건설

건축주 | (주)포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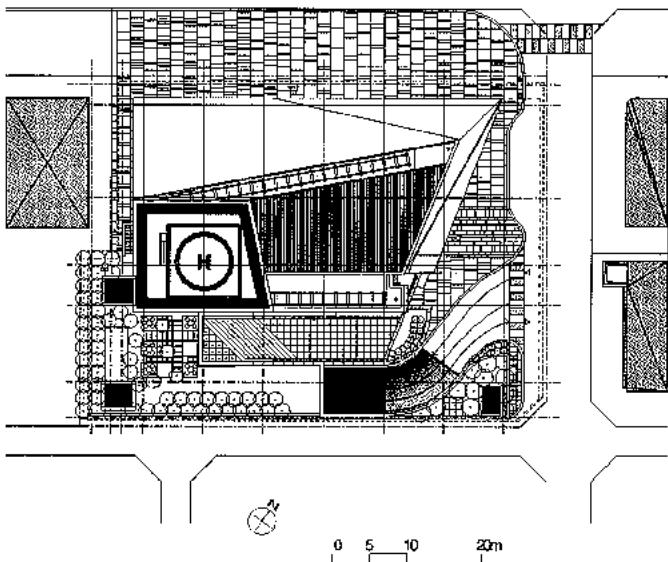
글 리쉬채널

내부화장실
내부화장실
내부화장실
내부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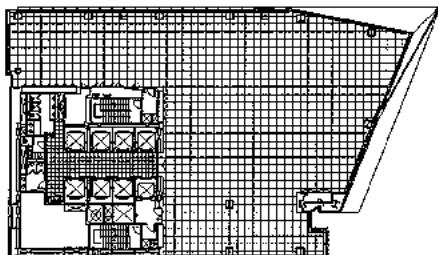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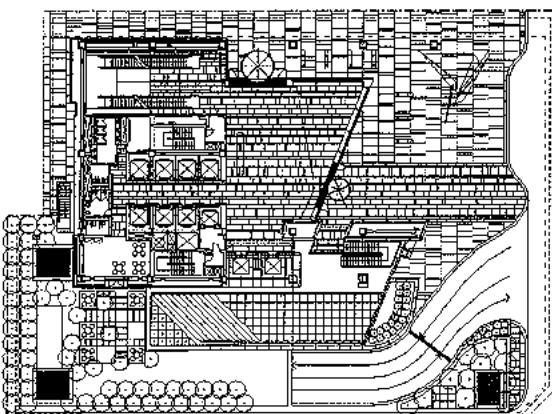
위 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3번지 외 4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1종미관, 도시설계 지구
용 도	업무시설, 근생시설
대지면적	2,874.00m ²
건축면적	1,236.90m ²
연 면 적	43,298.10m ²
건 폐 율	43.04%
용 적 률	995.30%
조경면적	455.08m ²
주차대수	192대 (장애인자용 6대포함)
규 모	지하 6층, 지상 27층(옥탑1층 포함)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지하) + 철골조(지상)
최고높이	132.64m
외부마감	커튼월(AL+GLASS+SST), SST. 패널(OPEN JOINT 시스템)
내부마감	사무실 : 바닥- ACCESS FLOOR, 카펫타일 벽- STL 패널(PE 소부도장) 천정- STL 유공패널(시스템 천정) *인테리어 마감은 별도참조
설 비	각층공조- 컨백터+천정공조, 냉축열 시스템
설계담당	김두오, 유석하, 조봉섭, 민두진, 최광일, 최진우, 김태완, 박승석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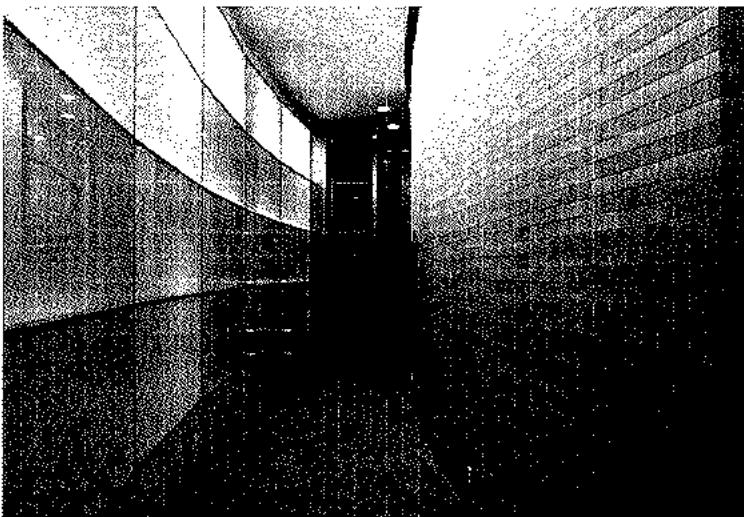
배지도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서울시민안전체험관 Seoul Civil Safety Experience Center

설계자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립

시공자 | 현대산업개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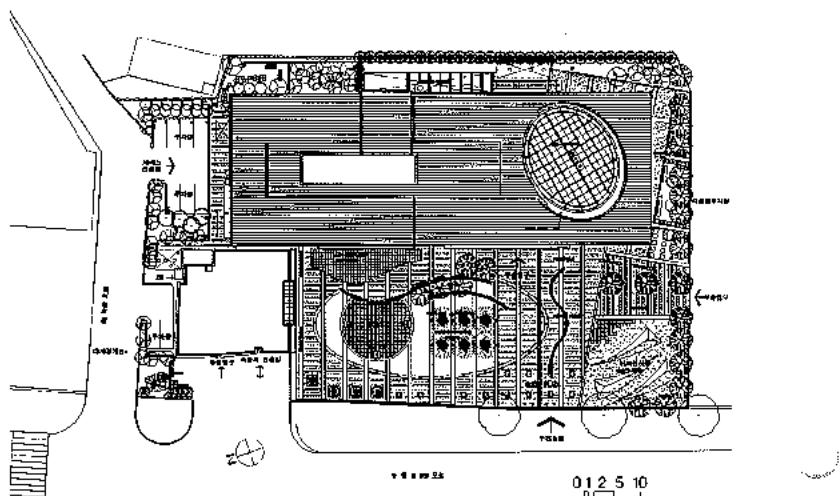
건축주 | 서울특별시

(건축기준법 제590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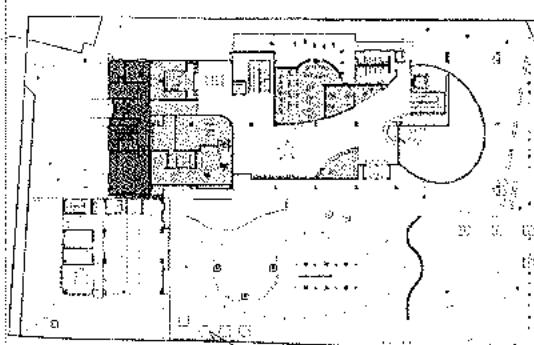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번지 어린이대공원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일부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용도	전시 및 체험시설
대지면적	5,041.6m ²
건축면적	1,795.2m ²
연면적	5,444.5m ²
건폐율	35.6 %
용적률	82.16 %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THK0.7 티타늄아연판, THK3 A.L. Sheet, THK24 복층유리, 로이복층유리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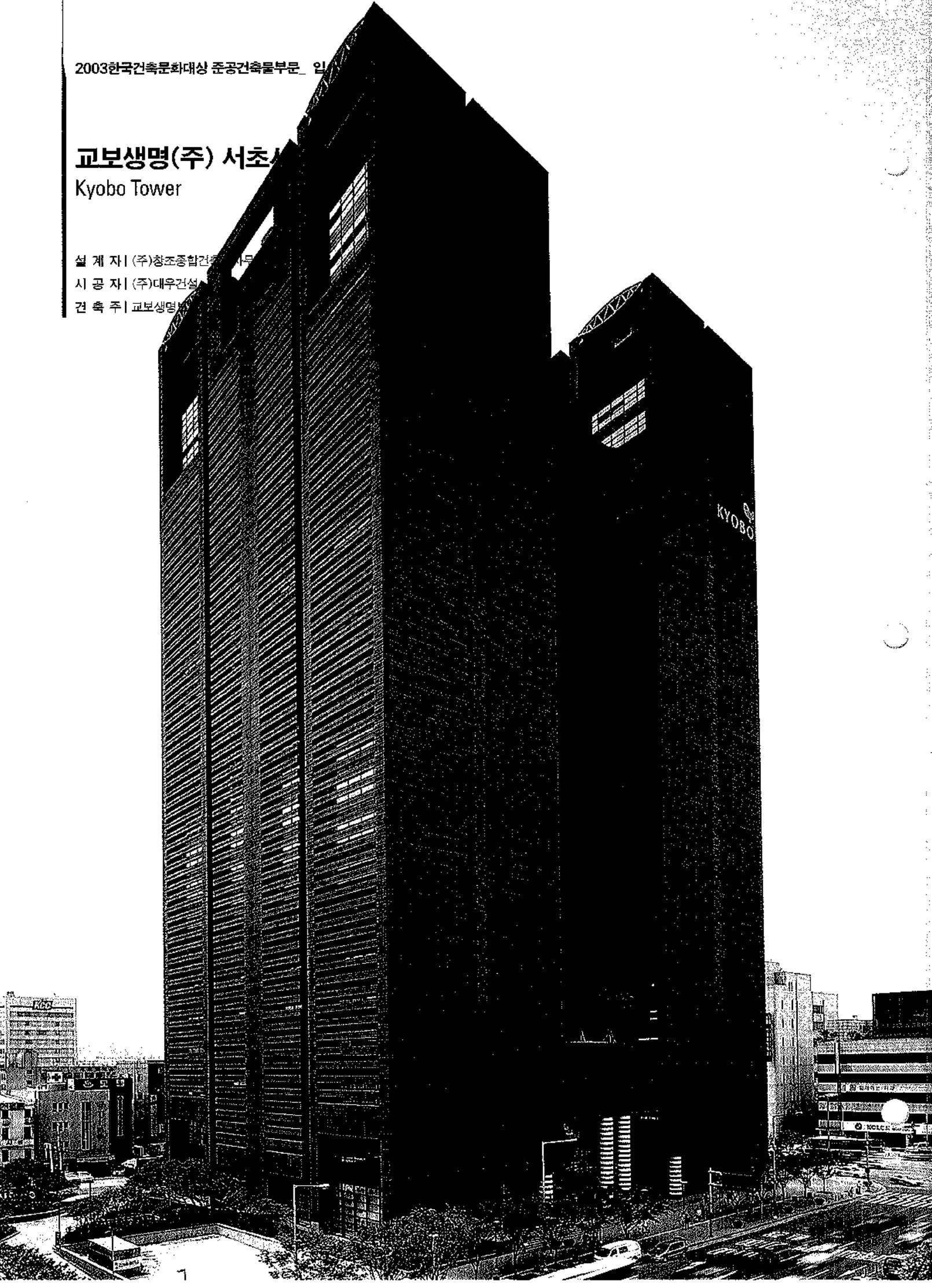
교보생명(주) 서초

Kyobo Tower

설계자 |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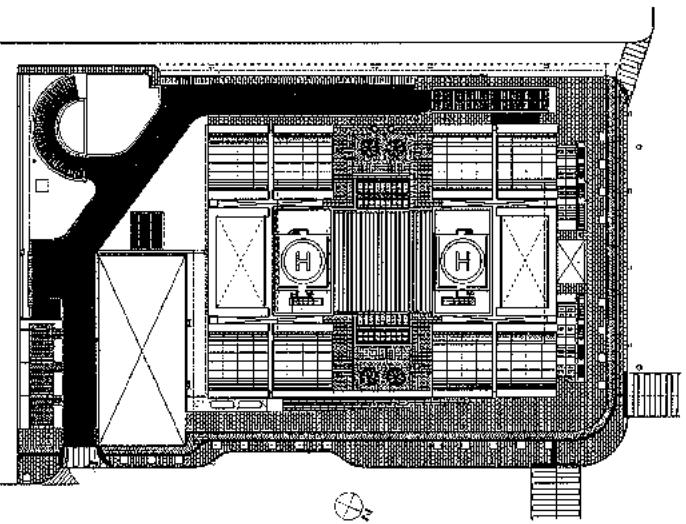
시공자 | (주)대우건설

건축주 | 교보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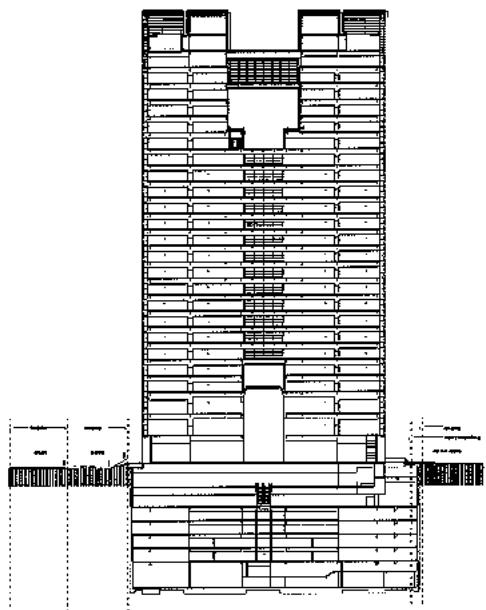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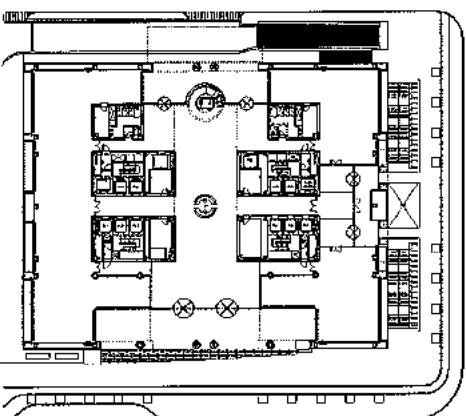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의 6필지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6,770.20m²
건축면적 3,042.38m²
연면적 92,717.58m²
주차대수 395대
규모 지하 8층, 지상 25층
외부마감 TPC CURTAIN WALL - 벽돌(TPC-RED)
AL CURTAIN WALL - 색상(BLACK)
내부마감 바닥 - 쇠흙순마감 + OA FLOOR + CARPET TILE
벽 - 석고보드 + 수성페인트
천정 - 경락철골 천정틀(모듈바) + 암면홀옵티스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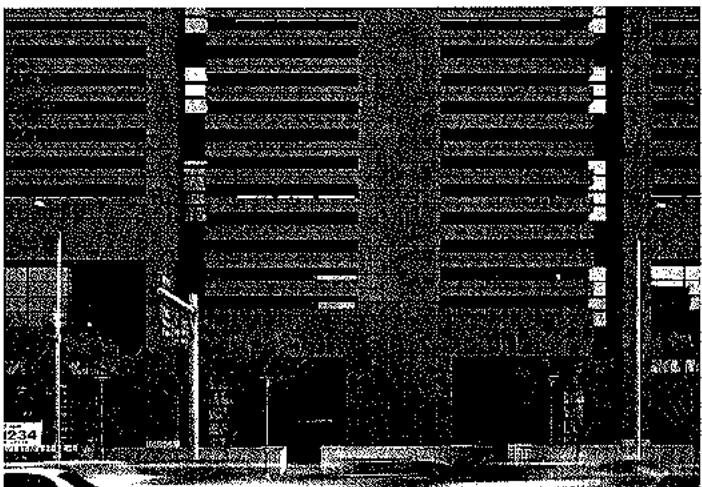
배치도



횡단면도



1층 평면도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전시회

경기대학교

Kyonggi Univ.

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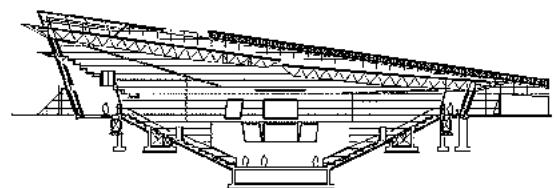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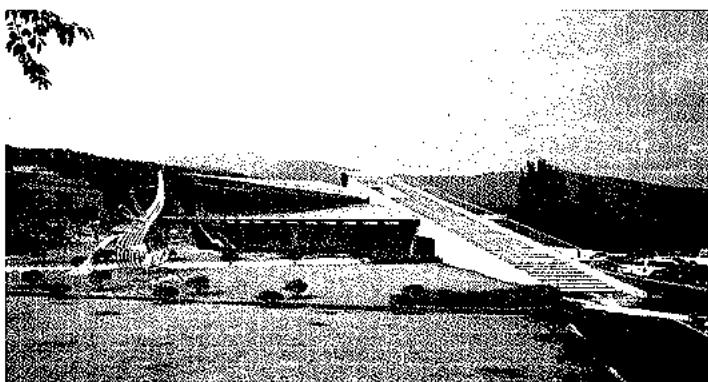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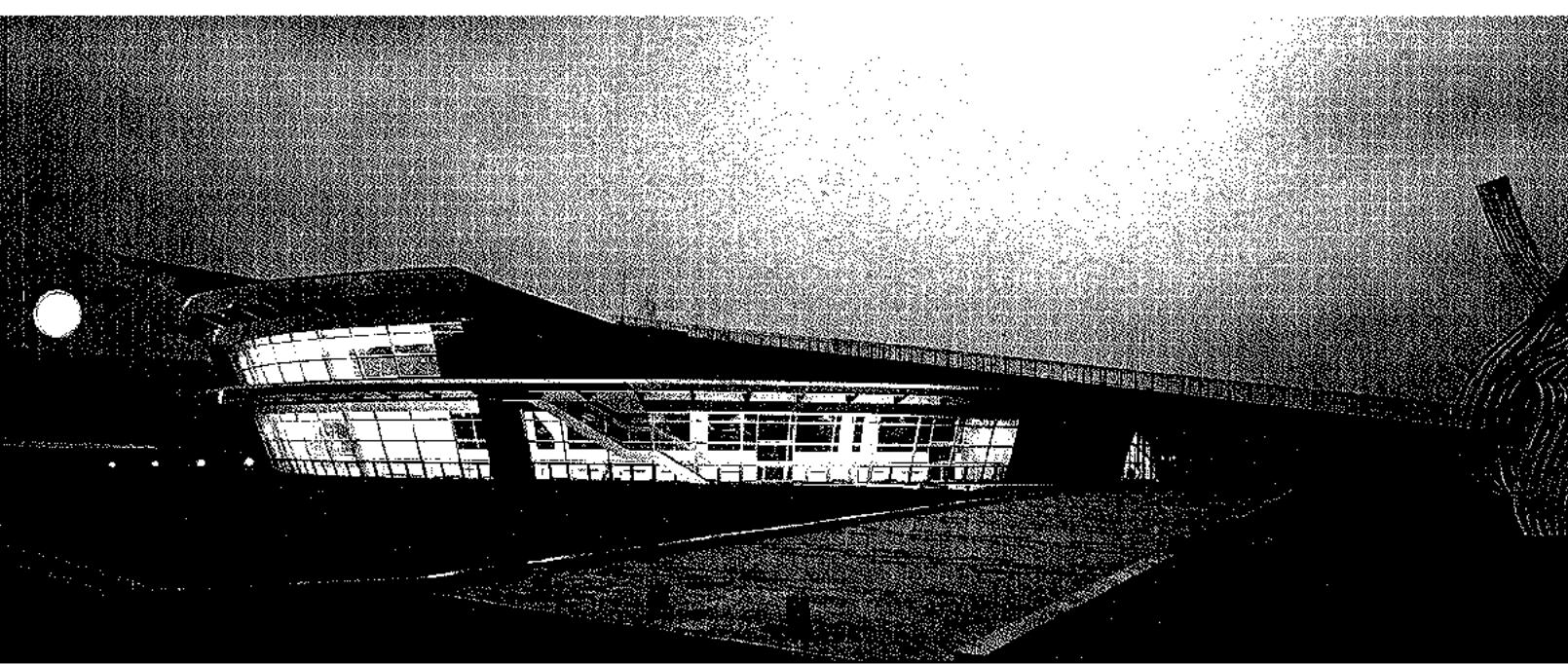
Telecom

설계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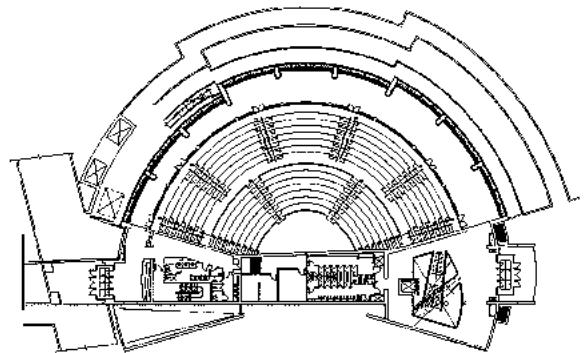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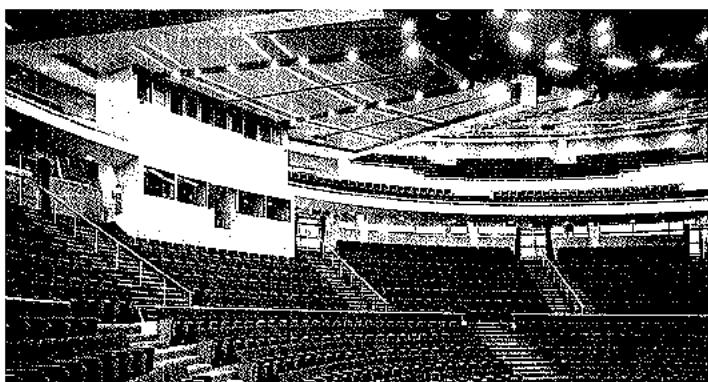
시공자: 주

건축주: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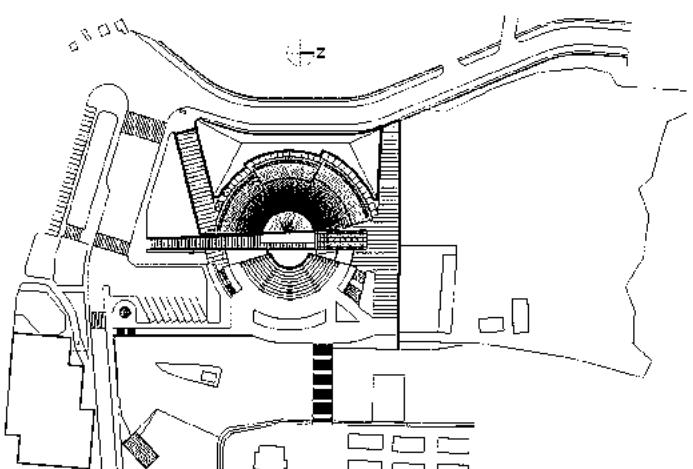
횡단면도



1층 평면도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393,857m ²
건축면적	2,712.32m ²
연 면 적	4,827.25m ²
주차대수	876대
규 모	지하 2층, 지상 2층
구 조	SRC=트릭스
외부마감	샌드블라스티드, 티타늄RIB패널
내부마감	비닥 - 화강석 + 카페트 벽, 천장 - 알루미늄 유공패널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협회상

일산 라페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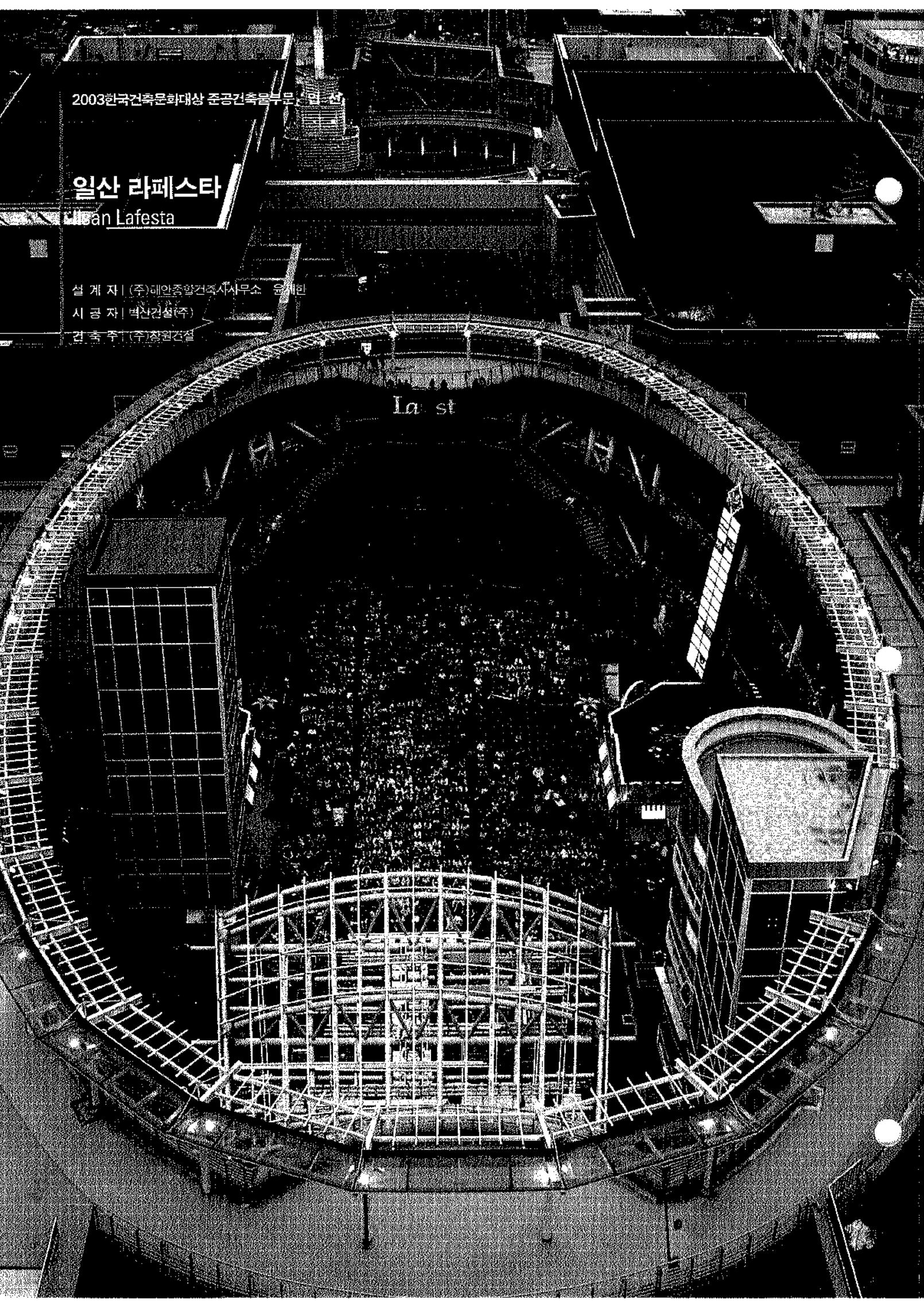
Ilasan Lafesta

설계자 | (주)대안중합건축사사무소 윤재한

시공자 | 벽산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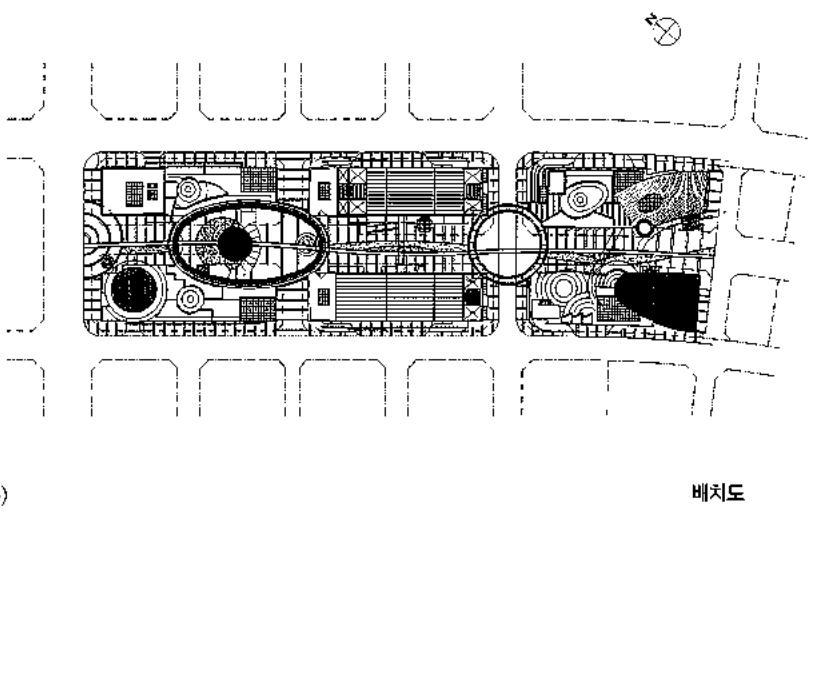
건축주 | (주)자원건설

Lafe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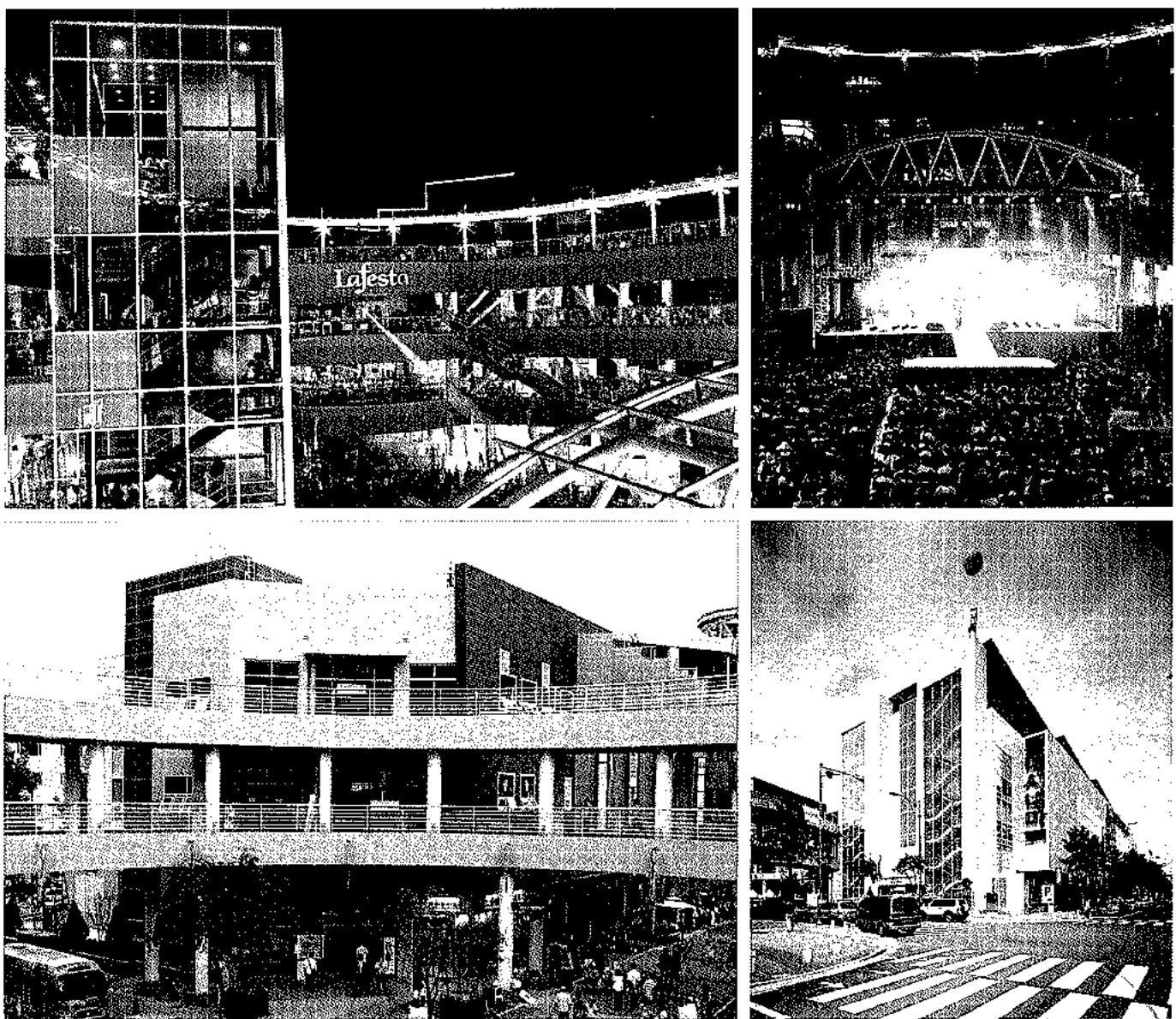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일산구 장항동 278-1외 5블럭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용 도 A동, B동(판매, 균생) C동, D동(판매, 균생, 문화집회)
E동(판매, 균생, 업무) F동(판매, 균생)
대지면적 A동(9,928㎡), B동(3,376㎡), C동(3,806㎡),
D동(3,455㎡), E동(3,446㎡), F동(3,806㎡)
연 면 적 A동(11,307㎡), B동(10,458㎡), C동(11,822㎡),
D동(11,420㎡), E동(12,003㎡), F동(11,434㎡)
건 폐 율 A동(73.40%), B동(74.63%), C동(83.33%),
D동(84.23%), E동(77.25%), F동(75.06%)
용 적 률 A동(207.01%), B동(219.80%), C동(226.36%),
D동(239.93%), E동(255.91%), F동(213.47%)
건축규모 A동, B동(지하1층, 지상4층) C동, D동(지하1층, 지상5층)
E동, F동(지하1층, 지상4층)
주차대수 A동(82대), B동(83대), C동(93대), D동(91대),
E동(87대), F동(91대)
구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경산교회 Gyeongsan Church

설계자 | 미래건축 건축사사무소 배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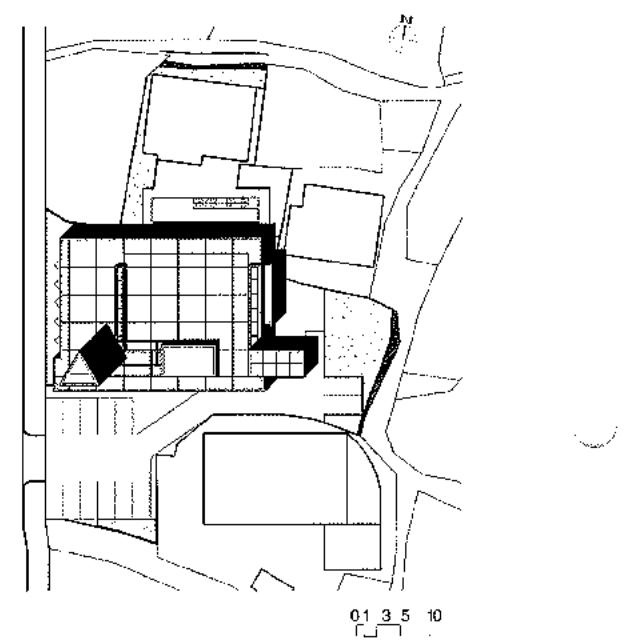
시공자 | 주식회사 선무종합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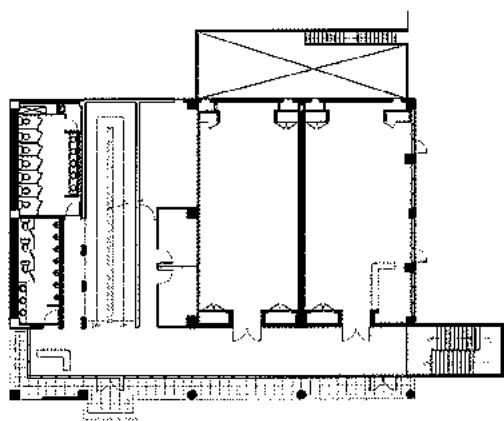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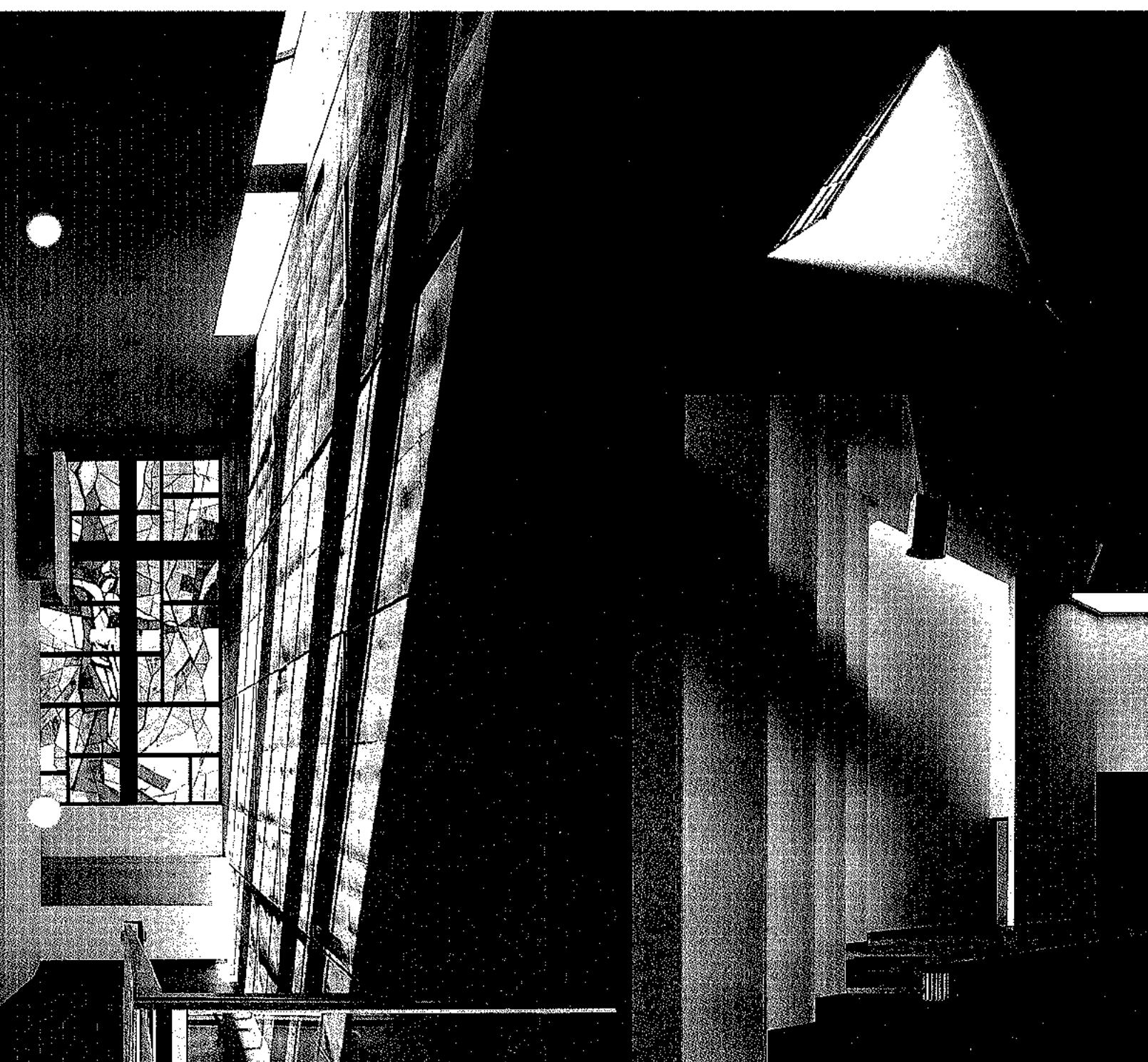
건축주 | (재)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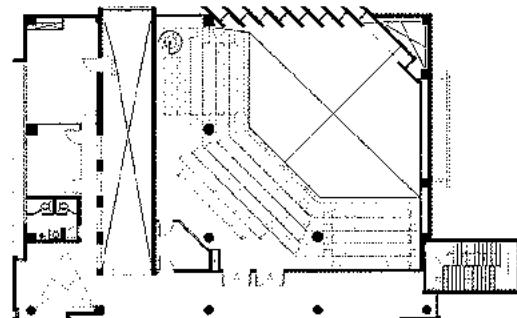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경상북도 경산시 삼복동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도로현황	25M도로에 4M접도
대지면적	1,626.99m ²
건축면적	702.44m ²
연 면 적	2,145.38m ²
건 폐 율	43.17%
용적률	100.2%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4대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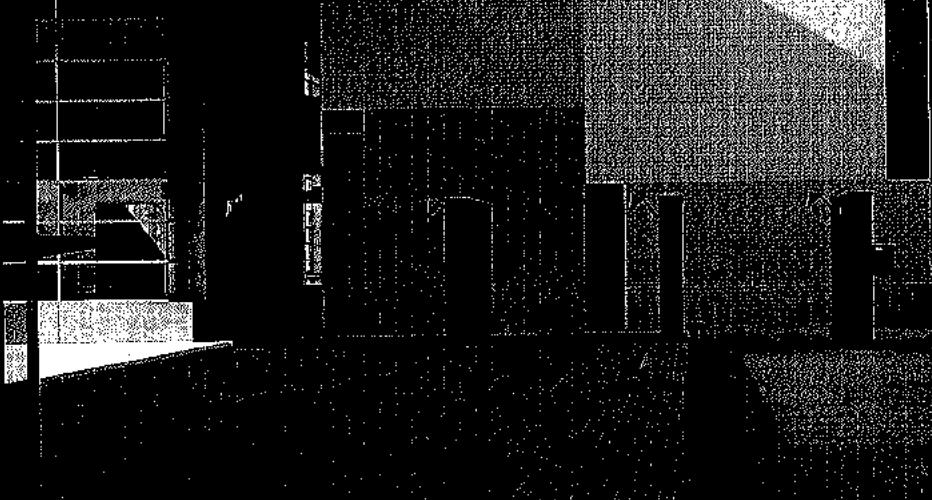
대구학생문화센터

Daegu Student Cultural Center

설계자 |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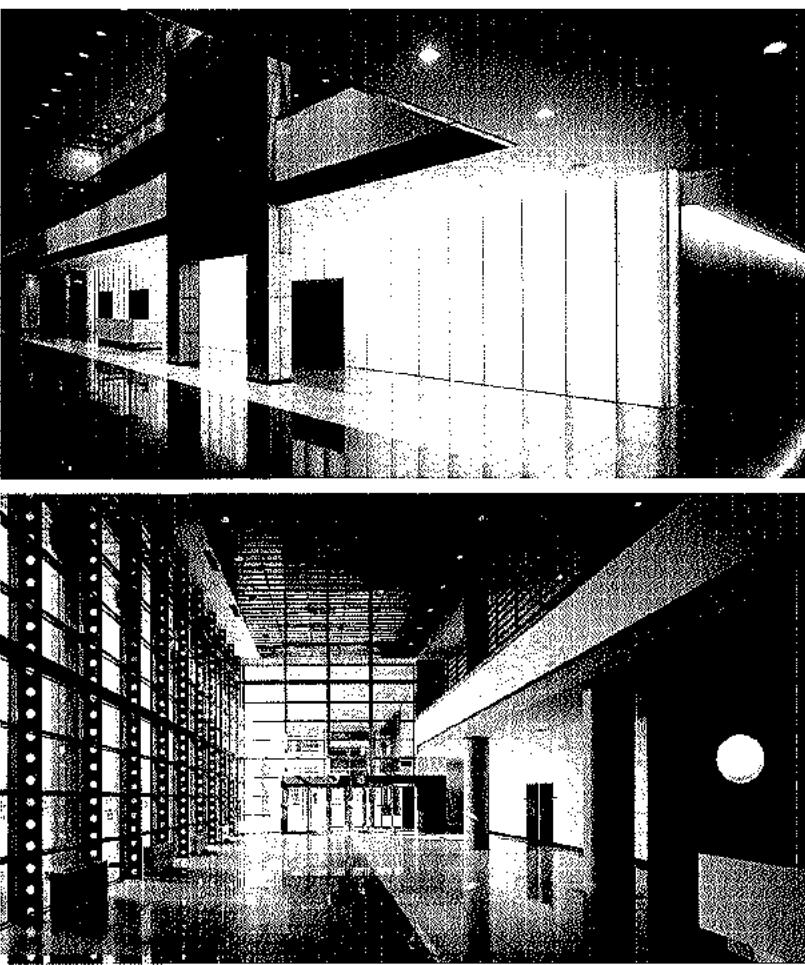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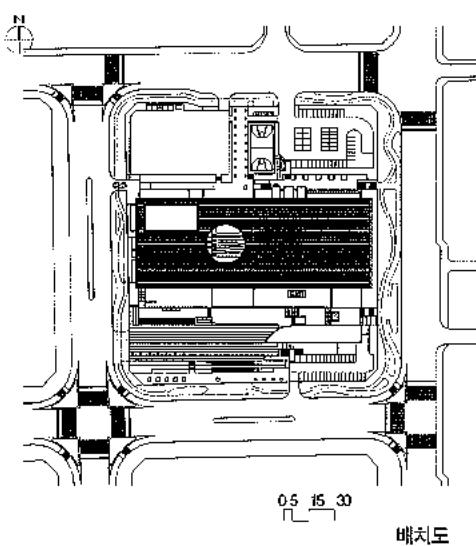
시공자 | (주)남양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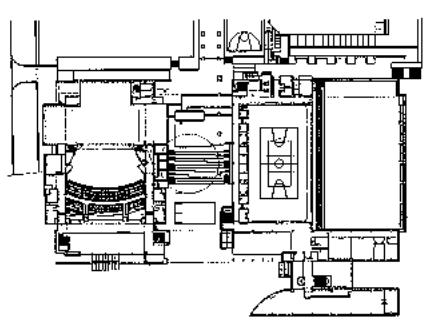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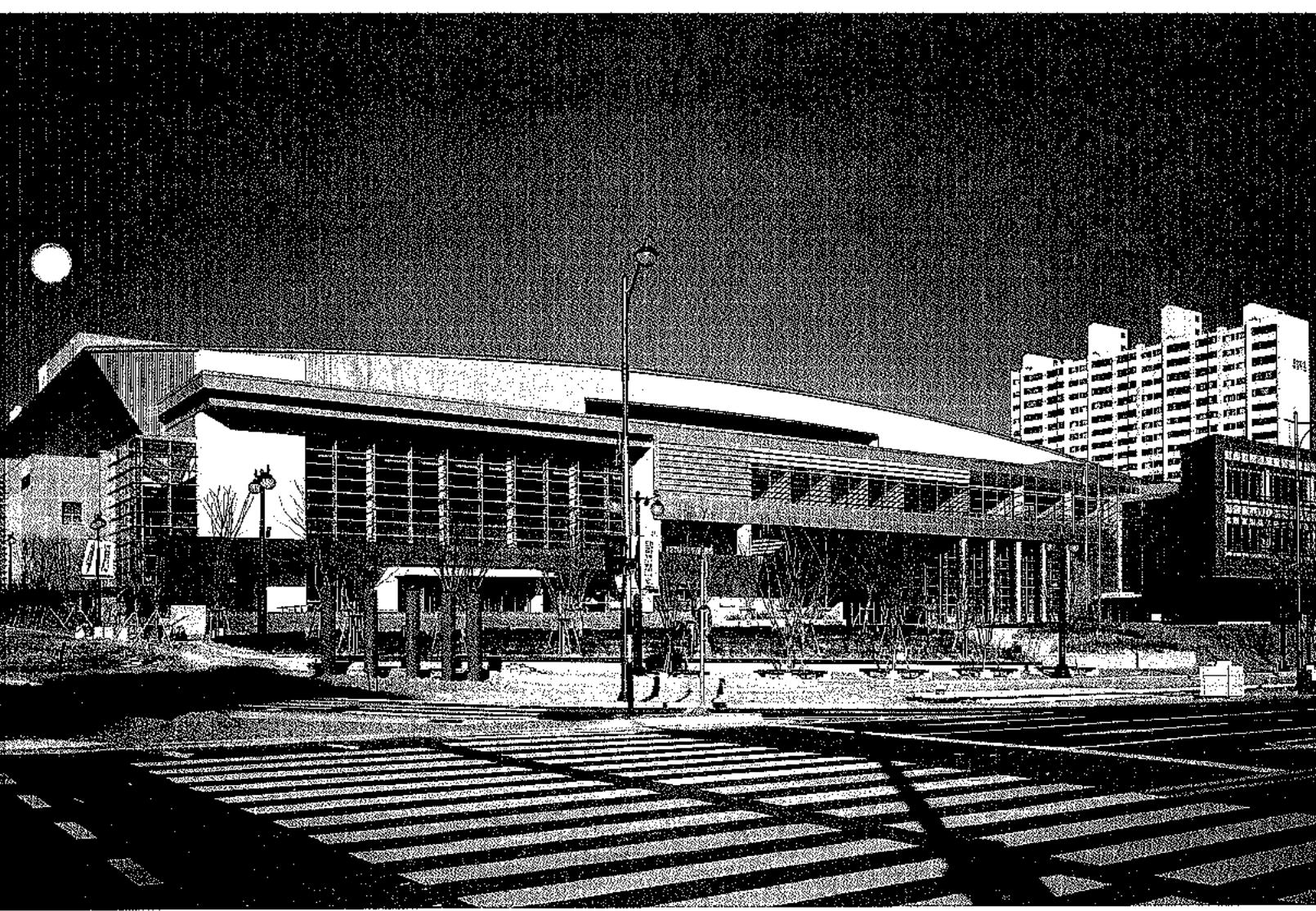
건축주 | 대구광역시 교육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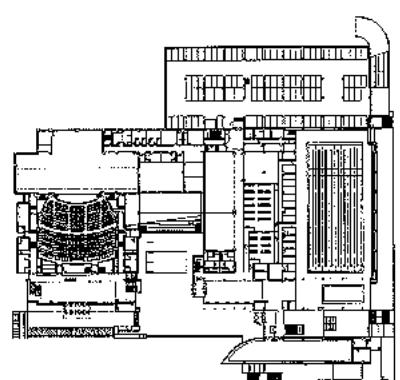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6
대지면적	25,450.71m ²
건축면적	10,593.26m ²
연면적	23,293.12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미늄쉬트, 아연도금 절곡강판, 치장콘크리트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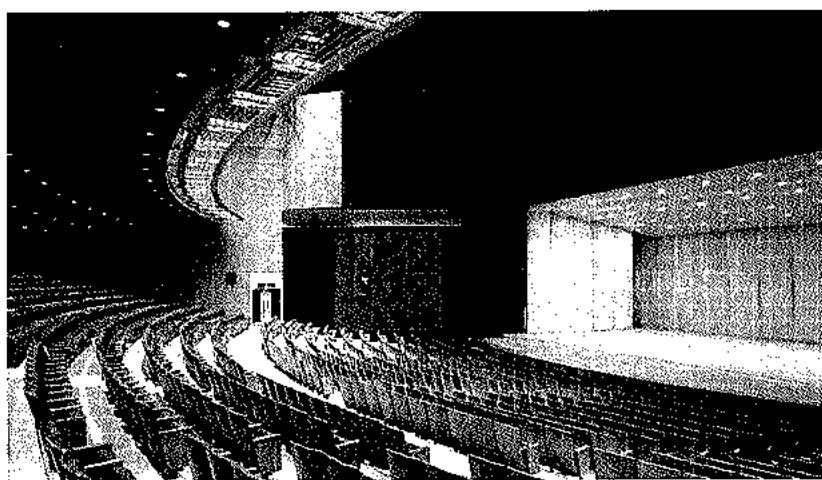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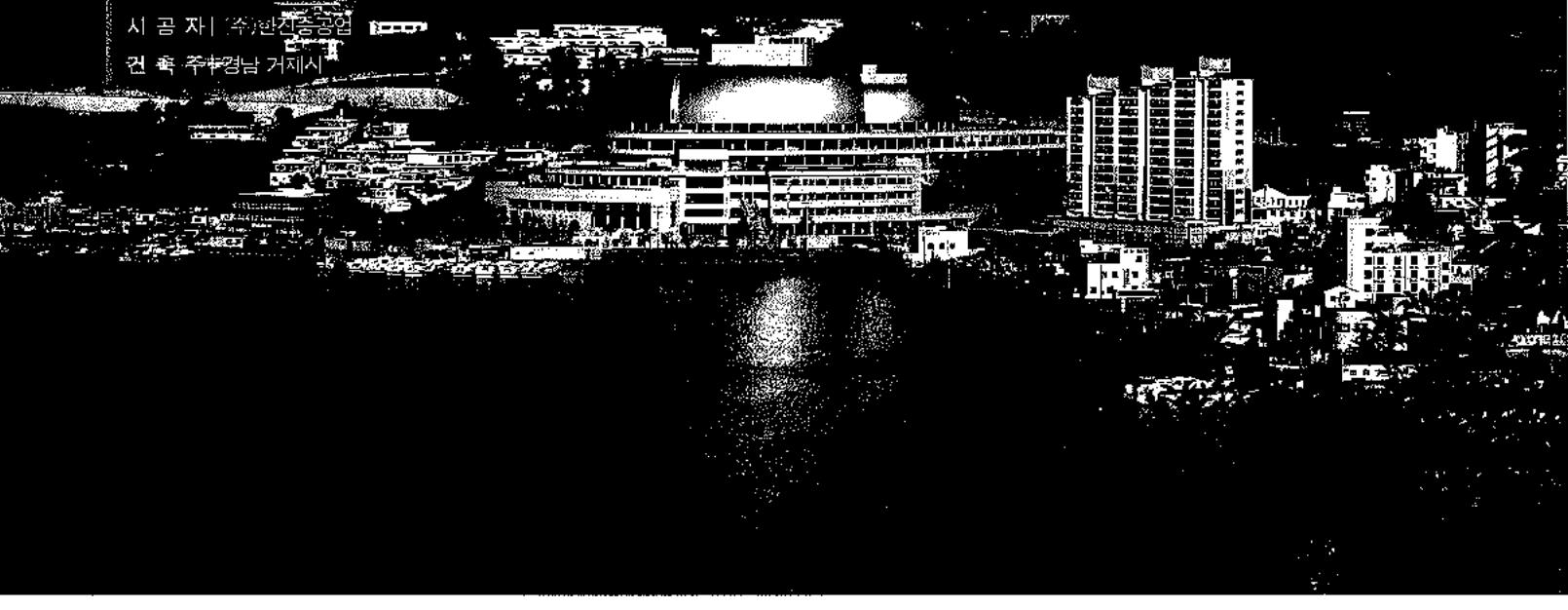
거제문화예술회관

Geoje Arts Center

설계자 | (주)아도무중합건축사사무소 잠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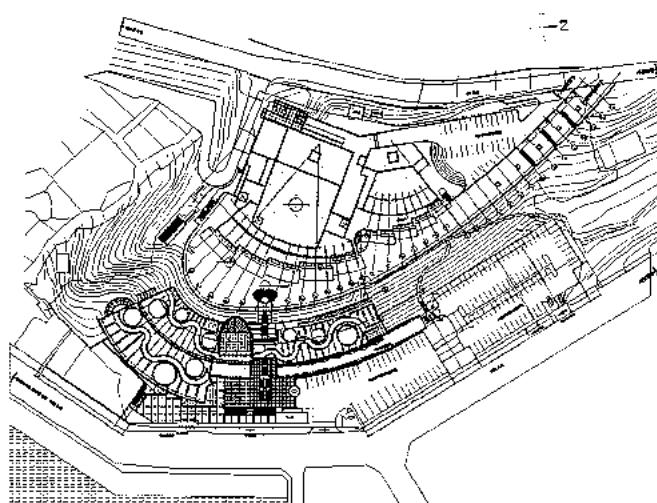
시공자 | (주)한진중공업

건축주 | 경남 거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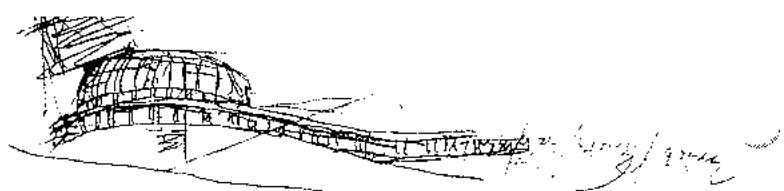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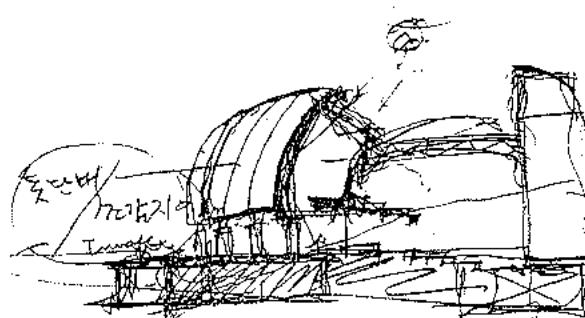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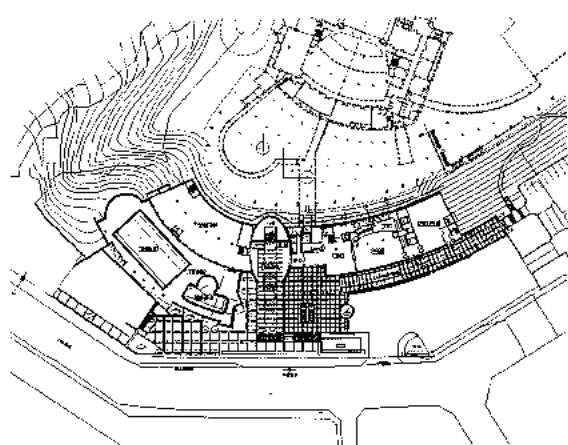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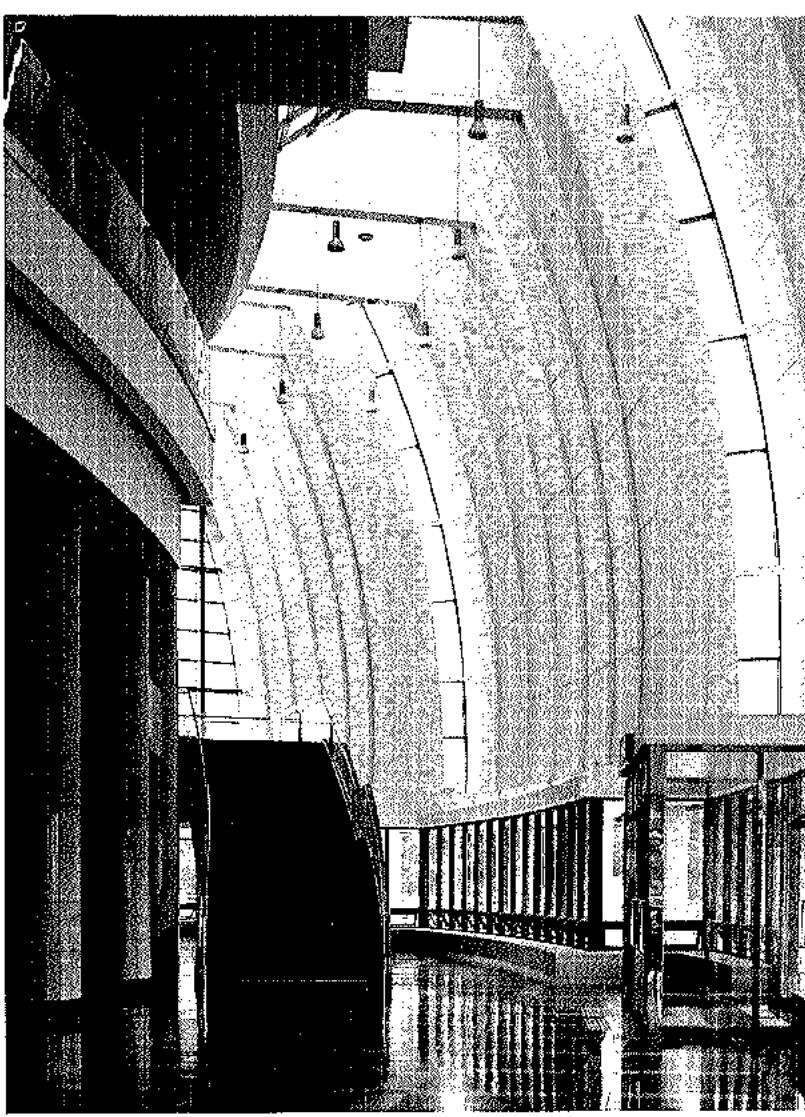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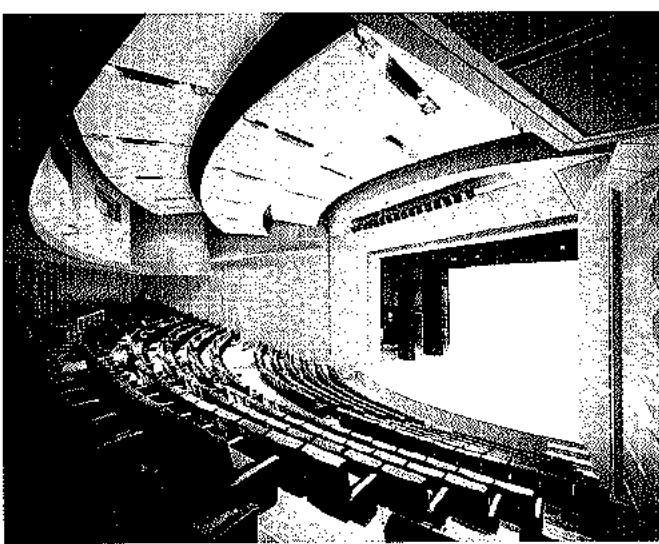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거제시 장승포동 426-33번지의 102필지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5,749㎡
건축면적	10,691.99㎡
연면적	20,243.60㎡
건폐율	41.52%
용적률	60.54%
규모	본관동 : 지하 2층, 지상 3층 별관동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스테인레스 스틸 플레이트
설계담당	최예돈, 최영재, 김규선, 전철우, 반광호, 정석호, 이기수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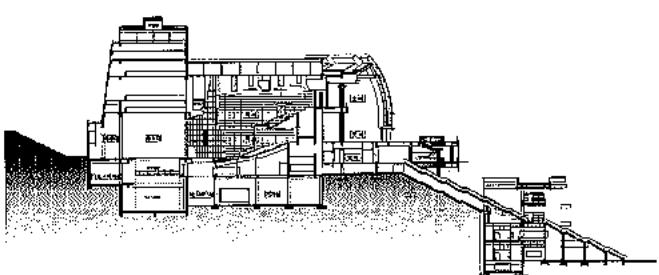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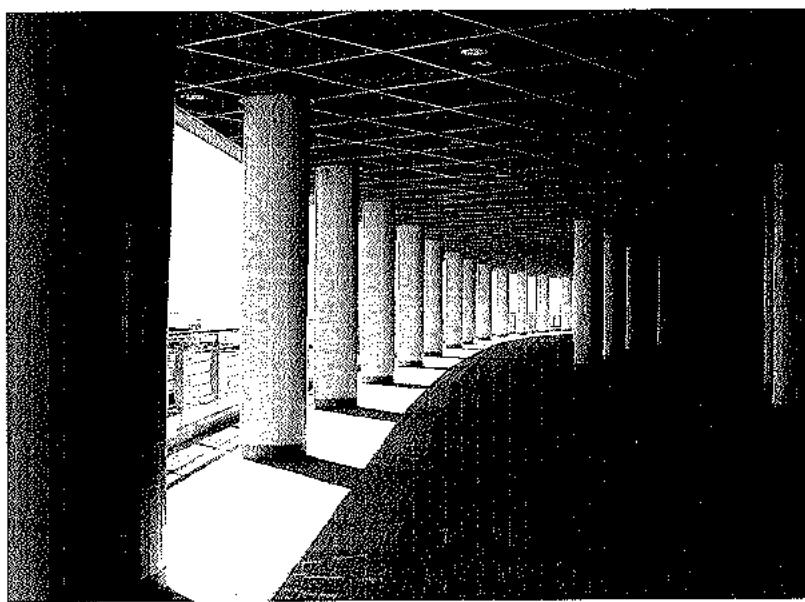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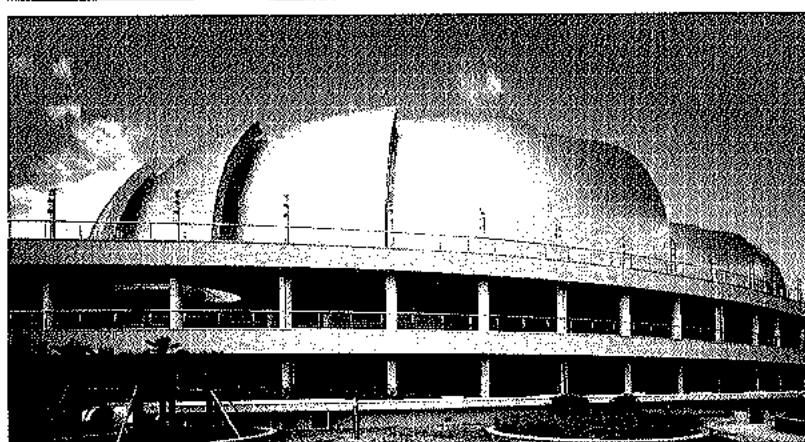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2003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3

영역, 경계 그리고 연계 | A Media of Afterimage Frame | ... and ... (해해관로거리 활성화계획) |
조례사 한국불교역사 전시관 | ON-OFF LINE ELECTRONIC MALL | 품류의 거리 “천통주점거리” |
성벽안과 밖으로의 여행 | 동학기념관 계획안 | Urban Totem - 시간의 틈 | Stay+Pass |
관체 | INVERSE |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 | Easy Contact Easy Approach |
동래문운동장 가로변 계획안 | Insert of ‘...’ | Breaking Blocks | 공원(公原)에서 공원(公園)으로 |
나도 일하고 싶다(중림동 노숙자 이용시설 계획안) |
현재로서 존재하는 과거(과거의 흔적을 이용한 곤-현대사 박물관 계획안) | 수자원 역사박물관 |
Continuity of History Castle | 놀이터로 잔 갤러리 | 기계속의 정원 | 궁중복식 전시관 |
Tug From Four Facade | 정독도서관 리노베이션 | 신화의 뒤편 : 보이드 사이의 ‘틈’

영역, 경계 그리고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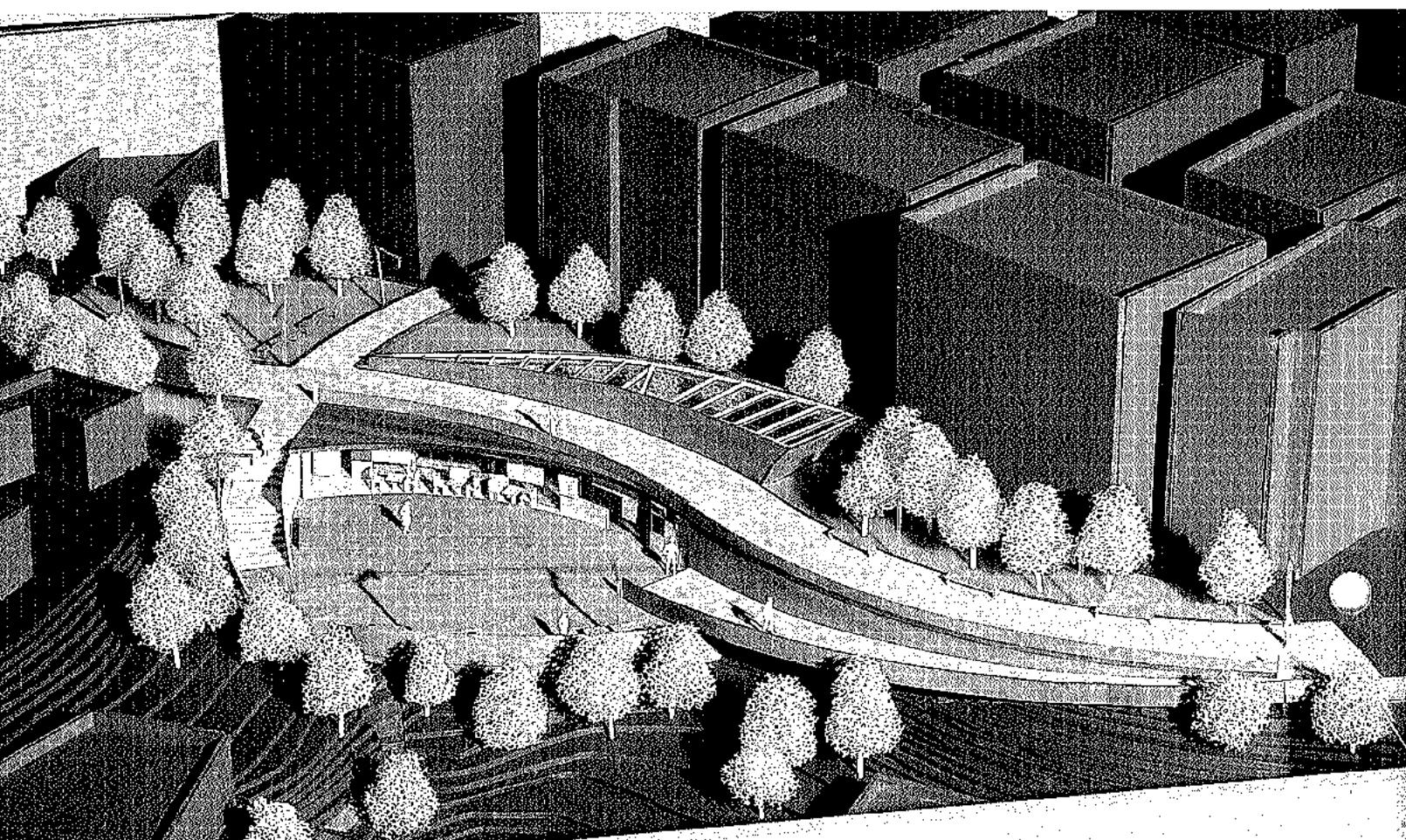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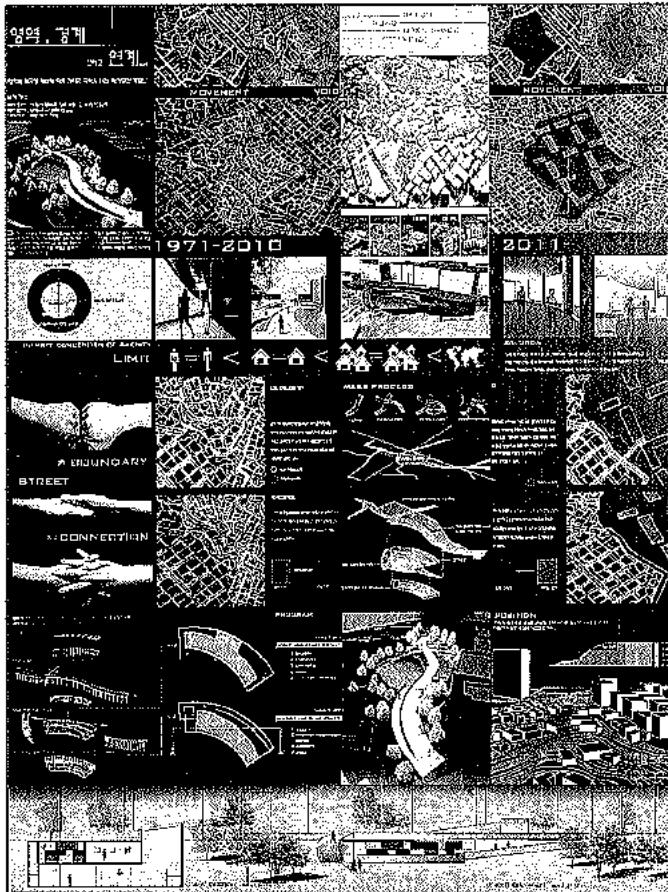
장향미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한범주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용현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계획 대상지인 산 65번지 일대는 지형적 특성과 지역적 한계로 인해 인근 지역의 필지별 개발을 통한 다세대, 다가구형식의 난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그간 미개발상태로 남겨져 왔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계획이 시도되었으나 시공사의 문제로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그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주변의 새롭게 재정비된 지역에 둘러싸여 마치 오래전에 정지된 시간속에 살고 있는 달동네라고 불리는 이곳은 주변으로부터 밀려오는 개발의 영향에서 배제되어 이웃동네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다. 이 계획은 시간차에 의해 불균형 개발되는 인접 영역간의 경계 중 그 쓰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지를 활용하여 매개공간을 구성함으로서 작게는 지역의 부족한 공용시설을 제공하고 나아가 영역간의 괴리감을 극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대지위치: 서울시 동작구 산 65번지 일대
- 대지면적: 4,810.78m²
- 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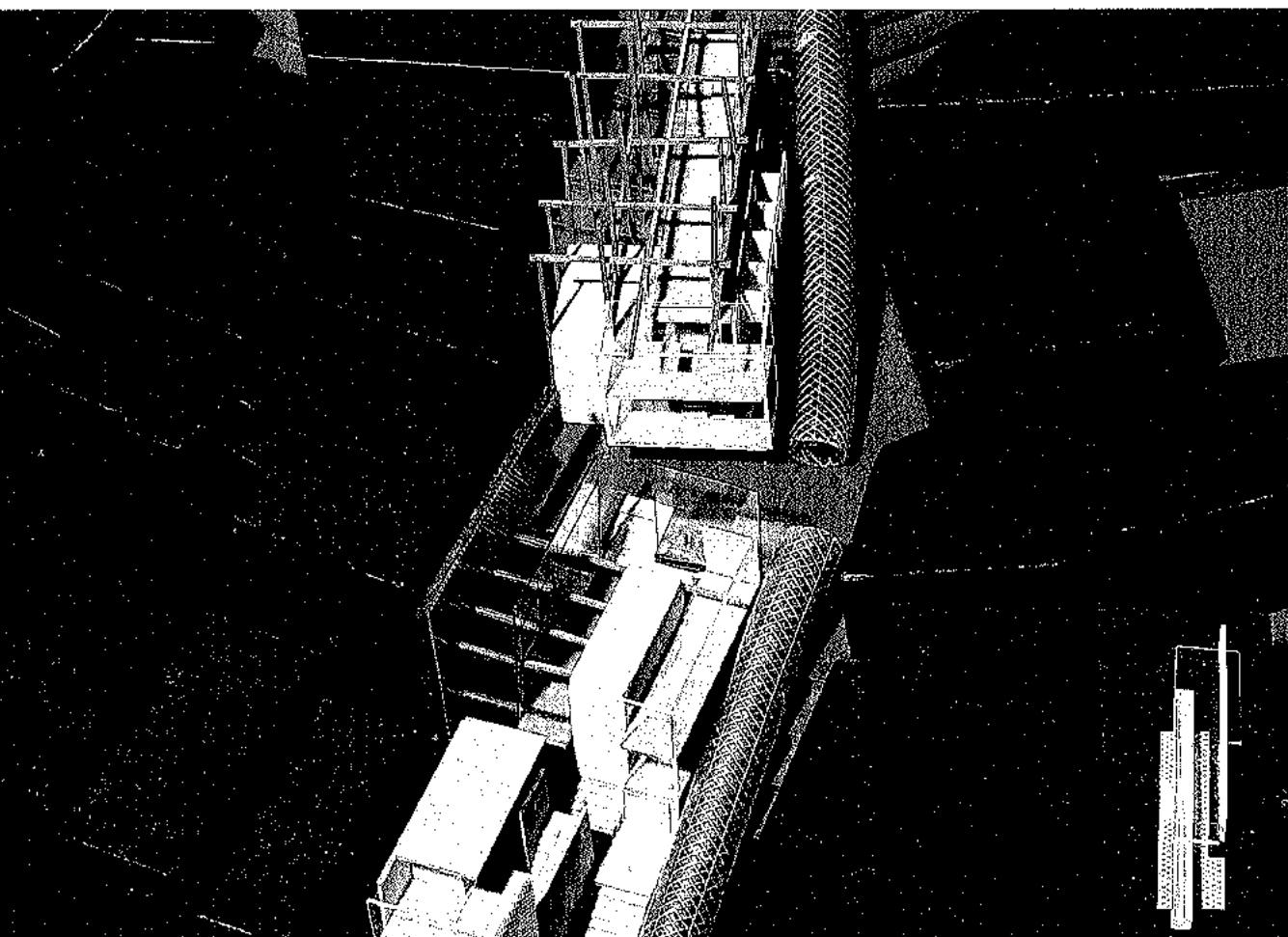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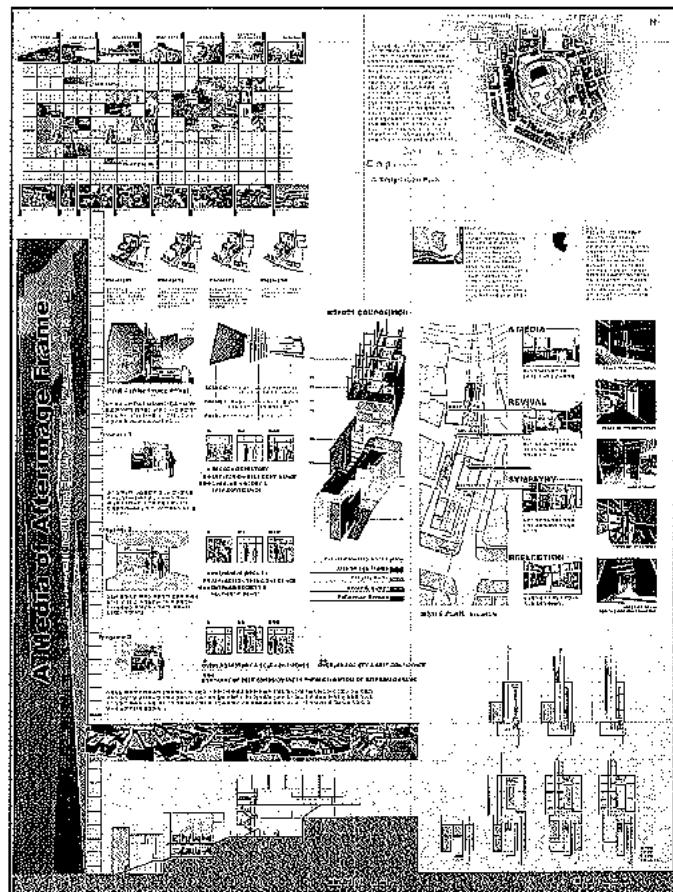
A Media of Afterimage Frame

이성태 /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창배 /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지현 /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지난 1~2세기 동안의 치열했던 역사의 기억을 담고있는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에 위치한 대자는 지난 일제시대부터 부산재일의 중심시가였던 남포동과 인접해 있는 도심 속의 Void Space이지만 현재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중심시가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조용히 지난 역사의 시간들만 간직한 채 일종의 슬럼현상을 보이고 있다. 낮에는 노인들만이 봄비는 노인들의 쉼터로 또 밤에는 탈선 청소년들의 대피소로 일컬어진 채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층의 무수한 익명의 사람들이 오고가는 중심시가지와는 갈수록 틈이 커져가고 있다. 그 원인의 하나를 공원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중심시가에서 용두산 공원으로 오르는 유일한 통로 블록을 재구성하여 용두산 공원의 활성화를 의도하고 통로를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장소의 역사적 의의를 인식시킬 수 있는 장치를 계획하여 역사적인 장소의 감각과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관계지음으로써 익명의 사람들과의 시대적 공간적 동질성을 통한 자의식의 교감을 가지게 하여 용두산 공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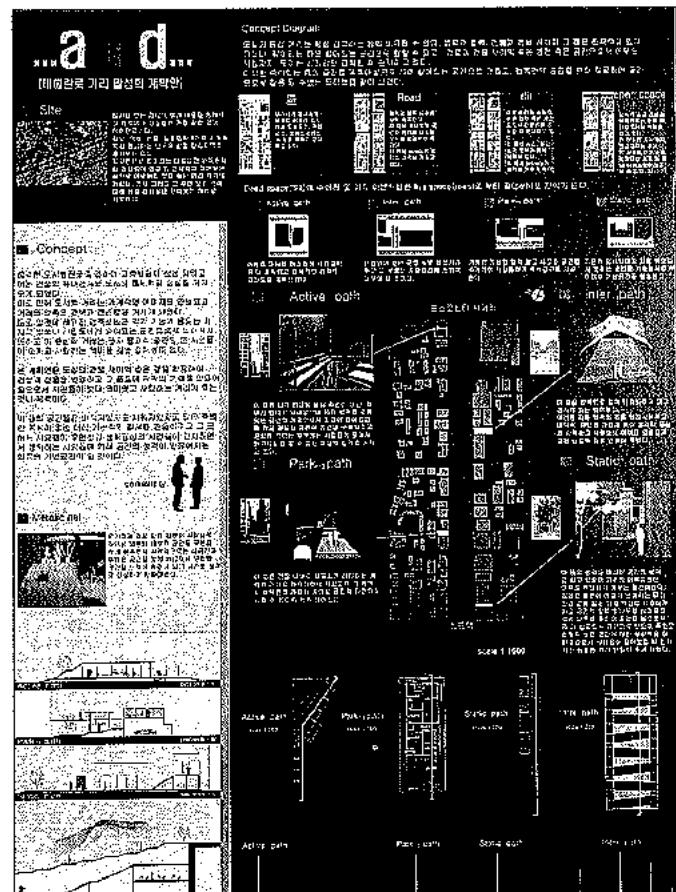


...and...(테헤란로거리 활성화계획)

정길호 / 건축사사무소 길건축
장대성 / 중앙대학교 건축학과졸업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인하여 고층빌딩이 생성되었고, 이는 건물의 유대 관계와 도시의 통제력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의 거리는 기계적인 이미지를 만들었고, 거리의 양쪽은 광택과 건조함을 가지게 되었다. 도로 양편에 세워진 건축물들은 각기 가능과 용도는 가지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의미있는 공간으로서 느껴지지 못하고 이 중심적 거리는 단지 통과적 공간일 뿐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의미를 갖는 정체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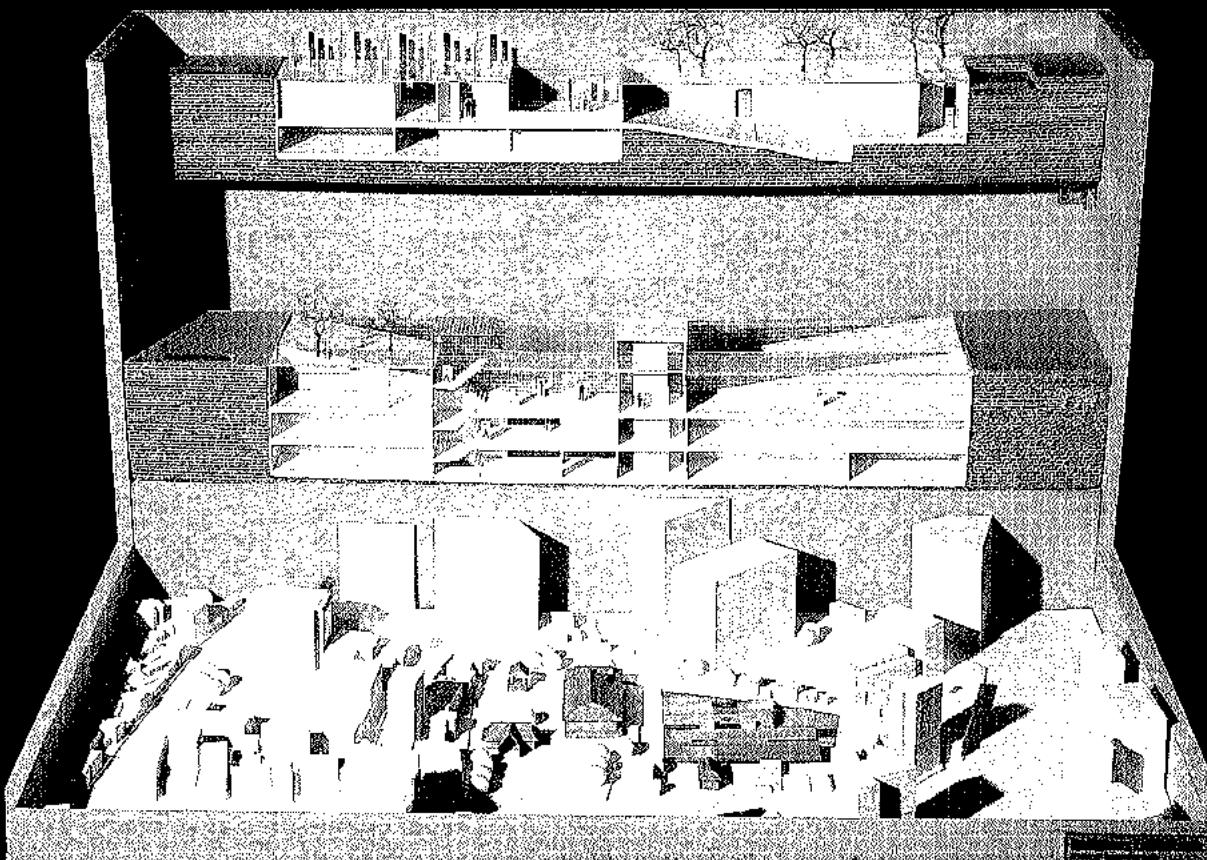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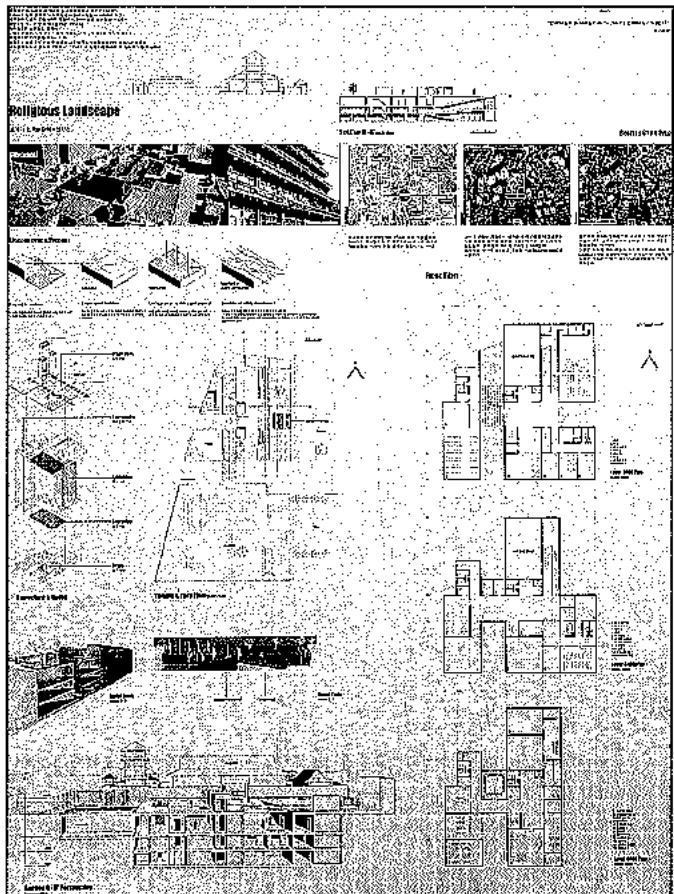
이 계획안은 도심의 건물 사이의 좁은 길을 활용하여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고 그 틈들에 각각의 문화를 만들어 줌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의미 있고 사랑하는 거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틈의 공간들은 비워져 있지도 채워져 있지도 않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 대신 기본적인 질서를 만들어주고 그 곳에서 사람들이 우연성과 불확정성의 사건들이 교차하면서 행위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간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기변공간이 될 것이다.



조계사 한국불교역사 전시관

원홍재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유병철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교육과
김정훈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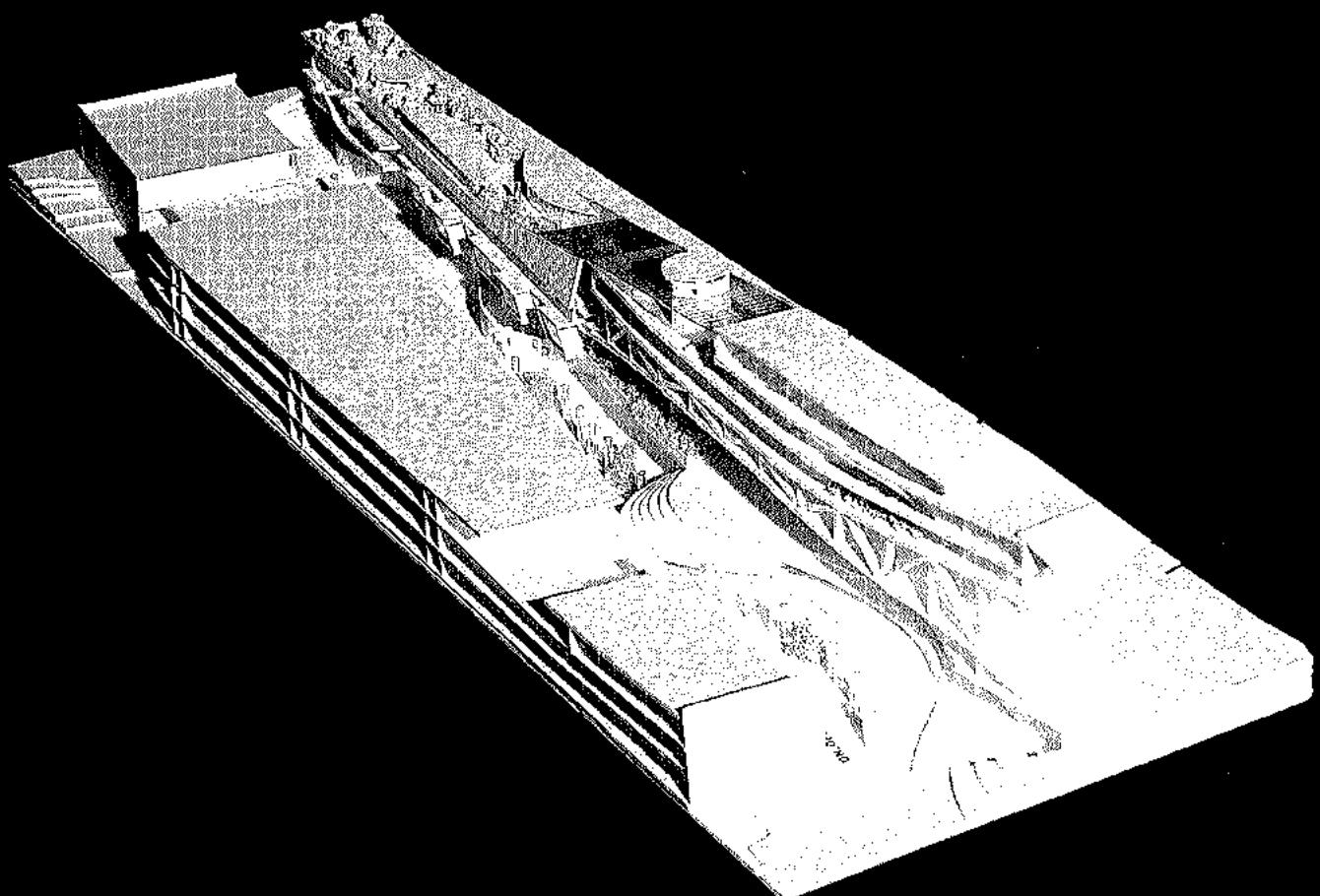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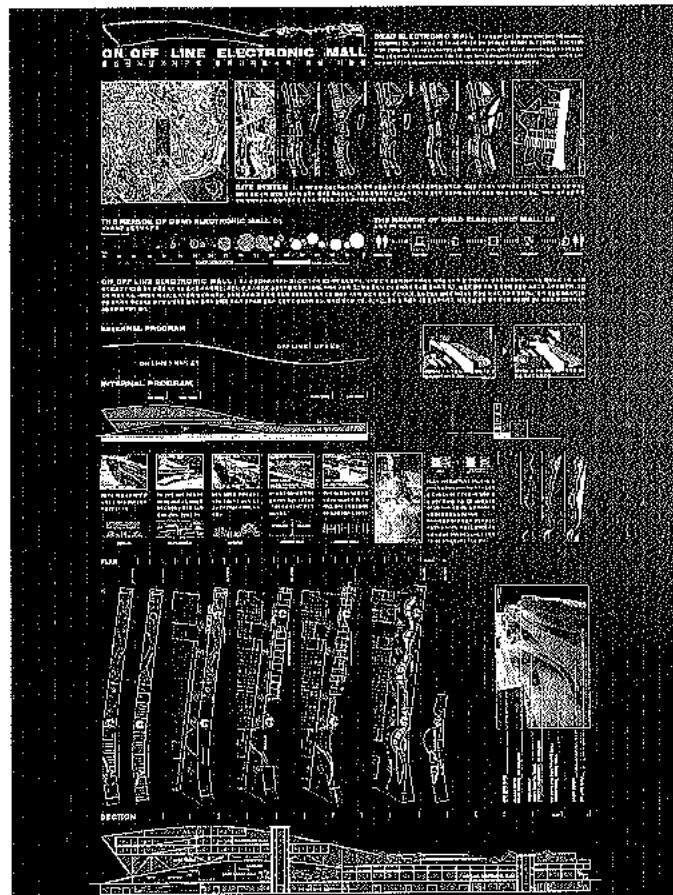
한국불교의 충분산인 조계사. 근대화 과정의 도시의 구조적 문제 안에서 그 역서도 학생들이 되어 중요한 문화자료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불교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내용의 종교시설을 제안하여 조계사의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며, 도시의 일부로서 그곳에 더욱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조계사는 경복궁으로부터 인사동, 북촌, 청경궁까지 이어지는 문화벨트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해 왔으며, 우리나라 근대의 문을 열게된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주변 건물군의 고충화는 사찰 고유의 정서를 피괴해 나갔으며, 이는 곧 조계사의 장소성과 문화재적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조계사를 하나의 폐쇄되고, 고립된 지점으로 설정한다. 장소에서 제거된 문화벨트의 공공적인 성격을 극대화시키고, 사찰이 가진 고유의 정서가 발현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그것은 도시의 여러 이질적 요구를 수용하는 복합적 랜드스케이프이며, 문화벨트 안에서 연속되어질 공공적 성격은 고립된 지점에서 열린 링크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ON-OFF LINE ELECTRONIC MALL

조영주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과거 용산전자상가지구는 오프라인 몰로서 대표적인 장소였으나 디지털 경제 흐름에 따라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및 구매행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검색하고 오프라인을 통해 상품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이른바 온-오프라인의 통합시스템 몰을 이용한다. 따라서 기존의 오프라인 몰에서 보다 소비자의 동선은 짧아지게 되고 상점의 물류 이동 및 배송의 흐름은 스피드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물의 확장과 축소, 사리짐과 재사용, 프로그램과 영역의 재구성, 상점의 재배치 등을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연계 통합 발전은 사이버 산업의 실체를 구현시키고, 전통산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용산전자상가지구를 찾는 소비자의 구매행태는 단순한 상행위를 벗어나 휴식과 놀이의 요소가 첨가되어 문화의 일종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 돈, 시간, 물류 등 자원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이어 용산전자상가지구의 활성화와 현대 문명의 문화단지로서의 가능성을 제시받게 된다.



풍류의 거리 「전통주점거리」

정성은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대상이 되는 가로는 남산과 남대문시장, 명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항복(1566~1618) 소유인 쌍회정이라는 정자터가 남아있는 쌍회정로이며, 500년된 보호수가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마을이지만 지금 이곳은 곳곳에 남촌선비들의 흔적이 버려진 채 남아있다. 현재에는 남산으로 가는 유일한 보행길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거의 인지가 되어있지 않으며, 가로의 낙후성과 남산으로서의 직접연계가 되어있지 않고 경사가 심하여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계획안은 소심 속 자연의 남산과 남대문, 명동의 름 사이에 역사적 흔적을 바탕으로 하여 연계로를 찾고 두 흐름을 연계할 수 있는 보행로를 통해 도시의 름 속에 이를 끼워 넣는 작업이다. 그리고 풍류를 즐겼던 옛 흔적의 모습을 현대적 프로그램과 흥미로운 시지각의 경험, 속도조절을 도입하여 이를 자연까지 연결해 준다.



공간 클럽 - 06

Space and Rooms

이재훈 /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교수

by Lee Jae-Hoon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 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랠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목 차

- 1회**
- a. 공간은 하나인가요?
 - b. 공간의 증거
 - c. 공간은 없다

- 2회**
- a. architectonic space
 - b. 노자의 공간개념
 - c. 5차원공간

- 3회**
- a. 누구의 공간인가?
 - b. 얼어붙은 공간
 - c. 서랍속의 공간

- 4회**
- 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 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 c. 공간지능지도

- 5회**
- a. 안티 중성의 공간
 - b. 시간을 넣은 공간
 - c. 광적공간과 사적공간

- 6회**
- a. 공간의 밀도
 - b. 공간의 전이
 - c. 공간의 위계

- 7회**
- a. 공간의 창조
 - b. 기억나는 공간
 - c. 쉬운 공간만들기
 - d. 공간실험

- 8회**
- a. served space & servant space
 - b. 공간의 종류
 - c. 공간의 극

- 9회**
- a. 공간의 경계
 - b. 공간의 관계
 - c. 공간의 모듈
 - d. 공간의 비례

- 10회**
- a. cyber space
 - b. space syntax
 - c. spatial behavior

- 11회**
- a. 공간속의 기둥
 - b. 써나리오 있는 공간
 - c. 창으로 본 공간

- 12회**
- a. 공간계획
 - b. 공간디자인
 - c. 공간문법

a. 공간의 밀도

Space Density

밀도는 단위 공간내에 인구의 수나 자동차의 수, 공장의 수, 등등 사물의 숫자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치가 높으면 밀도가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밀도가 낮다고 한다. 인구 밀도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밀도로서 사람의 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밀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많게 되어, 사람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며, 사람들 의 불적임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로 꽉찬 지하철을 이용할 때면 높은 밀도에 의해 짜증이 나며 한산한 공원을 거닐 때 면 낮은 밀도에 의해 여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밀도가 높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명동이나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걸을 때는 사람들로 북적임에 의해 오히려 활기 참을 느끼게 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그 속에 있다는 소속감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높은 밀도는 오히려 생동감을 준다. 홍콩은 높은 밀도에 의해 오히려 도시의 생동감이 살아있는 도시이다. 국토가 우리나라의 100분의 1밖에 안되면서 인구는 10분의 1이나 된다. 밀도가 열배는 높은 셈이다. 복잡한 서울과 비교해서도 약 2배의 인구밀도를 갖는다. 언뜻 과밀한 인구 밀도와 높은 건물에 의해 위압감을 느끼게 되지만 세계인 들이 찾는 관광지로서 고밀도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1. 심해 시가지 모형: 고밀도의 도시공간 모습

사람은 밀도에 대한 적응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공간속에서 안정된 개인영역의 확보 측면에서 보면 저밀도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 밖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반면, 고밀도의 지역에서는 자신의 신체밖으로 최소한의 영 역만을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적한 길에서는 마주치 며 걷는 사람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걷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복잡한 길에서는 어깨가 달을 듯이 걸어도 당연히 밟아

들이는 듯하다. 밀도가 문화화되어 민족적 특성으로 보여질 때, 그것은 수치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사람들이 한산한 동네 골목길이나 공장지역을 걸을 때면 썰렁함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밀도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

인구의 밀도 외에 가구의 밀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서울의 논현동에는 가구의 거리가 있다. 가구점들이 길의 양쪽에 들어서 있으며, 윈도우로는 세계각국의 가구들을 전시하며 판매한다. 일상의 건물들은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공부를 하는 등, 사람들의 활동을 담는 공간인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건물의 밀도는 곧 인구밀도와 상관되는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구의 거리에서는 건물이 가구로 채워져 있으며 사람들은 가구를 고르기 위해 구경하는 루트의 공간만을 차지하는 정도이다. 건물의 면적을 가구가 차지함으로서 가구의 밀도는 높지만 사람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셈이 된다. 그리하여 논현동 가구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며 만들어내는 식당기가 없으며, 소매점도 많지 않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림 2. 둘러싸인 책으로 만들어지는 방의 밀도

또 집안의 가구나 책의 밀도를 상정해 볼 수도 있다. 가구가 꽉 차 있으면 답답해 보이기도 하며 책이 꽉 차 있으면 답답하면서도 책이 갖는 우월 의식에 젖게 만들기도 한다. 옛날 우리나라 전통 양반 가옥의 방안에는 가구가 거의 없이 벽장으로 방안의 물품을 정리하였으니 이는 방의 규격이 워낙 작다보니 가구를 둘 수 없어 벽장 형식으로 수납공간을 해결하려는 공간의 확장이라는 지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방 내부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밀도의 제로상태),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조상의 순수함을 엿보게 한다.

그밖에 벽지의 장식의 밀도, 신문의 글자의 밀도를 들 수 있다. 춤춤한 벽지의 장식은 어느정도는 눈에 뜨이지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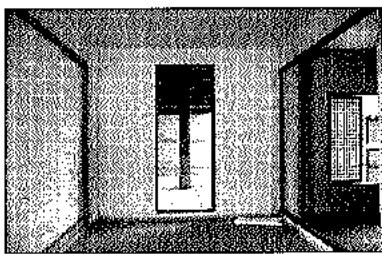


그림 3 텔 비어있는-(제로 밀도에 가까운) 한옥의 내부모습

식이 작아지면서 군집화 하면 전체의 톤을 바꾸게 된다. 신문의 글자 밀도는 신문과 읽는 사람의 시각적

관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관계를 굉장히 가깝게 만든다고 생각된다.

공간의 밀도는 공간의 비가시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요소의 밀도를 말한다. 공간을 만드는 기본 요소가 되는 구조형태의 밀도일 수도 있으며, 구조체 사이를 메우는 내장재의 밀도, 또는 장식의 밀도, 창문의 프레임의 밀도 등이 공간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공간요소의 밀도는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요소의 밀도가 과밀하거나 요소의 밀도가 과소할 때 어떤 변화가 인지될 수 있다. 조그만 방에 무늬가 없는 벽지를 빌랐을 때와 큰 무늬의 벽지를 빌렸을 때, 그리고 작은 무늬의 벽지를 빌렸을 때, 그 느낌은 오랜 시간 거주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과 같은 거대한 역사 건물의 대형공간에는 그 공간에 맞는 밀도의 벽체요소가 적용될 때 안정감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한국건축의 누마루에서 보여지는 서까래의 밀도는 오픈된 자연환경의 광대한 스케일에 대비되는 과밀한 요소로 형성된 공간을 만들므로서 누마루의 공간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된다. 창고와 같이 대형의 공간이지만 구조나 내장재의 요소변화가 없이 딱딱한 모습을 보인다면, 밀도의 측면에서 내부공간과 상관되지 않음으로서 사람들의 관계성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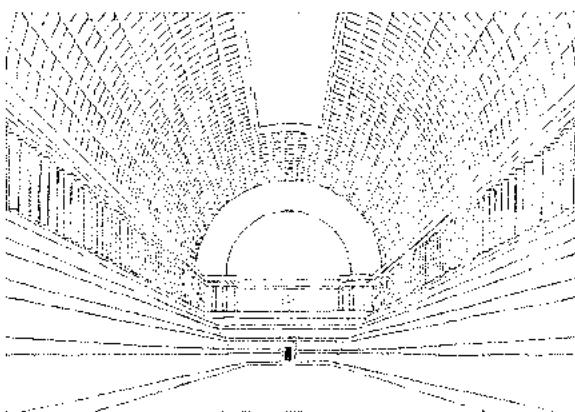


그림4 F1, 봄레 'Buleo', 프랑스 국립 도서관 계획안의 내부모습: 비워진 공간의 벽체 장식 밀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비워진 공간에서의 공간구성 요소의 밀도는 공간을 사용하게 될 구체적 사건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텅 빈 공간의 무늬 없는 벽체가 썰렁해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로 북적이게 된다면 벽체의 디테일을 압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밀도가 발생될 것이며, 그때에는 오히려 공간을 구성하는 기준의 요소밀도가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간과 공간구성요소의 밀도, 그리고 사용자의 상황, 이 세가지 인자가 서로 상응될 때 공간의 효과가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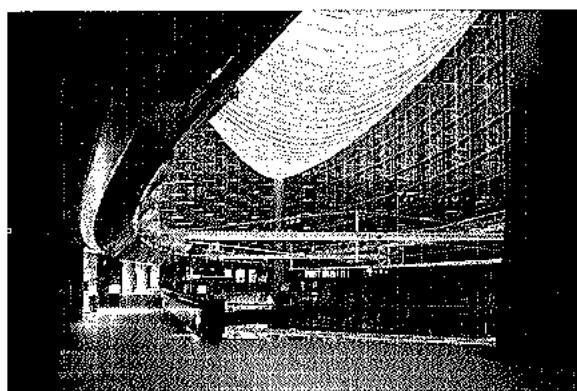


그림5. 라파엘 바뇰리의 동경도련 내부 모습: 허공속에 구조재의 파인한 저울을 통해 공간의 밀도를 짜부하고 있다.

밀도는 사람들의 적정한 요구를 표현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의 적응성은 그것을 문학적 인자로 바꾸어 놓았으며,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밀도의 다변성이 인정된다. 공간의 밀도는 공간이 갖는 적정한 분위기의 형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공간의 크기나 사용 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서 공간구성의 요소가 조정되어야 할을 뜻한다.

b. 공간의 전이

Transition of space

아침에 집에서 나와 직장으로 가는 공간의 변화를 보면, 자가용 차를 갖고 다니는 경우에는 집 → 주차장 → 주차장, 직장의 간단한 흐름이 있으며,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다닐 경우에는 집 → 길 → 정류장 → 정류장 → 길 → 직장의 공간 변화를 겪게 된다. 이때 차를 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큰 차이는 길이라는 공간이 중간에 끼어 있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집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직장이라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그다지 크



그림 6. 공간의 전이

지 않아 매우 편하다는 생각도 들고, 집과 직장이 그다지 벌개의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게도 된다. 그러나 중간에 길이라는 공간을 걸어서 기야하는 사람들은 집과 직장 사이가 멀게 느껴지기도 할뿐더러 집과 직장은 전혀 다른 공간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공간의 전이는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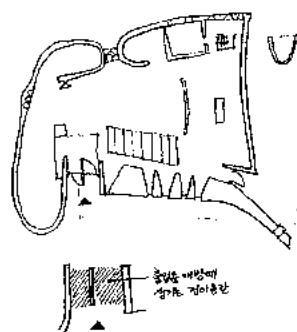


그림 7. 르꼬르뷔제의 통상교회 출입문: 내원의 분(폭 3m):
열리면서 전이하는 벽커를 만들어낸다

A라는 다른 공간으로부터 B라는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말하며, 이동의 형식에 따라 공간전이의 효과와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 만일 재택 근무를 하여 집과 직장 사이에 커다란 변화 없이 공간이동이 자유로운 경우라 할지라도, 방으로 구획되어 문을 통한다면 문이 공간전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며, 거실공간을 치워 업무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물건을 치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공간의 전이는 발생된다고 생각된다.

시간의 흐름 까지도 공간의 전이로 본다면 일상공간에서 공간의 전이는 항상 발생된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공간의 성격개념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간의 전이는 공간이 바뀐다는 측면에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성격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업무를 보는 공간은

업무공간으로서 공간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며, 휴식을 취하는 가정의 공간내에서는 특정의 상황변화가 없다면 공간의 전이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상적일 것이다. 또한 거리의 길 모양이나 분위기가 바뀌는 공간이 있더라도 출퇴근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공간 성격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전이공간으로서 밖에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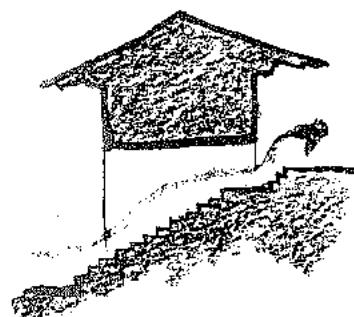


그림 8. 해인사의 누하진원 : 각한 일팩트 효과를 달성한
한국 건축의 공간 전이 방식(그림:안영태)

그러나 똑같은 길도 출퇴근을 위한 길일 경우와 산책을 위한 길일 경우, 공간의 전이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직장으로 출근한다는 목적에 있어서 길은 하나의 매개하는 공간이 되며, 이때에는 극단적으로 걷다가 차를 타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동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지칭함으로서 공간 전이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동 방식만 바뀌는,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타려 가는 행위와 같은 변화는 공간전이가 아닐 수 있으며, 이때의 지하철역은 공간전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되지 않는 공간 체계의 구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하철역은 길의 공간과 성격상 같을 수 있으며, 따라서 길처럼 오픈된 공간 체계나 외부공간처럼 지하철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산책의 목적으로 길을 걷는 사람은 길 공간의 미묘한 감성적 느낌 변화로도 공간의 전이가 발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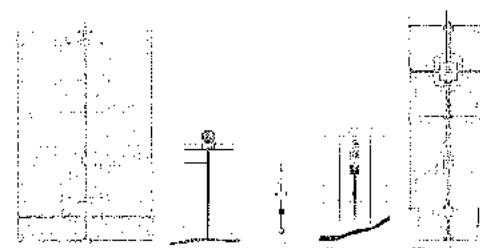


그림 9. 서로 다른 공간선이를 보여주는 점원의 구성

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상쾌한 기분의 길 공간과 빨리 걸어 가버리고 싶은 길 공간, 재미있는 길 공간, 흥미가 없는 길 공간, 등등 동일한 길이지만 감성의 변화를 느끼면서 공간의 전이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산책이라는 행위에 맞게 다양한 공간경험이 가능한 공간 전 이를 이루도록 길을 꾸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의 전이는 좋은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인가?

사람에 따라서는 목적 공간 속의 행위에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공간의 전이를 도와주는 전이 공간은 불필요한 낭비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전이는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업무공간과 업무공간 사이의 공간전이로 축소될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는 휴식의 개념도 목적공간화 하여 공간의 전이 없이 업무공간에서 휴식 공간으로 쉽게 전환되기를 바랄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생존을 위한 목적행위의 삶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목적 공간과 목적공간 사이에 공간의 전이를 도와주는 전이 공간은 오히려 삶을 윤택하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건축적 목적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업무를 마치고 헬스장으로 이동하는 공간의 전이를 쓸데없는 시간과 공간의 낭비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동하는 길의 의미를 보다 중시한다면 길을 걸으며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여유의 시간을 전이의 공간을 통해 대신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의 단축에 의미를 두지 않고 전이하는 공간의 향유를 염두에 둔다면, 시간과 공간의 축박함을 벗어나 오히려 다른 삶의 의미를 충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것

이 목적 공간들로 만들어진 삽막한 삶의 공간으로부터 숨통을 트이는 매개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이공간의 좋고 나쁨을 벗어나 꼭 필요한 경우들도 있다. 길을 가다 보여지는 공용화장실은 공적 공간이면서도 사적 공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며, 공적 공간 속에 위치하므로 그 처리에 섬세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공간의 전이에 대한 의식 없이 일상적인 화장실 패턴을 적용하여, 공적 공간에서 특별한 장치없이 사적공간으로 연계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되어있다.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사이의 전이를 고려하여 매개되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보다 강구될 필요가 있는 공간이다.

전이의 형식은 공간의 성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사적공간으로서 주택이나 절간으로의 공간 전이와 공적 공간으로서 상가나 관청의 공간 전이는 다를 것이다. 건물을 들어설 때, 일반적으로 입구 → 홀 → 계단실(엘리베이터) → 통로 → 목적공간의 형식을 갖겠지만 사적 공간에 속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차장으로부터 20여 호가 공유하는 건물 입구 → 계단실 → 2호가 공유하는 홀 → 개별 주호로 연계된다. 그러나 상점의 경우는 공공이 통행하는 도로로부터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의 입구로부터 곧장 매장 또는 매장으로 통하는 통로로 연결된다. 만일 상점이 사적인 통제를 하듯이 2호나 4호만이 공유하는 계단 홀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면 그러한 상점으로의 접근에 매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상점의 경우, 대중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프라이버시의 공간 전이는 거추장스러운 장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간의 전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상점으로서의 상행위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의 전이도 가능할 것이다. 파일가게가 보도 쪽으로 파일을 진열하는 부분은 길을 가는 사람과 파일가게 사이의 일종의 전이공간을 만들어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전이의 형식을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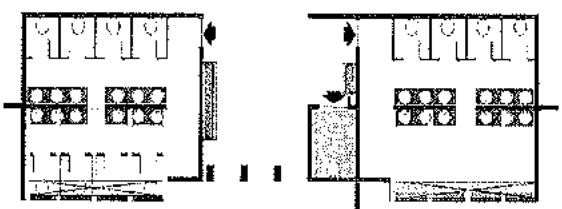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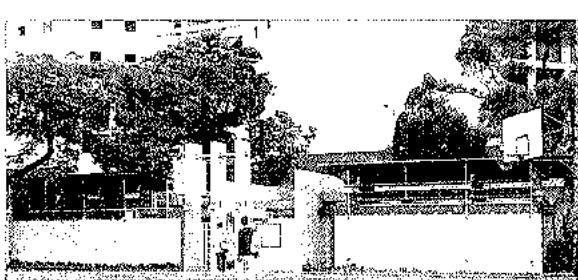


그림 10. 놉곡 빅토리아 공원 공용화장실의 풍貌과 사진: 접근을 도와주는 전이 공간의 처리가 드러난다

표 1: 용도별 일반적인 공간의 전이 과정 및 그 변화 가능성

용도	일반적인 공간의 전이	변화 가능한 공간의 전이
극장	입구 → 홀 → 상영관	홀 → 입구 → 상영관
사무소	입구 → 홀 → 계단실 → 통로 → 사무실	통로 → 사무실
학교	교문 → 현관 → 통로 → 교실	길 → 통로 → 홀 → 교실
주택	길 → 대문 → 미당 → 현관 → 거실 → 방	길 → 방 → 미당 → 방
아파트	주차장 → 입구 → 엘리베이터 → 홀 → 현관	주차장 → 홀 → 입구 → 엘리베이터 → 현관
미술관	전입공간 → 입구 → 로비 → 홀 → 전시공간	전입공간 → 홀 → 입구 → 전시공간
도서관	입구 → 홀 → 통로 → 열람실	통로 → 입구 → 홀 → 열람실
상가	길 → 상점	길 → 매개공간 → 상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의 전이를 보면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지만 공간의 전이에 변화를 주면(전이 프로세스나 전이 공간의 종류) 공간 경험은 전혀 색다르게 될 수도 있다. 극장의 경우에 입구 → 홀 → 극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화를 보게 하기 위한 유혹의 공간을 전이 공간으로 삽입한다면, 홀 → 입구 → 홀 → 극장의 공간 전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바다 해수욕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차장 → 길 → 모래밭 → 바다의 공간 전이를 갖지만, 바다라는 자유공간으로의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차장 → 모래밭 → 바다로 단계를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전이 공간의 형식에 의해서만 공간의 효과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전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형식을 넘어서는 풍요한 공간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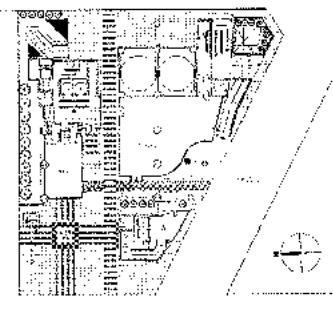


그림 11. 씨네플더스 1층 별면: 긴홀의 1층을 살보 남겨두는 공간의 전이 양식에 의해 일부 건물로의 접근성을 높이려한 시례이다.

때로는 공간의 전이가 막힌 곳에 이르게 된다. 막다른 골목에서의 당혹감처럼 공간전이가 끊기는 곳도 목적 행위를 달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공간의 전이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설정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공간의 전이에 대한 다른 시선을 갖는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성하는 건축공간의 구성에 변화있는 장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하나의 빙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간의 전이는 인간의 삶에 대한 해석과 연동되어 있어 건축공간의 변화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대응 방식에 의해 민감하게 설정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c. 공간의 위계

Hierarchy of Space

택시안의 좌석에 위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운전석 뒤의 옆자리가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이며, 다음이 운

전석 뒷자리, 그리고 다음이 운전석 옆자리라고 한다. 아마도 자동차의 속성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많이 고려하여 그와 같은 공간의 위계를 정했는 듯 싶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안전한 자리이면서 타고 내리기 편한 자리, 그러나 다른 변수는 없었을까? 예를 들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망을 보기 좋은 자리로서 앞자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텐데, 역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주행중의 앞차와의 신경거슬림이 그 자리를 불편하며 위계가 떨어지는 자리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2. 택시의 좌석 위계

건축공간에서 공간의 위계는 직급이 다른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의석상에서 극명하게 보여진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는 공간의 위계를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그들의 위치는 고정된다. 그러나 외부에서 손님이 올 경우에 좌석 배치의 원칙이 흔들린다. 회장님과 친한 분이거나 그러한 위계의 외부인사라면 회장님 옆자리를 비워두어야 한다. 외부손님의 위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큰 고민 않고 자리를 배일할 수 있겠지만 위계를 알기 힘들고, 또한 본사와의 관계에 미묘한 위계차 이를 보일 경우 그 자리 배열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일상에서야 한 두시간 앉는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편의성에 따라 앉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의미 있는 자리이거나, 혹 좋지 못한 자리에 위계가 높은 분이 앉게 되어 기분이라도 상한다면, 회의 목적은 차치하고 매우 곤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간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니다.

실내공간에서의 공간의 위계는 어떻게 정해질까? 문을 들어서면서 앉기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 또는 문을 들어서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위치, 외부인에게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위치, 뒤에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의 방해나 환경적인 요인인 눈부심, 냄새원, 소음원으로부터의 이격 위치가 있을 수 있겠고,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이듯이 좌우에서 보좌하는 듯한 중앙의 위치에 대한 의미의 부여가 중요한 요소이다. 일 방향 테이블이면 중앙이 분명

하지만 그자로 꺼인 경우나, 뒤태 테이블 배치의 경우는 중앙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절이나 교회같은 종교시설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는 넓은 면을 중앙으로 생각하는 반면, 서양에서는 방향성의 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위치잡기는 회의실이나 식당에 들어서며 잠시 겪어야하는 일상사의 하나이다. 공식적인 자리라면, 테이블에 미리 이름을 적어 넣어 쉽게 자신의 위치에 맞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공간의 위계는 직급의 위계에 의해 정해지기도 하지만 연령의 위계, 대접의 의미, 또 다른 변수 등에 의해서도 정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의 위계가 과연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공간에는 성격이 주어지고 성격은 공간의 특성을 다르게 하고, 그것이 일상의 사람들에게 공간의 차별성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차별화된 공간은 사회적으로 다른 위계를 갖는 사람들을 위해 배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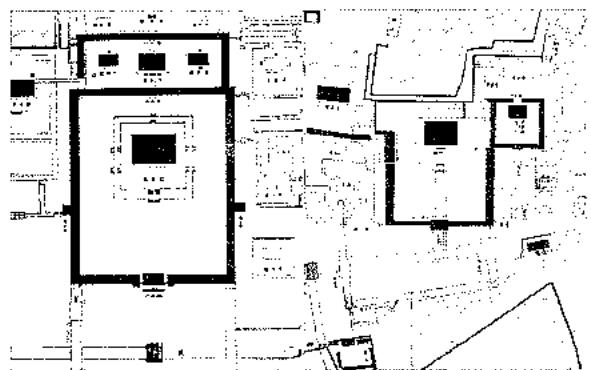


그림 13. 궁궐의 배치도: 공간의 위계를 보여준다.

한국전통 건축의 공간은 위계성을 표현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주요한 공간이 있고, 그것을 주변으로 부차적인 공간들이 밀집된 형태를 이루고 있거나 주요한 공간으로의 진입을 위해 부치되는 공간이 줄지어 배열되는 경우를 예로 든다. 궁궐의 경우, 왕이 기거하는 영역은 외부로부터 깊숙한 곳에 위치하며, 다양한 공간의 전이를 거치게 하면서 높은 위계의 공간을 생성한다. 사찰의 경우, 신을 모시는 공간인 대웅전은 일주문, 천왕문 등의 전이공간을 거치면서 역시 높은 위계를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생성된다.

위계가 높은 공간은 위계가 낮은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의 규모가 크거나 공간의 형태가 반듯하고, 공간을 이루고 있는 장식품이나 설비, 색상 등에서 풍족함을 갖는 방식에 의해 표현된다. 일반적으로는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페

루 쿠스코의 시내중심에 위치한 사원)에서는 지하수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기장 낮은 지역이 위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즉, 위계가 높은 공간은 공간의 조건을 상대적으로 원전한 상태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위계가 낮은 공간은 위계를 읽어내지 못할 정도로 일상화된 공간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궁정적인 방향의 비일상화된 모습으로의 전이를 통해 공간의 위계가 생성된다고 판단된다.

공간의 위계는 사회적, 상징적, 심리적 등의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유교적 전통의 위계사회에서 계층별, 남녀별, 나이별, 군신별, 직종별 위계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그것을 대표하는 공간들의 위계로 직접적으로 표출되었다. 왕이 기거하는 공간이 중요한 위계가 높은 공간이고, 기관의 장이 중요한 측면에서 기관장의 사무공간이 중요한 공간이었으며, 양반의 거처가 위계가 높았다. 종교 공간에서의 신과 접하는 부분과 세속으로부터 이탈되는 경로에서의 여러 공간은 그 위계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위계가 높은 공간은 지형적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넓은 정형의 공간을 형성하기도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하여 깊은 공간을 형성하는 모습을 띠었다. 이러한 전통은 사회적 특징과 관련됨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을 지배하는 강한 특징이기도 하였으며 최근까지도 관공서 건축 등에서 표현되는 특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위계가 변화되면서 공간의 위계도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주택의 경우,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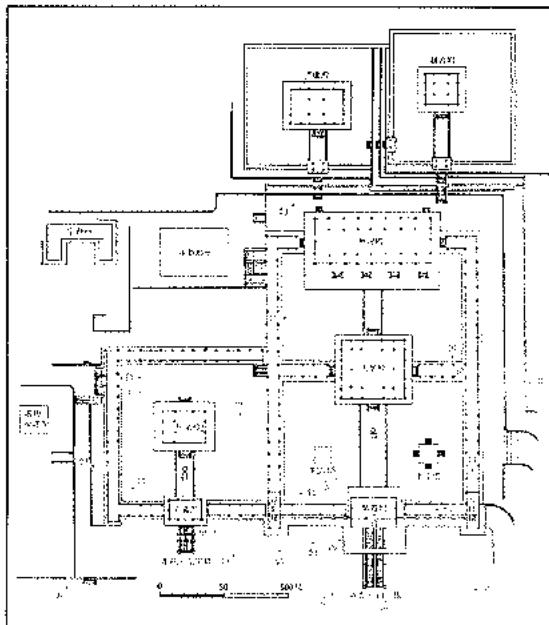


그림 14. 공간의 위계를 보여주는 왕궁사의 배치도

은 공동체로서 가족 구성원 누구나 평등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가족 모두가 모이는 거실이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사무소 건물은 노동자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사무공간 전체가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다. 도시구조에서도 T자형이나 방사형의 중앙집중적 위계구조로부터 그리드형의 구조로 바뀌면서 위계를 드러내기 보다는 편리하고 대등한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건물들은 커다란 정문에 의해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여러 개의 통로, 또는 대등한 접근을 상징하는 아트리움 등을 통해 출입의 위계 차이를 없애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공간의 위계가 사라지면서 모든 공간이 대등하게 처리되어야하는 공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그리하여 공간의 변화는 오직 목적 공간과 공간의 전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간의 구성에 대한 심리적 변화마저 공간의 전이 현상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거대 공간과 작은 공간, 정형공간과 비정형공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조임과 풀림은 심리적인 차원의 중요한 공간경험이 될 수 있다. 음악의 리듬에서의 강, 약, 강, 중강, 약 등의 마음을 옮기는 음을 음악에 대한 심리적이며 미학적 구성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건축공간에서의 강, 약, 약, 약, 구성이 음악에서와 같이 심금을 울리는 구성이 될지는 증거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의 전통건축물의 위계적 공간구성 속에서 많은 건축가들이 오히려 공간의 풍요함을 읽어내고, 공간의 한국적 특성을 찾아내는 것을 보면, 공간의 강, 약 조절이 자칫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내는 반 시대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을 건축공간에서 수용하는 입장에서 건축공간의 구성적 풍요함을 얻게 만드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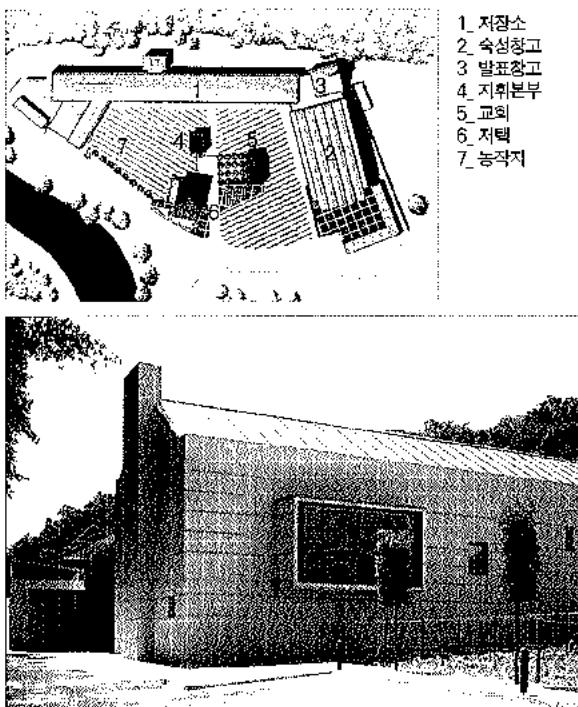


그림15. 라피엘 모네오, 스페인 니비래의 포도주 생산공장 배치도 및 부분사진: 각 기능공간의 위치와 의누중간의 부설에서 기능에 따른 위계적 관계가 보여진다.

K타워 V.E.

Value Engineering of K Tower

이창남 / (주)센구조연구소 대표이사
by Lee Chang-Nam

2002년 가을 현장에 부임한 K 건설회사 직원이 첫 날 출근했다 돌아오자마자 걱정이 태산 같다고 투덜댄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휴일도 반납해야 한다는데 그것도 모자라 밤낮도 없이 일해야 할 판이라고 한다. 본사 영업부에서 모기업인 건축주와 당초 약속한 공기는 21개월인데 크리티컬 패스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공정표를 조정해 봄도 절대 공기가 24개월은 필요함을 확인한 것이다.

영업부에서는 별씨 입주자들과 100% 분양계약을 맺었으며 분양 대금의 30%는 미리 받아 놓은 상태였다. 분양자들이 장기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하 1층 지상 15층 연건평 17,000평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기초는 직경 450mm인 PHC 말뚝지정에 독립기초로 설계한 것이고 말뚝 박기는 당연히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구멍을 뚫어 심어야 하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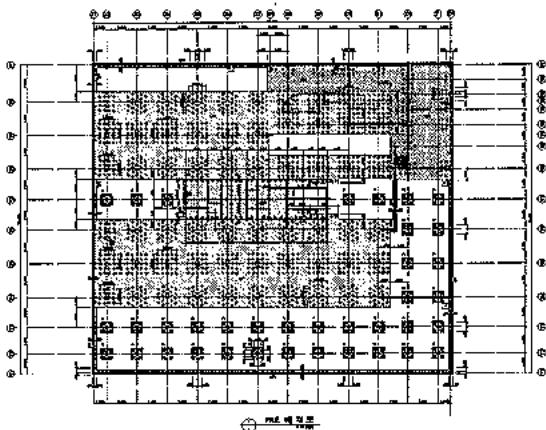
설계한 건축사사무소는 국내 우수업체이고 구조설계도 유명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담당했으며 부지 지반 조사보고서는 보기 드물게 컬러로 복사된 두꺼운 것이었다.

현장에서는 직접 공사비가 다소 더 드는 편이 있어도 공사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공사 기간을 1개월 단축하면 금융비용까지 감안하여 약 3억원정도의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첫 번째 희망 사항이 말뚝 개수를 몇 개라도 줄였으면 좋겠단다. 구조 도면을 열핏 보아도 말뚝이 너무 촘촘한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건물 용도가 적재하중이 큰 아파트 형 공장이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어도 환자가 없으면 굽여야 하며 10년 동안 불이 나지 않으면 소방수는 사직서를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에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우리 사무실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우리 사무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아른바 Value Engineering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쩌면 미안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면 눈동자가 반짝거리기 시작한다.

구조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도면 납품 후 시공 중에도 수시로 설계변경을 요구해 오는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구조 설계를 어유 있게 해 두었다면 다소간의 변경은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으나, 이슬이슬하게 경제적으로 설계한 것이라면 하증 추가가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검토하는 수고를 해야 하며 거기에 맞물려서 도면까지 수정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기초 형식 : Pile기초
■기초 두께 : MF1(THK.=1800) MF2(THK.=1200) F1,F2,WF1(THK.=800)
FS(THK.=400)
■사용철근 : 주철근 HD29(SD50)

그림 1 칼뚝기초 형식도

우리나라 건축계의 시정은 선진 외국과 달라 설계변경비를 추가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으니 처음부터 아예 튼튼하게 설계해 두는 것이 마음 편하다.

또한 시공 정밀도를 제대로 보장하는 설설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아니면 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까지를 감안하여 처음부터 여유 있게 설계해 두는 것이 신상에도 유리하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골조공사비가 조금 싸진다고 해도 청찬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므로 시공자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적당히 공사해도 안전이 보장되도록 넉넉하게 설계해 두면 모두가 좋은 것이다. 감리자도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어슬렁어슬렁 왔다갔다 세월만 보내도 된다.

건축주에게는 또한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설명하여 설득할 수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초가 약하면 건물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구나 혹시라도 후에 건물 사용 중 증축을 하거나 이리저리 변경할 일도 생길 것인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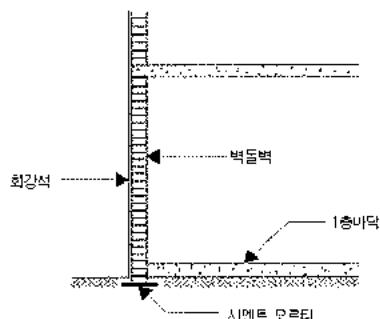


그림 2 기초 없이 짜운 벽돌집

때를 대비해서 기초에는 다소 여유 있게 투자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고 설명하면 그만이다.

또한 “혹시 지진 등 예기치 못했던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면 큰 사고는 방지된다.” 고 하면 누가 감히 그런 걱정 말라고 고집을 부릴 것인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은 귀가 아프게 들어왔다.

오죽하면 영어공부도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이리저리 생각하다 보면 기초는 아무리 튼튼해도 미흡한 것 같은 불안감이 들게 된다. 따라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회수할 수 없는 필요 이상의 기초공사비가 끊임없이 땅속에 묻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낭비가 심한 기초가 있는 반면에 어찌면 벼랑 끝에 매달린 소나무처럼 위험한 기초도 있다. 요즘에는 그런 현장이 별로 없지만 20-30년 전에 지은 집들 중에는 기초가 아예 없는 것들도 수두룩하다. 물론 지금도 그 때 지은 집들이 많이 남아 있다.

폭과 깊이가 20-30cm 정도 되도록 도량을 파고 5cm 정도 두께의 시멘트 모르티를 깐 후 그 위에다 벽돌 벽을 쌓고 바닥 슬래브를 시공하여 2-3층 집을 짓는 것이다. 물론 외벽에는 화강석을 붙여서 이른바 돌집으로 둔갑시키고 담장이나 대문에는 청기와를 얹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런 기초 없는 집도 짓자마자 입주하면 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상한 노릇이다. 가을철에 지은 집이 비워둔 채로 겨울을 나면 벽마다 이리저리 균열이 발생하는데 주로 땅이 얼어 부풀어 오름에 따른 변형이 균열의 주요 원인이며 지내력이 부족하여 가라앉아서 생긴 하자는 오히려 적은 편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기초 없는 집이 버젓이 서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주춧돌 위에 통나무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었다. 오래된 절도 그렇고 아흔 아홉 칸 대간집도 마찬가지다. 기초란 굵은 통나무를 잘라 만든 “달구”를 사용하여 잡석을 다지고 그 위에다 주춧돌을 얹은 것에 불과하다. 옛날 집은 단층집들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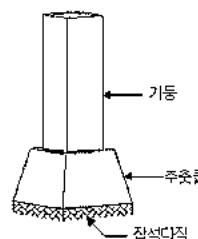


그림 3 주춧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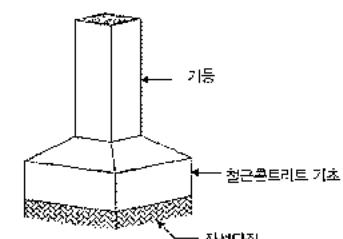


그림 4 잡석지정 위 철근콘크리트 기초

지 모르나 한식 기와집의 아름다운 곡선을 전통으로 조성한 것을 보면 그 무게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집을 짓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각도에서 음미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기초공사에 너무 낭비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어 일본식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기초는 당연히 잡석을 다진 지정 위에 철근콘크리트독립기초로 시공하는 것이 표준이다 시피 알려져 있었다. 일본 땅은 연약지반이 많은가보다. 특히 동경 지방의 토질이 그렇다. 따라서 그들은 땅을 파고 잡석다짐도 없이 기초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땅을 파면 당연히 구멍들이 나와서 장화를 신어야 할 만큼 절척거리므로 잡석을 다져 넣지 않고는 기초공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관행화 된 일본 기술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경질지반도 애써서 파내고 잡석다짐을 한 후 기초공사를 한 건물도 많이 있다.

해방 후 미군들이 사용하는 도면을 보니 그들의 기초는 잡석다짐 없이 땅을 파고 벼랑 콘크리트만 친 후 그 위에다 직접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다. 이를 모방하여 건축도면에서 잡석지정이 사라지게 하는데도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허비했다. 한번 익숙해진 관행을 고치는 것은 중독 된 담배를 끊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

연약지반이란 하중이 작용했을 때 조금씩 두 고두고 침하하며 최종 침하량의 절대치가 큰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같은 연약지반에서 일부만 말뚝기초를 하고 나머지를 직접기초로 공사하면 부동침하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예를 들어 대지 지반 한 쪽은 연약지반이라 하는 수 없이 말뚝을 박지만 나머지 부분은 경질지반이어서 직접기초로 설계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말뚝기초도 가라앉지 않고 경질지반에 시공한 직접기초도 가라앉지 않으면 당연히 두 가지 종류의 기초 사이에는 부동침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건물에 두 가지 종류의 기초를 적용하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애송이 기술자가 너무나 많다.

이 건물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천연색으로 복사된 지반조사보고서의 토질주 상도를 살펴보니 기초 레벨에서 대부분은 표준관입시험치가 50이고 일부에서는 최소 12인 풍화토이다. 그러나 표준관입시험치가 크지 않은 연약지반도 1~2m 정도만 파고 내려가면 거의 모두의 표준관입시험 값이 25를 넘는 양질의 지반이다.

이런 좋은 지반에 무슨 이유로 말뚝을 박도록 설계를 했을까? 건축구조기술자는 토질에 관한 토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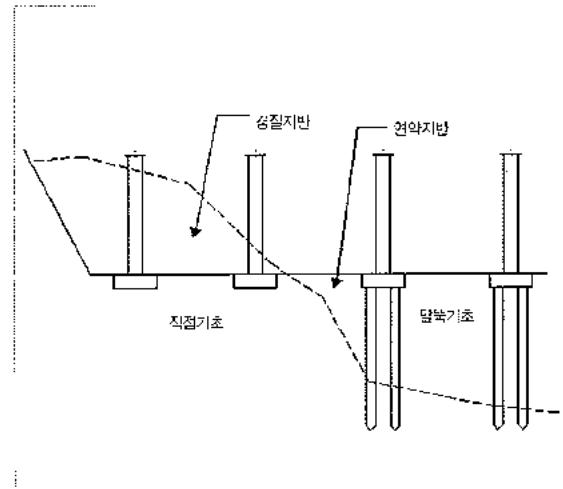


그림 5 하나의 건물이라도 상태가 다르면 기초의 종류도 달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가 보다는 경험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규모 건물을 설계할 때는 토질 전문가에게 용역비를 지불하여 지반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기초설계에 임한다. 이 경우도 건축구조기술자는 건축주가 미리 발주하여 시행한 토질기술사의 토질조사결과보고서를 넘겨받아 내용에 적혀 있는 대로 기초설계를 한 것이다. 지상 15층+지하 1층 부분과 지상 6층 +지하 1층의 주차장 부분 및 지하 1층만 있는 부위 모두가 말뚝기초이다.

지상 15층+지하 1층 부분에 말뚝을 박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상 6층 지하 1층에 불과한 주차장 부분과 지하 1층뿐인 저층부에까지 말뚝을 박도

표 1(a) 직접기초 지지력 산정조건

공번	표고 (EL.+)	실도 (GL.)	기초 형태	내부 마찰각(°)	단위동량 (t/m ²)	접착력 (t/m ²)	근입깊이 (m)	해당자총 수	적용내용
BH-1	12.4m	8.8m	직접기초	33°	19	0	1.0m	총회로	50회
BH-2	12.4m	8.8m		31°	18	0	1.0m	총회로	36회
BH-3	12.4m	8.7m		26°	17	0	1.0m	총회로	12회

표 1(b) 직접기초 지지력 계산결과

공번	표고 (EL.+)	실도 (GL.)	지지력산정방법	허용지지력 (t/m ²)	허용지지력 적용값 (t/m ²)	비고
BH-1	12.4m	8.8m	Terzaghi	23	21	
			Meyerhof	30		
			Brinch Hansen	21		
BH-2	12.4m	8.8m	Terzaghi	16	15	
			Meyerhof	20		
			Brinch Hansen	15		
BH-3	12.4m	8.7m	Terzaghi	11	11	
			Meyerhof	13		
			Brinch Hansen	12		

록 설계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 같은 설계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이유는 앞에 설명한대로 한 건물에 여러 가지 다른 기초 형식을 채택하는 것을 꺼리는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대지 전체를 파서 지하실을 짓도록 설계한 것 이어서 건물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모든 기초는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

지반조사보고서 내의 “기초형태의 선정”이라는 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구조물의 설계하중을 $40\text{tf}/\text{m}^2$ 로 가정할 때 예정 기초면에 해당하는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직접기초보다는 말뚝기초가 적합하다.”

또한 그 아래 “지지력 검토” 난에는

“지지력: N 값이 12-50회인 풍화토의 경우 $11-21\text{tf}/\text{m}^2$ 내외”라고 써 있으며 그 계산 결과를 표 1로 제시하였다.

표준관입시험치에 따라 Terzaghi, Meyerhof 및 Brinch Hansen 공식에 각종 조사 자료를 대입해서 그 중 가장 작은 지지력 값을 골라낸 결과 표준관입시험치 $N=50$ 인 지반은 장기허용지지력이 $21\text{tf}/\text{m}^2$, $N=36$ 일 때는 $15\text{tf}/\text{m}^2$ 이고, $N=12$ 일 때 $11\text{tf}/\text{m}^2$ 이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PHC 파일로 설계할 경우 풍화암까지 SIP로 매입시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주상도에서는 $N=50/12$ 이상은 풍화암으로 분류하고 $50/13$ 이하는 풍화토로 취급하고 있다.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용역비를 받아 시행하여 정식 보고서를 제출한 위의 내용을 건축구조기술사가 무시하고 다르게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직경 450mm 인 90tf 내력의 PHC 말뚝을 1,962개나 박는 기초설계도서(그림 1 참조)가 작성된 것이다.

토질 조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토공사의 난이도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있겠지만 우선 기초설계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그렇다면 토질조사 시행 전에 구조설계자와 상의를 해야 옳을 터이지만 대부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주나 건축사의 지시를 받아서 시행 한다. 이 경우는 어떤 경로로 자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앞에 구조물의 설계하중을 $40\text{tf}/\text{m}^2$ 로 가정한 것을 보면 아마도 사전에 구조설계자와 심도 있는 상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하 1층 지상 15층 건물 기초를 위하여 $40\text{tf}/\text{m}^2$ 의 지내력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물론 기초를 크기가 작은 독립기초로 설계하려고 마음먹기만 하면 $40\text{tf}/\text{m}^2$ 이 아니라 $100\text{tf}/\text{m}^2$ 의 지내력도 모자랄 수 있다. 기초 크기를 줄이고 줄이다 마지막 단계가 되면 기초가 아예 없어지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전주는 구멍을 뚫어서 심

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기초가 아예 없다. 시트파일이나 연속벽(slurry wall)을 수직 구조부재로 검증하는 경우에도 기초가 따로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심지에 짓는 건물은 매트기초로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연질지반일 경우에 한해서 말뚝기초로 설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아제는 도심지에서 말뚝을 빠는 공법이 용납되지 않는다. 소음과 진동공해 때문이다. 또한 빠는 공법의 말뚝이 가능하다고 해도 무려 $90\text{tf}/\text{m}^2$ 나 되는 큰 용량의 말뚝을 빠는 장비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디젤해머를 알아보기로 하자.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말뚝 공식은 5S 공식이다. $\text{Ra} = F/(5S+0.1)$ 에서 Ra 즉 말뚝의 장기허용지지력이 $90\text{tf}/\text{m}^2$ 일 때 말뚝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최종관입량 $S=0$)까지 박기 위한 최소 규격 디젤해머의 F는 $9\text{tf}/\text{m}$ 이다. 즉 $10\text{tf}/\text{m}$ 정도의 대용량 디젤해머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항만 공사 등에서나 쓰는 것이어서 건축공사장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싫어도 사전에 구멍을 뚫어서 심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동재하시험이나 정재하시험 등으로 지지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기초공사를 속행할 수 있다. 그 공사 기간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달은 걸리고 말뚝 재료값이 6억원이며 말뚝 박는 공임은 3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만약 말뚝공사를 생략할 수만 있다면 공사기간 2달 단축에 따르는 간접비 6억원 + 말뚝값 6억원 + 공임 3억원을 합하면 15억원이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건물을 설계했으며 그대로 시공하여 사용 중이지만 표준관입시험치가 40 이상인 경질지반에는 말뚝을 빠려서 박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설사 그런 땅에 말뚝을 박으라는 설계도서라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말뚝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을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구멍을 뚫어서 말뚝을 심으라고 한 경우는 그런 부당성도 발견되지 않는다.

앞에서 부분적으로는 1-2m 정도 파고 내려가야 경질 지반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그 부분을 좋은 흙으로 치환할 생각으로 말뚝 전부를 삭제하는 대신 매트기초로 설계변경 할 것을 검토했다. 구조계산을 확인한 결과 매트기초로 설계할 경우 15층 부분에서 필요한 최대 지내력은 $25\text{tf}/\text{m}^2$ 이고 저층부의 소요지내력은 $10\text{tf}/\text{m}^2$ 에 불과함을 확인하였다. 즉 앞의 $40\text{tf}/\text{m}^2$ 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기껏 치환하라고 하면 빈배합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너무나 큰 낭비를 조장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지내력 $40\text{tf}/\text{m}^2$ 이라는 것은 불과 $4\text{kN}/\text{m}^2$ 이라는 뜻이므로 허용압축강도가 10배 넘는 값비싼 콘크리트로 대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

면 모래를 다짐이 적합하다.

모래는 진흙과 달라서 물을 부어가며 다지면 체적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모래 대신 폐골재를 사용하기로 했다. 폐골재는 본 건물을 짓기 전 창고로 사용하던 옛날 건물을 훌어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분쇄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사용 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현장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일단 장외로 반출해서 팔았다가 다시 다른 곳에서 사다 쓰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하는 과정에서 폐골재가 모래보다 훨씬 싸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소득이다. 폐골재의 값이 그렇게 싼 이유는 건축폐기물을 처리장으로 가면 돈 주고 버려야 하는데 이를 잘게 부셔서 팔면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받는 모양이다. 주로 도로포장에서 보조기층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폐골재 만을 그대로 다지는 것이 불안했던지 현장에서는 시멘트 물을 부어가면서 다졌다고 한다.

원래의 독립기초를 매트기초로 바꾸고 외벽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1 억원정도를 추가로 절약하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의 환토(치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600만원에 불과하였다.

이 같은 V. E.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가장 큰 저항은 원 설계자와의 갈등이다. V. E.의 기본은 "원 설계"라는 기본 바탕이 있어야 한다. 즉 처음부터 말뚝을 사용하지 않은 설계였다면 삭제할 말뚝도 없으므로 V. E.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럴 때 원 설계자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설계비를 깎으려 하는 건축주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는 원 설계자에게 이 같은 설계변경(도면 변경 및 변경 허가 등)에 따르는 수고비를 주지 않으려 하는 건축주도 있다. 그렇게 되면 V. E. 프로젝트 하나를 시행할 때마다 원수가 하

나씩 생겨나는 부작용을 각오해야 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대지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뜻 있는 일이다. 우주의 어느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 대지는 유일한 것이다. 그 건물을 짓고 나면 앞으로 수명을 다하여 헐어버릴 때까지 수십 년간 그 땅을 훌로 독점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적인 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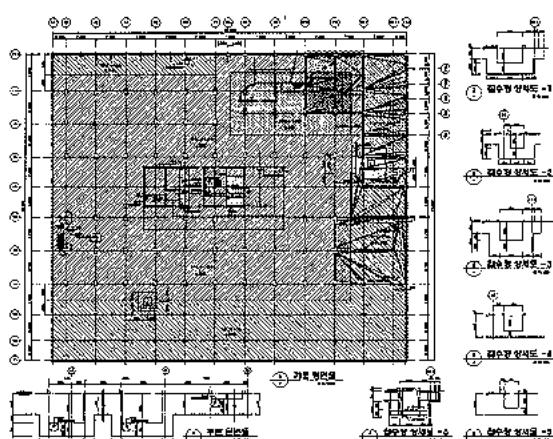
그런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므로 2번 3번 설계해도 부족하며 쥐꼬리만한 설계비를 10번 지불해도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공사비에 비하면 설계비의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누가 설계해도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개선할 점이 발견되기 마련이며 자기가 설계한 것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연구해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 것이 설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V. E.가 이루어질 기본 조건은 기존 설계도서를 다른 방법으로 변경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변경 설계비를 지불하고도 발주자나 시공자에게 돌아갈 몫이 충분해야 한다.

위 프로젝트는 앞에 거론한 바와 같이 당초에는 공사비가 다소 증가하는 힌이 있어도 공사 기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시행할 생각이었는데 말뚝 공사를 생략함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공사비까지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길거리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웠을 때 주인을 찾아 돌려주면 민법상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시공자가 대안을 제시하여 공사비를 절감했을 때 절감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준다는 법규가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은 V. E.의 대가는 얼마가 적당할 것인가? 사전에 당사자들끼리 약속을 해 두어야 한다.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를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견적하는 사람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 견적은 시공자가 더 잘할 것이므로 시공자가 양심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따르고 공기 절감으로 얻는 이득은 모두 시공자(여기서 시공자는 발주자를 겸함) 몫으로 하되 실제로 직접공사비가 줄어드는 약수의 20%만을 용역비로 지금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원 설계자에게 변경도면 작성을 시키려면 추가 부담이 되므로 구조도면은 V. E.를 시행하는 자가 작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 설계자가 추가로 손을 보아야 하는 건축 도면의 변경 비용은 발주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쉽게 승낙을 받았다. 물론 공사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비상주 감리 형식으로 서비스 하는 것도 조건으로 하였다.

말뚝지정에 독립기초로 설계하면 매트기초 보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상식에



■기초 형식 : 지내력기초(Mat Foundation)
■기초 두께 : 고층부($THK = 1400, 1100$) 저층부($THK = 700$)
■사용철근 : 주철근 HD29(SD50)
■허용지내력 : $Fe=30tf$ (정화조 인접구간) $Fe=2tf/m^2$ (고층구간) $Fe=10tf/m^2$ (저층구간)

그림 6 MAT기초 평면도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V. E. 결과 철근콘크리트 공사비도 상승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하실 외벽의 V. E.도 재미있는 아이템 중의 하나이다. 이 현장에서 흙막이 설계는 H형강을 박은 후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철근콘크리트 외벽과 합성설계를 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H형 말뚝은 영구구조재료로 사용한다. 강재가 지중에 묻혀 있는 동안 지중에 함유된 산소와 화합작용을 일으켜 녹이 나기 마련이지만 부식 속도가 더디므로 2~3mm 정도의 강재 두께만큼 녹이 나서 없어질 것을 감안하여 계산해 두면 건물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더구나 이 경우는 시전에 끊어놓은 구멍에다 H형강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흙막이 기설재인 CIP를 활용하는 것으로 H형 염지말뚝은 녹이 날 염려도 없다. 따라서 지하실 흙파기를 마친 후 H형강 주변을 싸고 있는 CIP의 지하실에 면한 콘크리트를 끄내고 H형강 플랜지에 시어코넥터를 용접하여 철근콘크리트 벽체와 일체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반 현장에서 그냥 버리는 흙막이 기설재를 영구 골조로 활용하는 것으로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단면이 대폭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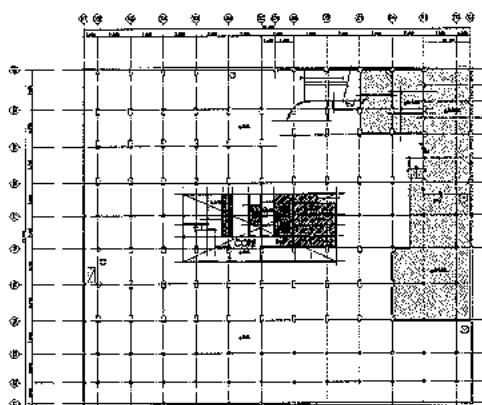


그림 7(a) 지하 1층 RC 기둥 - 기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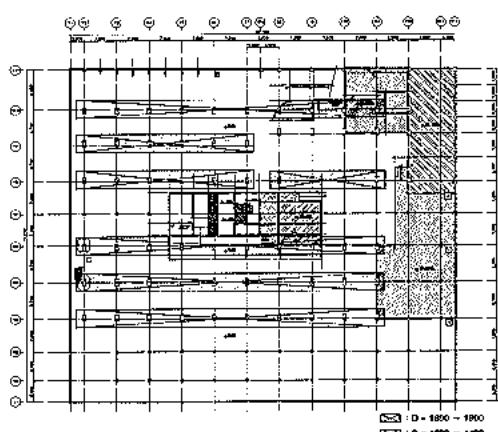


그림 7(b) 지하 1층 RC 기둥 - 변경안

본 프로젝트에서는 흙막이 설계도면에 이미 염지말뚝과 지하실 외벽과를 시어코넥터로 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구조설계에서는 염지말뚝을 영구구조재로 취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벽체 두께를 350~550mm로 설계하였으나 염지말뚝을 영구 구조재로 활용한 결과 벽체 두께가 250~350mm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시어코넥터의 굵기와 수량도 필요이상 이어서 22mm@200이었던 것을 19mm~300@로 줄였다. 직경 22mm와 19mm의 차이가 3mm 차이라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시어코넥터를 현장 용착하는 데 필요한 최대 전기 용량이 $192/222 = 75\%$ 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대구경의 시어코넥터를 용착하는 순간 전기 용량 부족으로 타워크레인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시어코넥터의 용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화로 걷어차도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된다.

지하실 외벽 두께가 250~350mm이며 첫 번째 기둥까지의 간격이 멀지 않으면 외벽에 구태여 기둥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이는 외벽이 기둥 구설도 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실 외벽 내부 면에 기둥이 없이 평활하다면 방수공사도 편하고 지하실 활용 면에서도 유리하다. 더구나 결로방지를 위하여 2중벽을 쌓으려면 기둥이 없는 편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것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기술자가 의외로 많다.

지금은 완공하여 입주를 마친 H 건설회사 아파트현장 소장에게 이를 건의했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완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성사시키지 못한 적이 있다. 즉 지하 외벽에서 기둥을 삭제하면 외벽 배근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을 설득하지 못하여 포기한 것이다. 위 주장이 맞는다

표 2 지하 1층 RC기둥 변경

항 목	내 용		적용N
	내 용	내 용	
기둥삭제	-	Y1×X1~X14열 X1×Y2~Y10열 X12×Y8~Y11열 X14×Y2~Y5열 X2, X13×Y2, Y3열	14 9 3 4 4
	800×1800 800×1600 φ1200 1000×1000	800×1600 800×1400 φ1100 900×900, 800×1000, 850×1000	19 ^b 35 ^d 1 ^c 12 ^d
	600×1800(C5A) 600×1500(C5B)	300×1450(BT1)×3~X6×Y11열 600×600(C5)×2~X3×Y11열	7 1
	지하 1층 하역장내 존재 (C7)	하역장 효율성을 위해 공장 외벽으로 이동(C5)	1
	-	지하외벽과 1층 보의 일치화를 위해 기둥추가(X2×Y11)	1

면 지하철 터널이나 공동구 외벽에도 기둥을 추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하 외벽뿐만 아니라 구조상 없어도 되는 기둥 몇 개까지 합하여 모두 34개의 기둥을 삭제할 수 있었다. 삭제한 기둥 중에는 주차장의 주차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얻는 것도 있었는데 이는 건축설계 하는 과정에서 구조 전문가가 단지 건축사의 시녀 노릇만으로 만족하는 대부분의 설계 과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을 실무에 적용한 것이다. 기둥 위치를 변경하여 주차장을 시원하게 변경한 것도 있다. 어떤 것은 기둥의 크기를 대폭 줄인 것도 있다. 이런 모든 것은 설계를 건축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조기술자도 건물 사용자의 입장에서 조언하고 문제를 풀어야나가야 함을 **증명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보람과 긍지로 느끼는 것이 건축을 **천직으로**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겠는가?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편하다는 옛 말이 있다. 같은 기둥 배치라고 해도 보를 걸치는 요령에 따라 가지런하게 모양새가 좋은 집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가급적 보를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면 거푸집 설치도 쉽고 슬래브 배근도 원활해진다. 대크플레이트를 사용한다 해도 통일된 어느 한 방향을 주 응력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재료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설치 작업도 쉬워진다. 이런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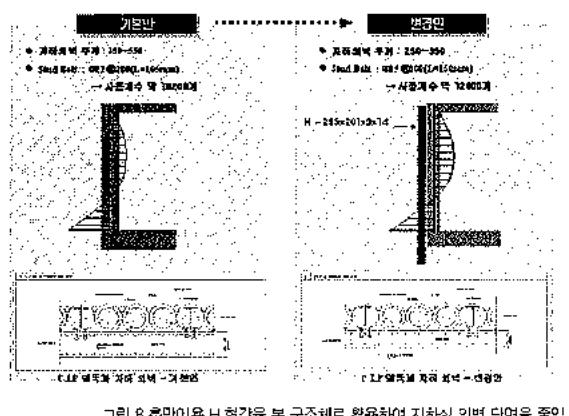


그림 8 출입이용 H 형강을 본 구조체로 활용하여 지하실 의뢰 단면을 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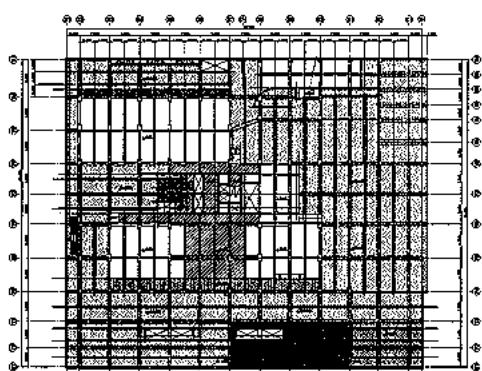


그림 9(a) 지상1층 구조 평면도-기본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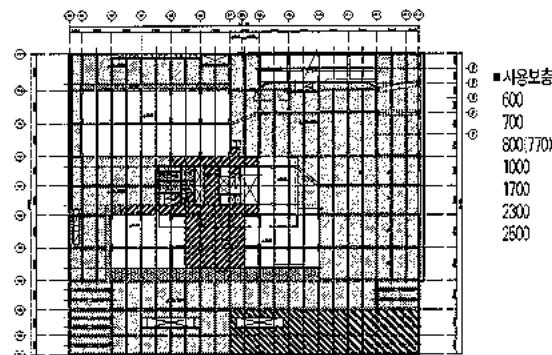


그림 9(b) 지상1층 구조 평면도-변경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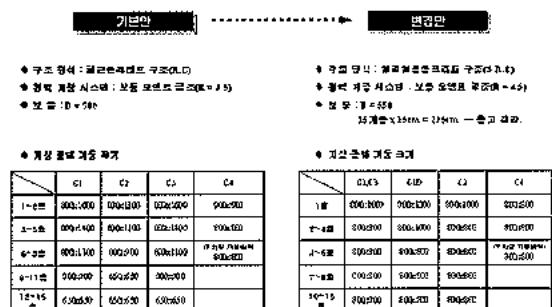


그림 9(c) 지상층 구조시스템 변경방안

은 공사비 산정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발주자는 무관심하기 십상이지만 실제로 시공하는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일 수도 있다. 같은 값이면 일하는 일꾼들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함으로 인하여 고생도 덜 하면서 소득이 많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 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V. E.는 국내 현장에서 수없이 접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0번 시도해야 한두 번 성공하는 드문 일이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제대로 맞아 떨어져서 실제 공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처음 담당자 3명을 만났을 때 제안한 전제 조건이 “seminar”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원 설계도와 터무니없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부터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재차 검토를 하여야 하고 때로는 자문위원이나 전문 분야 교수들을 초청한 설명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애써 얻을 수 있는 공기단축 효과가 이 seminar로 인하여 소실되고 말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V. E. 적임자의 첫째 조건은 과거의 경력과 신용도가 절대적이어야 한다. 대개 건축구조 전문가들도 다른 공학계열과 마찬가지로 자존심, 자부심이나 용고집이 보통 이상이다.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안전”을 방패로 삼아 반대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번 V. E.는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본 현장에서의 2-3개월의 단축은

최소 요구조건이었으며 앞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타나면 이를 소화할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특히 거푸집 목수와 철근공은 건축분야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직종이어서 중국 조선족들을 데려다 쓰는 형편이다. 목수의 정부 노임단가는 6만6천원 인데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10만 원을 주고 다가구주택 같이 규모가 작은 현장에서는 무려 15만원이나 준다고 한다. 일자리가 별로 없을 때는 고정적으로 장기간 일 할 수 있는 큰 현장을 선호하지만 요즘같이 바쁜 시절에는 작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계속 일할 수 있으므로 큰 현장에서 일꾼 구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실제로 작년 여름 큰 현장들에서 일부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오랫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원 설계가 철근콘크리트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철골조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철골조가 철근콘크리트조에 비하여 20~30% 비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터무니없는 제안일 수 있으나 TSC 구조를 사용하면 별로 큰 돈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초공사에서 공사비를 줄여놓았으므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다. 물론 이것도 제안자를 전적으로 신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어느 집단을 약탈하고 마지막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판단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손에 잡히는 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해도 이를 채택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고 선선히 받아들인 현장 소장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에게 감사하며 그 때문에 더 열심을 다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할 것을 다짐한다.

결과는 너무나 성공적이다. 공사 도중 타워 크레인이 고장을 일으켰고 공사 하청업체의 부도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으며 유난히도 많이 내린 비로 인하여 일 하지 못한 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을 앞의 2개월 외에 3개월을 더 단축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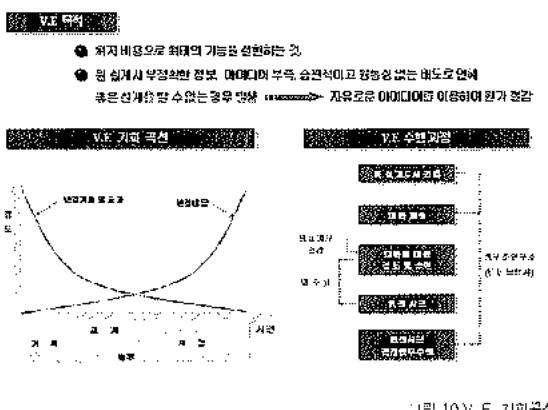


그림 10 V.E. 기회곡선

다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건축설계도를 완성하여 입주자들과 계약으로 약속했던 것을 도중에 설계변경하는 것이므로 TSC 공법을 적용하여 보의 높이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층고를 그대로 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마도 냉난방 및 전기설비 공사는 작업 조건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다. 모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층고를 낮추면 공사비가 대폭 절감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관습상 건물의 규모 표시를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실은 건물의 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로는 원래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하기 위하여 계약했던 것을 TSC 구조로 바꿈으로 인하여 철근콘크리트 물량이 대폭 줄기 때문에 공사비 단기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협력업체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다. 건물의 규모나 질에 따라 적합한 전문 단종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현장 관리의 기본 요령인데 마치 10톤 트럭을 불러 놓고 1톤 무게의 짐을 싣고 가라고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가 된다.

셋째로 원래부터 철골조로 계획했으면 타워 크레인의 배치와 용량도 달리 하고 미리부터 코어 콘크리트 공사를 서둘렀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으로 인한 코어 벽체 돌관 작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넷째로 시어코넥터 등 현장 용접 물량 증기에 따르는 임시 전기 용량도 추가로 늘려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실제로는 엄지말뚝에 Ø22 시어코넥터를 현장 용착하는 공정이 있었으나 이를 감안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섯째는 당초부터 TSC 구조로 설계했더라면 모든 건축상세를 철골구조와 어울리도록 설계하였을 것이나 보 밑에 매달린 수벽 등 여러 부분에서 격에 맞지 않는 상세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를 조정하는 비용도 추가되었다.

그림 10은 잘 알려진 V. E. 기회곡선이며 위 부작용이 있었던 이유가 공사 발주 후 V. E.를 시도하였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과감하게 TSC 구조로 변경했던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처음 접하는 일을 시행하려면 서투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여유 있게 책정해 두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만회할 때 도움이 된다. 초기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대목은 현장에서 TSC 보를 기둥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기둥 브라켓에 보를 얹는 상세도를 그려서 보낸 결과 놀랍게도 조립 작업이 너무 수월하다는 평을 받게 되었

다. 일반 H형 보를 조립하는 데도 하루에 보 30개가 표준이었는데 이 TSC 보는 70개를 시행하고도 여유로워서 75개도 가능하므로 오히려 공장에서의 TSC보 생산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과거에 사용하던 철골 디테일을 비판 없이 담습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방법을 일반 H형강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세도를 연구하는 중이다.

철골 보를 기둥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으로 보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양단을 상하 동서남북 입체적으로 이동시켜서 구멍마다 볼트를 끼워 너트를 조여야 한다. 말은 간단하다 하지만 기둥에 매달려서 이 작업을 하는 일꾼은 조금만 실수해도 떨어져 죽을 수 있으므로 안전벨트를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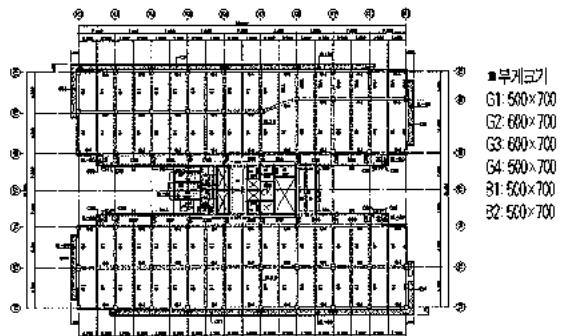


그림 11(a) 기준용 구조 평면도 기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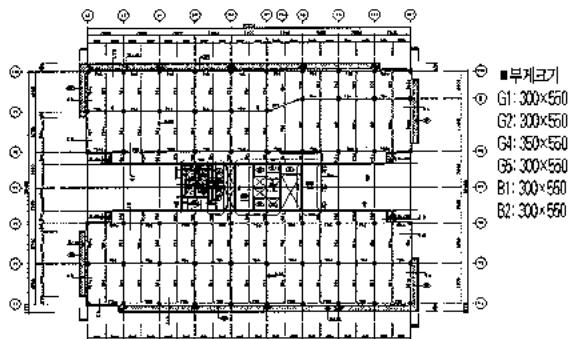


그림 11(b) 기준용 구조 평면도-보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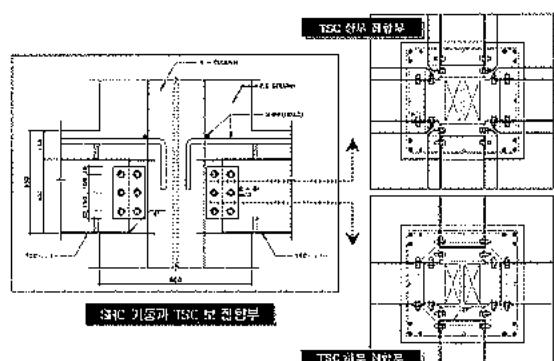


그림 12(a) SRC 기둥과 TSC 보 접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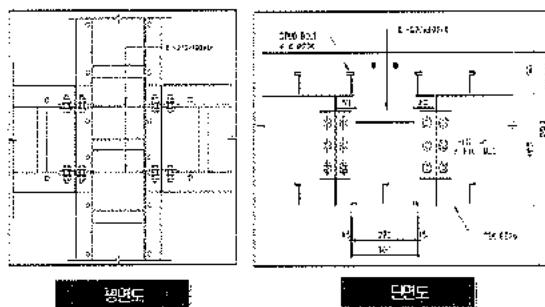


그림 12(b) TSC 노 판접합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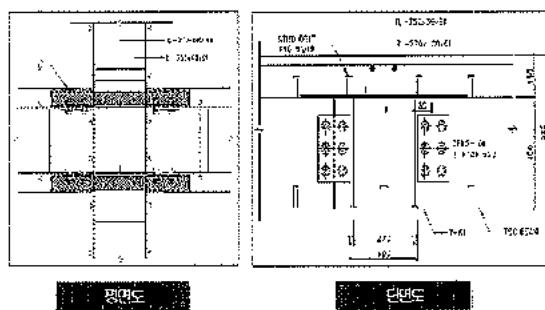


그림 12(c) ISC 노 강찰합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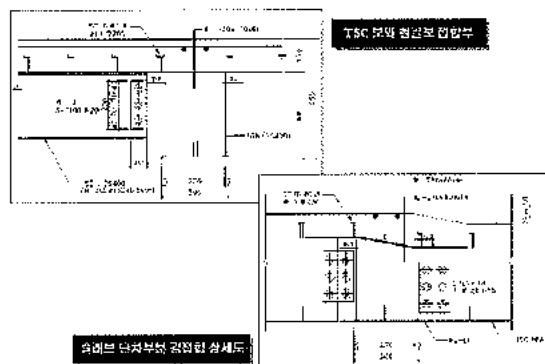


그림 12(d) TSC 보 접합 상세도



그림 13 시어코넥터 시공



그림 14 척, 시어코넥터, 열차단자

고도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 12(a)와 같이 기둥에 턱을 내 두면 우선 턱에다 보를 얹어 놓은 상태에서 평면상에서만 조금씩 이동하여 구멍을 맞추면 볼트너트를 채울 수 있으므로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구조 설계하는 자 스스로가 현장 작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간단히 생각해 낼 수 있는 일이다.

철골보와 슬래브가 협동하여 하나의 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쉽게 활용하는 것이 시어커넥터이다. 그러나 이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 시어커넥터를 철골 부재에 부착하는 정식 방법은 그림 13과 같다. 시어커넥터의 머리를 척 (원통형 양도체)에 슬리트를 조성하여 시어커넥터의 머리를 손쉽게 끼웠다 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끌고 시어커넥터 끝에 마련된 뾰족한 전극을 붙이고자 하는 철골 부재에 밀착한 체 척에다 전원을 연결하면 전극에 순간적으로 대용량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온이 발생하여 시어커넥터 와 붙이고자 하는 철골부재가 녹아 붙게 된다. 열이 밖으로 새는 것을 방지하고 녹아 붙는 모양새가 둥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부분에는 도자기로 만든 열 차단제재 소모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어커넥터는 공장에서 철골 부재에 용착해서 현장에 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철골 보에 데크플레이트를 얹어야 하는 경우에는 싫어도 현장에서 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시어커넥터가 데크플레이트를 뚫고 그 아래 철골부재까지 용접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정성들여 시공하지 않으면 부실 용착 되는 수가 많다. 앞에 말한 대로 안전화로 걸어차도 떨어지는 일도 일어난다. 그 때문에 감리자는 이들 하나하나 모두를 강관에 끼워서 구부려 보는 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철골 보를 걸쳐놓고 그 위를 곡예사처럼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는 현장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어커넥터가 더할 수 없이 미운 걸림돌이 된다. 더구나 TSC 보에서 폭이 좁은 양 날개에 한 줄씩 시어커넥터를 용착하고 보니 그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추가로 TSC보 양 날개 사이에 그형강이라도 부착해야 할 판이다. 그래서 아래 시어커넥터 구실도 하면서 작업자가 걸어 다니기에 편한 드형강이나 그형강을 용접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TSC 보는 H형강과 달라 상부 플렌지 단면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합성 보의 압축재 역할을 하는 슬래브 콘크리트가 양생되기 전 까지는 가설 서포트로 받쳐 줘야 한다. 기둥에 접합되는 큰 보(Main Girder)는 작지만 상단 플렌지를 용접하였으므로 빙강집보 구실을 하게 된다. 따라서 큰 보에서는 가설 서포트를 생략하고 작은 보에만 중앙에 1개

소씩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번거로울 것이므로 상부 보와의 사이에 강선을 연결하여 2개층 이상의 보가 1개 층의 콘크리트 슬래브 시공하중에 견디도록 변경하였다. 물론 지붕 슬래브는 그 위에 철골보가 없으므로 최상층 바닥 콘크리트 양생 후 가설 서포트로 지붕보를 받쳐 줘야 한다.

철골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에 비하여 단점으로 알려진 사항 중 처짐과 진동 문제는 잘 알려진 사항이다. TSC 구조를 설명할 때마다 이 질문을 받으므로 이번 기회에 진동시험을 하기로 했다. K 타워뿐만 아니라 시공 중인 L 빌딩에서도 거의 동시에 진동시험을 실시한 결과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S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진동시험을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모든 사항의 새 버전들은 현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얻게 되는 산물이다. 이번 경우는 현장 담당자들과 당사 실무자들이 혼연일체로 뜻이 맞아 좋은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를 다른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현장 견학을 시킬 때마다 K타워 현장에서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협조해 준 것이다. 실제 적용한 현장 당사자가 장점을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은 센구조가 열 빈 지팡을 늘어놓는 것보다 효과가 큰 것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K 건설에서는 제2, 제3, 제4 K 타워 공사를 TSC 구조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시원스럽게 골조공사를 완성한 K 타워를 눈여겨 본 현장 건너편 S 공사 시행자도 원래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TSC 구조로 변경하는 한편 부산에 시행하는 다른 프로젝트도 TSC 구조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상 K 타워의 V. E. 경과를 설명했으나 T.S.C 구조는 계속 버전업해 가고 있으며 내년 초부터는 공장에서 코일을 연속포밍 작업으로 대량생산한 T.S.C.보를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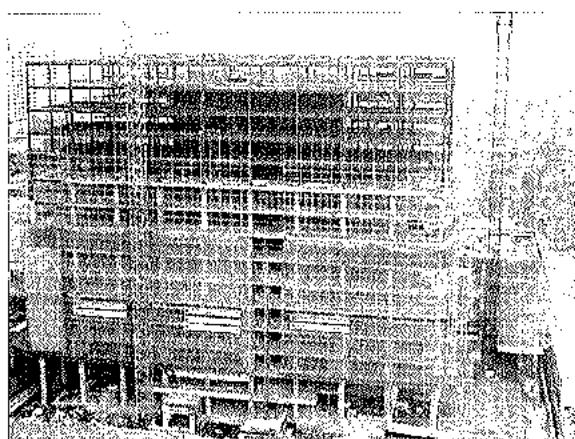


그림 15 TSC로 굽조공사가 완료된 K 타워의 외관